

청전 스님(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
"나의 종교는 민중
민중이 부처님"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7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58호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조계종 원장 선거, '추첨제'로 바뀌나

법등 스님, 10일 '염화미소법' 제안… 종책모임과도 합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거제도 변화안으로는 직선제와 준직선제가 논의돼 왔으나, '추점제'로 변화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법등 스님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소법'은 종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첨해 선택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하며, 후보자는 엄정한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종단 호법부와 사회기구에 신원 조회는 물론이고 1년간의 사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계·정·혜 후보 3인을 선출하면 1주일 후 원로의원, 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종정 스님이 3인 중 1인을 염화미소(추첨)해 행정부 수장을 선정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등 스님은 "작금의 선거제도는 금권, 종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염화미소 선거법'은 종단의 오랜 전통인 대중공의 방식과 19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인 민주화 방식의 장점만을 선택한 선거제도이고, 작금의 종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정 스님이 염화미소로 선택한 신임 총무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구의 물적 도움도 받지 않는 까닭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종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도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하고 갈등하는 폐해를 없애고 종책 연구와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선제와 추첨제 혼합 방식
계·정·혜 후보 3인 선출하고
종정 스님 1인 비공개 추첨
"기존 선거제 폐단 줄일 것"
9월 중앙종회서 다뤄질 듯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조계종 종책모임인 불교광장(회장 지홍)과 삼화도량(회장 영담)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삼화도량은 8월 9일 법등 스님과 회동을 가졌고, '염화미소법'을 선거제도 변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광장은 기자회견 직전 회장단과 임원진이 모여 법등 스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 지홍 스님은 "삼화도량은 직선제 방안을, 불교광장은 준직선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법등 스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그간 선거를 마치면 항상 대표성 문제부터 금권, 파벌까지 다양한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제안을 논의해 중앙종회에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화미소법' 제정 추진은 종단에서 구성될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의회 구성은 중앙종회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등 스님은 "선거인단 구성과 최종 후보자 인원, 후보자 검증 방법 등 세부적 방안은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길 제안한다"면서 "협의회가 구체적 방안을 만들고 나면 종회에서 종헌과 선거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오는 9월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과 외부 활동인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중공의기구' 21인 내외 구성한다

조계종, 의현 스님 재심 논란 해소 세부계획 26일 발표

의현 스님 재심논란 해소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대중공의 기구'의 윤곽이 나왔다.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이하 추진위)는 8월 13일 6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9일 5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된 '대중공의 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대중공의 기구' 규모를 출·재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망라해 15~21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중공의 기구 목표와 운영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을 팀장으로 한 준비팀과 대중공사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5차 대중공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에 대해서는 호계원에 사부대중의 뜻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대중공사 후속 조치의 경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위원회의 성격과 주무부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사찰 재정 투명화의 경우 오는 9월말부터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제6차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26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의제로 진행된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대중공의 기구' 구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군산 동국사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어루만지고 있다. 사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처음이다.

'평화의 소녀상', 사찰 첫 건립

광복 70주년 맞아 군산 동국사 경내 세워져
일본 동지회 1천만원 쾌척… 한일교류 '귀감'

광복70주년을 맞아 사찰 경내에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에 세워졌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공동위원장 이승수, 김부영)는 8월 12일 군산 동국사에서 '군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경내에 세워진 군산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 36년간 강제 수탈의 현장인 군산시민의 성금 5천여만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전국에서 11번째, 전북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조동종 이치노혜 스님등 동지회(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가 2012년 일본의 과오를 참회하며 만든 참사문비 바로 앞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세) 할머니가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은 위안소가 없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을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나고 명예회복과 진실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참담했던 인권침해 사례이다"며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불교계의 인권운동은 물론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자비정신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합·상생의 새 시대 열자"

KCRP, 광복 70주년 대국민 메시지 발표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회장 자승, 이하 KCRP)가 광복 70주년 8.15를 맞아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했다.

KCRP는 지난 1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광복절이 다른 해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며 "또한 새 시대를 열어내셨던 선연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KCRP는 밝은 미래사회를 위해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들은 "남북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정전체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대결구도 속에서 평화는 물론 민족의 도약을 전망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남과 북은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계층 간 갈등의 원인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화해와 화합의 정신적 가치를 내몰고 대립적 사고, 경제 중심적 사고, 무한경쟁 풍조가 그 중심에 들어앉았기 때문"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남 서천서 백제사찰 유구 발견

도자기 생산시설 자리해, 사원경제 연구 모델

충남 서천은 백제시대 수운의 중심이었다. 이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백제사찰유적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8월 11일 2014년 3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충남 서천 유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기 생산유적의 유구(遺構)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특히 도기 생산유적이 백제사찰의 일부였음을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적지 외곽에서는 백제 토기와 기와 가마, 주조유구(鑄造遺構), 통일신라~조선 시대에 이르는 기와·도기·자기·숯가마 등의 유구와 함께 연화문, 수막새 등 사찰 유구가 발견됐다. 또 유적 중심부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로 연대가 쓰인 '운갑사'와 '개복사' 등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출토유물 등으로 미뤄 사원(寺院) 등의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고

새 우편번호 전면 시행 따른 일괄전환 안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를 애독해주시는 독자 제호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법 시행령'에 의거 5자리 새 우편번호로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지에 등록된 독자님들의 우편번호도 원할한 배송을 위해 새 우편번호로 변경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화 된 주소가 아닌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독자님들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 신청 바랍니다.

변경신청 문의 (02)2004-8212



2015 Manhae Festival 萬海祝典

"독립·평화 노래한 만해정신 계승"

만해대상 12일 시상식… '설악·금강' 주제로 열려

광복70주년을 맞아 일제침략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짚는 만해축전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림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통일을 의미하는 '설악과 금강'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사부대중 1000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특히 올해 만해대상은 세계평화와 인류애를 실현하는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교수를 비롯해 실천부분에 천노엘 신부, 청전스님, 문예대상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황병기 가야금 명인, 정현종 시인에게 각각 상이 수여됐다.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해 온 더든 교수는 "만해스님의 시를 통해 그의 정의롭고 순수한 휴머니즘을 만날 수 있었다. 만해스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천노엘 신부는 "만해스님의 삶은 사회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받고자 투쟁하는 장애인들과 닮아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히밀라야 오지를 다니며 빈민에게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전해오고 있는 청전 스님은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위해 베푸는 행이 수행임을 믿고 작은 실천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예대상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이어온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신 교수는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20년간 수감생활을 감내했으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을 펴냈다. 또 가야금 명인 황병기 명예교수는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 온 공로와 정현종 시인은 등단 50년 동안 수많은 문학작품을 통해 문단을 이끌어온 점에서 문예대상을 수상했다.

더든 교수 등 6명 부문별 수상
"만해 스님, 순수한 휴머니스트"
백일장, 학술세미나 등 행사 다채

행사 주최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만해대상을 수상한 많은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즉, 만해대상은 노벨상 후보를 뽑는 상"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며 "식민지의 어둠과 정면으로 맞선 만해 스님은 궁핍한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불꽃 속에 연꽃이었다. 역사왜곡에 항의성명을 낸 더든 교수와 히말라야 오지마을에서 봉사를 해온 청전 스님 등 수상자들에게 상을 건넬 수 있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만해스님은 수행자이자 위대한 시인이었고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였다"며 "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만해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 주의였다. 인권과 평화를 지키고 세상에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현시대의 선각자들에게 이 상을 드려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만해축전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과 인제시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전은 동국대가 행사 주최를 맡아 만해대상 시상식, 전국고교생 백일장, 학술·문학심포지엄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청년만해학교, 어린이미술캠프 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순선 만해축전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만해축전 시기를 맞춰 홍성군 서울성복구 등 만해 스님과 인연이 있는 단체가 함께 순례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만해탄생지인 홍성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만해축전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림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만해 흉상 앞에 서 있는 만해 대상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알렉시스 더든 교수, 무지개공동회 대표 천노엘 신부, 청전스님, 신영복 교수, 정현종 시인, 황병기 교수

강원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 자신들의 침략사 반성해야"

인터뷰– 만해대상 평화부문 알렉시스 더든 교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발전도 가능합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일본은 균형을 잃은 역사인식에 빠져 있어요.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성하는 등의 움직임이 한일, 그리고 동북아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5 만해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알렉시스 더든(Dudden · 46 · 사진)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8월 12일 시상식이 열린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일본이 식민지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든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전문가로 특히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연구를 전공했다. 2015년 2월 미국 역사학자들의 연서를 받아 일본 아베정권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지적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든 교수는 일본이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를 언급했다. 일본은 당시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이어 1998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

더든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의 발언과 행동은 현재 일본 국민 인식보다도 훨씬 균형을 잃은 상태"라며 "위안부 문제 등 책임에 대한 언급없이 평화헌법 폐기를 시사하는 것은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더든 교수는 이날 수상소감으로는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을 예로 한국인들의 평화주의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더든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영어로 번역된 만해 스님의 시집을 보고 만해사상에 천착했다.

"만해 시집을 보았을 때 태어나 처음 물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그녀는 "마시는 순간에 그의 말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수년째 자신의 강의시간에 만해 한용운의 시를 학생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있는 그녀는 만해 스님의 시에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의 특이점을 찾았다.

더든 교수는 "만해 스님은 순수한 노래로 평화와 독립을 노래했다"며 "이를 통해 일본 식민 통치가 어떤 의미였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구인사 국제선원 9월 12일 낙성

선원 등 5개동 구성

충북 단양 영춘면에 건립불사중인 구인사 국제선원이 2013년 4월 착공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낙성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구인사 국제선원(선원장 덕수 스님)서 국제선원 낙성대법회를 봉행한다.

구인사 국제선원은 종교와 종단, 지역과 계층, 국가와 인종 등을 초월해 누구나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립된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다. 2013년 4월 20일 첫 삽을 떴으며, 2014년 8월 28일 대들보를 올렸다. 올 6월 23일에는 국제선원장에 덕수 스님을 임명해 마무리 불사중이다.

한편 구인사 국제선원 건립에는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 국제선원은 7,825㎡(2,370평) 부지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주일 기자

일제 강점기 추가 경판 어떻해야 하나

문화재청, 팔만대장경 경판 추가 발견… 94판 늘어나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추가경판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시대 제작된 경판을 비롯한 시대별 경판의 가치에 대한 불교계와 학계 관점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8월 11일 팔만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알려진 8만 1258판보다 94판 늘어난 8만 1352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판수는 문화재청이 2000년부터 진행한 '팔만대장경 디지털화'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다. 늘어난 94판 중 36판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경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장경판의 경판 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으나 국보로 지정된 1962년 이후에도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가 그대로 인정돼 왔다.

윤순호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은 "대장경판은 워낙 많고 경판이 한두 점씩 발견되기도 해 숫자가 틀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경판을 하나씩 빼서 촬영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량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늘어난 경판을 두고 학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장경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모두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면밀한 조사 후 시대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 것이다.

36판은 일제 제작 확인돼
최종 8만 1352판으로 집계
국보지정 추진에 학계 지적

전수용역을 맡았던 최영호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제작된 36판의 경우 훼손된 대장경판을 보완하고자 제작한 문화유산"이라며 "시대별 대장경의 문화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보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일본시기 경판의 경우 근대문화재 지정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판 전문가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대장경은 시대마다 보수과정에서 보판이 이뤄졌으며 이에 이중판 등이 존재한다"며 "그렇기에 본의미의 대장경은 1248년 고려에서 간행과정 끝에 만든 대장목록에 의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일본의 경우 대장경을 '일체경'이라 하여 총괄해 부르고, 시대별 구분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위원 흥선 스님도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이후 문화재 지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0월 경 학술대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판의 국보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회장 선출 총회, 10월 중순 열린다

11일 18차 운영위서… 9월 10일 최종 결정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10월 중순 경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9월 10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확정한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1일 서울 강남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18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11대 회장선거 관리 및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뒤에는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과 부위원장 묘주 스님 등이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9월 10일 임원진회의를 열고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날짜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총회는 대략 10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입후보자가 한 명이면 추대, 두 명 이상이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배구대회 4년 만에 열린다

8월 30일 단양공설운동장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유훈에 따라 1974년부터 펼쳐온 화합의 장 '제38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및 천태화합한마당'이 8월 30일 단양공설운동장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1년부터 3년 마다 개최키로 했다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연기돼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현재 30여개 말사서 참가신청을 마쳤을 정도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대회 구성도 이전보다 짜임새 있어졌다. 우선 종목은 배구·족구·단체줄넘기·승부차기·피구·8인 9각 달리기·명랑운동회 등 7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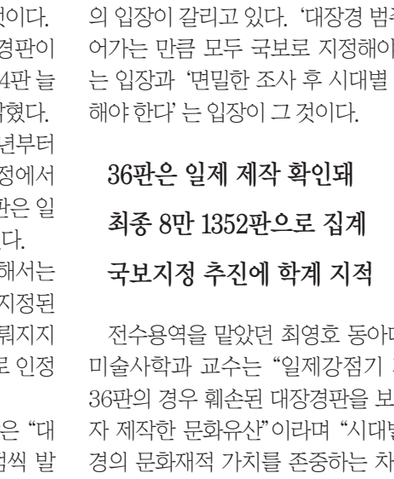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고운사 특강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承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强號之謂大乘

있다(有)는 것에 이끌어도 한결같은(一如) 그 쓰임이 공(空)과 같고, 없다(無)는 것을 얻어도 만물(萬物)이 그것을 타고 나오니(生), 알지 못함이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굳이 대승(大乘)이라 이름이니라.

大乘起信論 海東沙門 元曉 疏 본문 중에서



◐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100,000)
◐ 작년 동안거특강에 이어 강의가 진행되오니 대승기신론 책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www.gosusa.net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문화·사회사업 통해 지역과 소통”

조계종 포교원, 8월 11일 지역 공동체 워크숍 개최

지역 공동체로서 사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1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마음선원과 정토회의 사례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마음선원 사례 발표는 고명석 포교원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과 도연화 한마음문화원 담당자가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한마음선원의 공동체 정신은 대행 스님의 오공(五共)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오공 정신은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 △공식(共食)을 말하며, 나와 가정 이웃 사회 우주는 한 마음으로 이뤄진 연기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은 오공 정신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지구 공생관을 진행하고 지구 환경 살리기 운동을 진행했다. 한마음선원의 봉사활동이나 지역민을 위한 문화 활동은 이 같은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의 공동체 정신은 ‘나 자신이 공동체’임을 알고 나로부터 전체를 발견하는 공부를 강조한다”면서 “나 자신에게 공동체 역량이 키워졌을 때 아상을 녹여 자기 치유 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대사회적 공동체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의 지역 공동체 포교 사업은 크게 환경운동과 지역 문화운동으로 나눠질 수 있다.

한마음선원 · 정토회 사례 발표

불교 기반한 사회 운동 다양

문화회관 통한 강좌 운영도

9~10월 공동 포럼 개최 예정

제주 지원으로부터 시작된 EM 환경운동은 현재 자체적으로 EM 황토비누, 쪽비누, 한방비누, 주방비누, 세탁비누를 꾸준히 생산 · 보급할 정도로 발전했다. 또한 EM 발효액, 원액, 발효기 등은 전국 사찰과 선방, 강원 등에 보급되기도 했다.

‘생활을 떠나서 종교는 없다’고 강조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행된 한마음선원 문화강좌는 지역민들이 불교를 접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강좌 참여자 중 48%가 지역민이고 이중에는 이웃종교 신도도 55%에 달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1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마음선원과 정토회의 사례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강좌도 지역 특성과 현대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개발돼 있다. 현재 한마음선원 문화 강좌는 생활요가, 선법가, 다도, 태극권, 손뜨개 인형 만들기, 영어회화 등 30개에 달한다. 또한 지역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교실도 운영된다.

한마음선원 문화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도연화 씨는 “한마음선원이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에 선원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자연스러운 포교 효과도 가져왔다”면서 “강사 채용을 통한 잠재된 불교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례 발표한 정토회의 유수 스님은 수행을 기초로 한 불교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 세계화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 공동체 포교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사례 발굴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 경 공동 포럼을 계획 중이다.

고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 포교에 대한 유형이 다양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분류가 안돼 있다”면서 “지역 공동체로서 사찰의 역할이나 지역과의 결합 방법 등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라”

불교 등 3대 종교, “거룩한 죽음 앞엔 차별 없다” 호소

“순직 인정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가, 희생이었는가’로 처리돼야지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故김초원 · 이지혜 선생님은 정규직과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5백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해 3대 종교가 힘을 모았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대 종교 단체는 8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위 도철 스님, 효록 스님을 비롯해 박승렬 목사, 정수용 신부, 故김초원 · 이지혜 선생님 유가족 대표 등 참석했다.

3대 종교는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순 없다. 하루 빨리 두 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돼 유가족과 선생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이 극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3대 종교는 “두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참된 인솔자였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조인들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 지위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설사 법규정이 애매하더라도 새로운 법을 제정해 순직을 인정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3대종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대 종교 단체는 8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공모

조계종, 28일까지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을 공모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일자 공고를 통해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을 오는 8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승납 20년 이상, 법계 대덕 또는 혜덕 이상의 조계종 승적 스님이어야 한다.

총괄부장은 자성과 쇄신 결사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업무를 맡게 되며, 시민사회활동 경험이 있거나 공공사업부문 기획 능력을 갖춘 인사 등을 우대한다.

이 같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공모는 ‘종단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지난 7월 29일 열린 제5차 대중공사에서 교역직종무원 공모제 실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수행이력서 등의 서류는 종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0일부터 28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산지관광특구제, 설악산 망친다”

법응 스님, 10일 기자회견… “케이블카 등 난개발”

설악산 등 무분별 개발 우려

생태계 고려 않는 ‘졸속 행정’

“보전 목표 세우고 개발해야”

농성장 등 반대 운동 진행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 제도는 ‘졸속 행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및 산지에 대한 무분별 개발을 중단하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이하 불교사회연구소)는 8월 10일 ‘설악산 등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응 스님은 이날 자리서 정부의 설악산 개발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불교계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요청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응 스님은 “이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법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초지법 등을 기속하고 합법성을 가장해 한반도 자연생태계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까지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가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 · 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대청봉 일대 황폐화와 오염이 자명하다”며 “산 정상부 숙박 · 휴게시설을 위한 도로 건설, 전력수송 수단 설치 및 온갖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은 산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응 스님은 산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립공원만큼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림생태계 난개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다. 스님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및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집단 서식지일 뿐 아니라 국내서 매우 희귀한 고산 식생대를 보이는 곳”이라며 “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가치를 이해한 후 미래세대 또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응 스님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전통사찰지역 개발로 인한 불교 세속화도 우려했다. 법응 스님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은 정치권 · 지자체 · 대기업 주도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전통사찰지역 개발에 급발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교 세속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불교계가 누구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활동이 미비한 불교환경연대가 조직정비를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법응 스님은 “향후 정부 관계부처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단체 연대활동을 통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농성장을 설치하고 적극적 반대 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울산 가천리 사지 원형 보존해야”

조계종 8월 11일 기자회견

고속도로 공사구간서 발견

공사 강행… 보전 정비 필요

조계종이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천리사지 유적의 보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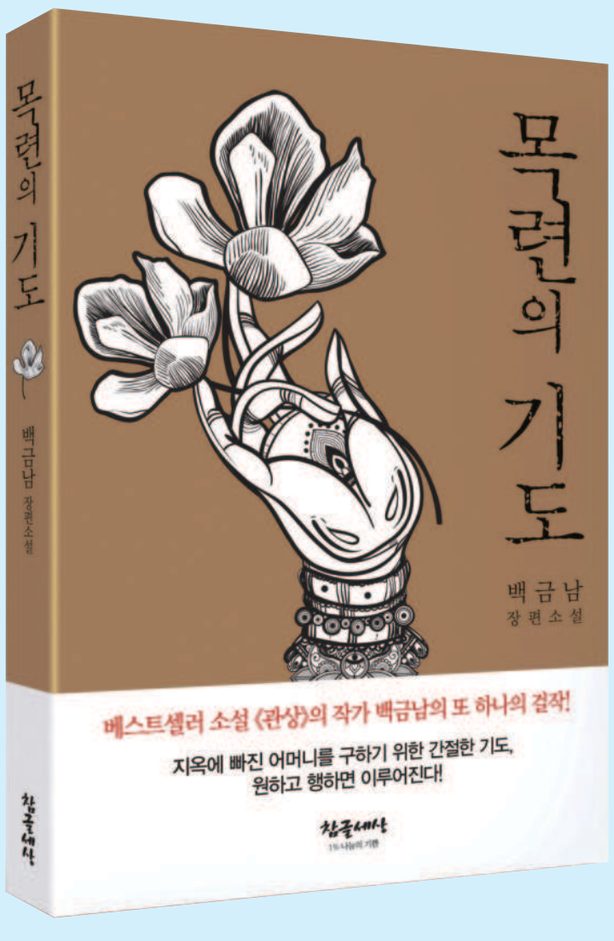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 선로 변경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및 정밀발굴조사와 보전정비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6공구에 위치한 가천리사지는 울산지역 최대 폐사지(1만 4000㎡)로 양산 통도사와 비슷한 규모의 가람규모를 지니고 있다. 2013년부터 울산문화재연구원이 도로공사 용역을 맡아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도 금동불상이 출토되는 등 보존평가에서 기준 평점을 훌쩍 넘은 94점을 기록했다.

혜일 스님은 “가천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유물이 확인됐다.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석탑지 등의 사찰 주요시설과 부속 시설이 확인될 만큼 중요한 절터로 구체적인 사료는 없지만 구전으로는 통도사에 버금가는 사찰로 전해온다”고 말했다.

혜일 스님은 “보존평가에서도 함께 발견된 봉상사지의 기준점 88점에 비해 훨씬 중요성이 높은 94점을 기록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모든 조치를 동원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일 주 문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

수불 범어사 주지 스님은 10월 4~25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양산종합운동장 및 양산 일원서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 예 · 결선을 실시한다.



제35회 경전학교

원학 봉은사 주지 스님은 9월 11일~11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서 제35회 경전학교 '주지 스님의 치문경훈'을 진행한다.



3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지홍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3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을 개강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호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9월 5일 고운사 문화템플관 1층 강당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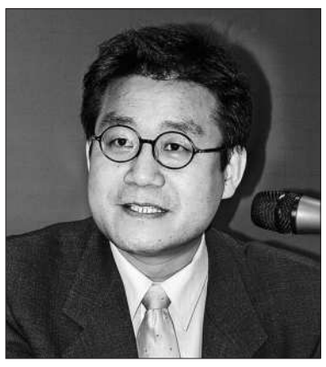


'엄마와 함께 배우는 사찰음식' 교육

자연 봉녕사 주지 스님은 8월 30일 오후 2시 봉녕사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서 '엄마와 함께 배우는 사찰음식'을 진행한다.

"한국불교학 세계화에 큰 기여할 터"

9월 첫 세미나로 본격활동 나서는 세계불교학연구소 고영섭 소장



세계 4개 지역 구분해 연구
9월 12일 첫 세미나 개최예정
"세계불교학자 조명도 실시"

"불교학 연구는 이제 세계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 동아시아, 인도 · 남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 각국의 불교를 면밀히 살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가 9월 12일 첫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세계불교학연구소는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를 통해 한국 인문학으로서 불교학 활성화를 위해 창립됐다.

연구소를 개소한 고영섭 소장(동국대 교수 · 사진)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불교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한다"며 "이런 연구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세계인의 정신문화 고양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불교학연구소는 3월 15일 고영섭 소장이 불교대학 내에 문을 연 이후 5월 4일 슬로베니아 국립 류블라나대 한국학과, 5월 6일 루마니아 국립 소피아대 한국학과, 오스트리아 국립 비엔나대 한국학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반작업을 다져왔다. 이후 5월 21일 동국대로부터 신설 허가를 받고 초대 소장으로 고영섭 소장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영섭 소장은 "향후 돈황 프로젝트를 학술연구재단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이어 "세계불교학의 현황을 살피는 첫 세미나에 이어 내년 3월 초에는 2차 세미나로 세계의 불교학자를 조명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다"며 "한국 · 동아시아, 인도 · 남아시아, 유럽, 미주의 4개 지역에서 각 2명씩 근현대 대표학자를 선정해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명 대상 학자 중에는 이능화 선생을 비롯해 일본 기무라 다이케, 중국 양인상 등이 포함된다.

고 소장은 "논문집을 묶어 총서로도 발간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9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리는 첫 학술대회는 세계의 유수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 소장학자들의 발표의 장으로 마련된다. 발표는 4개 파트로 불교학 연구동향이 소개된다. '한국 · 동아시아' 분야는 배경아 일본 류코쿠대 박사가 맡으며 권서용 부산대 박사가 논평한다. '인도 동남아시아'는 김한상 스리랑카 켈라니야대 박사가 발표를 하며 김서리 인도 푸나대 박사가 논평을 맡는다. '유럽'은 이민성 독일 보쿰대 박사의 발표와 박보람 동국대 박사의 논평이, '미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정수학대학 박사의 발표와 이수미 UCLA 박사의 논평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日잼버리서 최초 '한국불교관' 선뵈



4년마다 개최되는 스카우트 야영대회 세계잼버리가 7월 28일~8월 8일 일본 야마구치현서 개최된 가운데, 사상 최초 한국불교관이 운영돼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송묵)은 제23회 세계잼버리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조계종 불교관을 운영했다. 불교관 전면에는 불상과 탱화를 배치해 한국 사찰 대웅전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됐다. 또 아침 예불을 매일 실시해 지구촌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 명상과 참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1회 보리선수 수행법 설명회 개최



보리선수 서울약사선원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보리선수 수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대인의 최고 건강비법 움직이는 명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보리선수 창시자 진푸티상사의 직계제자 각성 스님이 강연에 나섰다.

노덕현 기자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조계사는 8월 9일 대웅전에서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마하보디사는 조계사 부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쉼터로 경기도 양주에 있다.

이날 기념 법회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싸라 스님, 안성 법계사 주지 도윤 스님, 스리랑카 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은해사, 육군3사관학교에 중악장학금 전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8월 12일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금용백)에 우수생도 30명에게 '중악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수미정사, 교육원에 승가교육진흥기금 전달



구례 수미정사(주지 석인)가 8월 10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에 승가교육진흥기금 500백 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수미정사 주지 석인 스님, 수미정사 임채선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제24회 행원문화상 보운 · 희상 스님 선정

오는 9월 16일 시상식… 상금 500만원 수여



보운 스님



희상 스님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지난 7월 15일 제24회 행원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술상에 중앙승가대 교수 보운 스님, 예술상으로 유연선원 주지 희상 스님을 선정해 이사회 추인을 거쳐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학술상 수상자 보운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불교문화 석사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원전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경불사에 매진해 왔다.

〈근본설일체유부필추비나야〉 20권을 필두로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10권을 번역했다 현재까지 40여권에 이르는 율장에 대한 역경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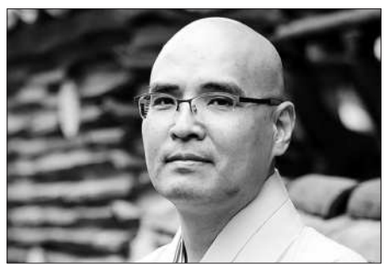
예술상 수상자 선정된 희상 스님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해 독일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 동안 회화, 설치작업등을 해온 스님은 한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다.

한편, 학술상 수상자와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각각 수여되며 올해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9월 16일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학다식한 인재 양성 풍토 세워야"

국내 최초 4개 박사학위 취득한 자현 스님



8월 19일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4개 취득한 이가 있어 화제다. 바로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자현 스님은 8년동안 성균관대 동양철학 비교철학, 동국대 미술사학 불교건축, 고려대 불교철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동국대 역사교육학 한국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스님은 "현재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교인들 앞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만, 대중들 앞에서 현대적인 언어로 불교사상을 말하는 이가 적은 것"이라며 "전문지식만을 갖춘 협사(俠士)가 아닌 무공교인이나 타종교인 앞에서도 불교를 폭넓게 말할 수 있는 박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교수아사리이자 동국대 강의교수로 스님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자현 스님은 끝으로 "다른 이들을 불자로 인도하는 것은 불교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며 "융합 학문 등 과거 불교를 바탕으로 현대가 요구하는 불교학으로 연구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님의 향기처럼…

염천의 더운 바람이 차라리 가을을 기다리는 양 다가오는 계절에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동명세계선센터에서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선으로 힐링하며,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선수행 학교 4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스님의 직접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 일 시 : 2015년 9월 2일부터 4개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일정 변경할 수 있음
- 지도 및 강의 : 수진스님(범어사 율원 율주 · 세계선센터 선원장)
- 대 상 :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장 소 :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
- 수 학 료 : 4개월(10만원) ※개근상(수진스님 친필 한폭)
- 접 수 : 전화 051-629-3582 전송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해제법회

■ 해제식 일정 및 장소

일 시 : 불기 2559(2015)년 8월 24일(월)
장 소 : 홍법사
법 문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

구 분		시 간
수행별 모둠	참선	오후 2시 ~ 3시 20분
	사경,독경	
	다라니	
	기도(절,정근)	
해 제 법 회		오후 3시 30분

◇ 문의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을 회향하신 분들에게 안거증을 발급하오니 동참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815연석회의, 광복70년 통일기원 행사 '다채'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7월 15일 발족한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도라산역 평화공원을 찾아 평화통일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1일에는 배우 권해효씨를 초청해 815기념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광복70주년 8 · 15준비불교단체연석회의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8월 8일 도라산행 평화통일열차를 타고 'DMZ-train타고 통일을 외쳐요!'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통일서원을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매달았다.

도라산행 열차타고 통일로 '더 가까이'

815연석회의, 8월 8일 도라산 평화공원서 통일기원 법회

광복 70년의 다른 말은 '분단 70년'이다. 광복의 기쁨 안에는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살아야했던 슬픈 70년의 역사가 서려있다. 이에 불교계 8개 단체가 다가오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북녘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시간을 가졌다.

광복70주년 8 · 15준비불교단체연석회의(이하 815연석회의)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8월 8일 도라산행 평화통일열차를 타고 'DMZ-train타고 통일을 외쳐요!'를 개최했다. 815연석회의는 이날 도라산 평화공원서 평화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 후 평화의 리본달기, 평화통일강연 등 진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평화통일법문을 통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평화통일소망이 가슴 속에 더욱 절실히 새겨지는 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훗날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과 바다를 이루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 회원을 비롯한 재가 불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해 분단의 아픔을 고이 간직한 도라산 평화공원은 민간인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지역인지라 참가자들의 얼굴은 설렘과 긴장으로 상기돼 있었다.

특히나 65년 전 1.4후퇴(초기 한국 전쟁 1950년 12월말~1월초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으로 국제 연합군의 주력이 서울에서 물러나고 공산 진영이 서울을 재점령한 사

민추본, 여성개발원 등 1백여 명 참가
참석자 중 이산가족 고향생각 뭉클
평화의 리본달기, 통일강연 등 진행
"통일의식 일깨우는 자리되길" 강조

건) 때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을 떠나 남녘으로 내려온 김인철(남 · 66)씨의 마음은 더욱 애달팠다. 민추본 2기 불교지도자과정을 수료한 김인철씨는 "버스 타고 도라산 전망대를 다녀온 적은 있으나 통일열차를 타고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에 이르니 마치 고향에 다다른 기분"이라며 "평양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니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진다. 평생을 눈물로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다"고 애잔한 심정을 전했다.



1백여 명 참석자들이 최북단 도라산역 앞서 통일기원 화이팅을 외쳤다.



통일법회 봉행 후 만세삼창하는 모습

기원법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각자 통일서원을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매달며 남북평화를 염원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통일을 빨리 이룹시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등 절실한 마음이 담긴 문구들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6차 108인여성 윤정선(여 · 61)씨는 리본 위에 '평화통일, 아버님 친척들을 어서 빨리 만나 뵙기를'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윤정선씨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 온 후 남아있는 가족들 생사를 확인하기 더 어려웠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단 희망이 사그라지지만 그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놓지 않겠다. 불교계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나서 남북교류를 다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이날 참석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여느 때 같았으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곳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북한을 코앞에 두고 더 다가가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이 계기로 점차 통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금 통일의식을 일깨울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평화통일강연 '도라산역의 상징성과 통일의 필요성'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도라산 역은 남북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벽을 허물어가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울부짖던 청년들 잊지 못해"

8월 11일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815연석회의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1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광복70주년 8.15특집 초청강연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도 개최했다.



강연 중인 권해효씨 모습

배우 권해효씨는 재일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 및 겨레하나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서 10년 이상 홍보대사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방북 경험을 통한 남북관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제 실물을 보면 놀랍니다. 키가 작아서 그리고 너무 잘생겨서"라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강연을 시작한 권해효씨는 이내 통일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고 평화통일을 요구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갓 시작한 연기 공부가 그저 재밌었을 뿐 민주화, 통일 등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문득 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렷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회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해효씨가 통일 문제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사회 문제 관련 활동을 해오던 권해효씨 마음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02년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에 참가한 때였다. 권해효씨는 "3박 4일 동안 4백여 명 남북청년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통일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었다. 마지막 날 서로에게 인사하는 남북청년들 얼굴에도 슬픔 대신 서로 다시 만날 거란 기대와 기쁨이 만연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들은 바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이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땅에서 온 재일조선학교청년들이 떠나는 버스에 매달려 울부짖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때부터 '통일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가'라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권해효씨는 "아직도 재일동포 60만 명 중 3만 5천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선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편, 조선학교도 학교로서 어떤 법적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일조선학교를 지은 우리 동포들은 '내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글자를 알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이 가진 통일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몽당연필 · 겨레하나 등 단체 활동
02년 조선학교학생 만나 통일 관심
"佛, 흔들림 없는 인도 지원 해주길"

이에 권해효씨는 재일조선학교 학생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를 맡아 이들의 통일염원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밖에도 권해효씨는 남북교류협력 지원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홍보대사를 10년 이상 맡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2005년 5월 평양 대동강 유역에 2층짜리 빵공장을 건설해 하루 1만여개 빵을 만들어 대동강 유역 영 · 유아들 식사를 제공했으나 대북관계가 단절된 이후 이마저도 중단됐다.

권해효씨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와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하루속히 정세가 회복돼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권해효씨는 통일을 위한 불교계 역할 관련 "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역사의 변란기 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이불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강연 동안 그곳 어디에도 '배우' 권해효는 없었다. 권해효씨는 북한청년들과 추억, 조선학교 학생들에서 느낀 그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인사말씀

(사)국제불교승가회 창시자겸 태화사
창건회주 법왕존자 동암스님 동상제막식



울산 태화사 창건 회주 이시고 불무도의 선구자, (사)국제불교 승가회 창시자이신 법왕존자 동암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스리랑카와의 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하신 업적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야하라마 아난다 테로 스님의 사원에 동상을 세우는 큰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 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국제불교승가회



동암스님 행장

- 병술년 경남 울산 출생
- 1967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 일붕 대종사 은사로 출가
- 대한불교 조계종 범행 큰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수지
- 일붕 선원 지도법사 역임 – 일붕문도회 부회장 역임
- 서울 일붕 호국선원 주지 역임 – 태화사 주지겸 창건회주
- 국제자원 봉사 우호협회 한국본부회장 un-ngo 등록
- 삼장법사 대승정 승왕 존자 철학박사 8개 박사
- 불무도 선구자 – 불교 교리 등 많은 저서 집필
- 2003년 9월 9일 사단법인 등록 창시
- 2006년 7월 5일 울산 태화사에서 열반드심 (세수 61 법랍 39)

- 장 소 :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하야라마 사원
- 일 시 : 2015년 7월 28일
- 참 석 자 : (사)국제불교 승가회 회장 최정구, 이사장 송애자, 부이사장 무상스님, 이사 대명스님, 사무총장 조상환, 송원스님, 학성스님, 수월스님, 선주스님, 송윤스님, 송광스님, 송인스님, 성초스님, 기국진, 이상효, 김춘화, 김인성, 박기문, 김규태, 황우화, 정영순, 서원상, 김복순, 주숙자, 류희숙, 김기훈, 유정은, 정효진, 스리랑카 라자팍스 前대통령, 각 정계 인사, 각 종단 큰스님과 사부대중 등

“우리 안의 불성 깨닫는 과정 배워갑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기 프로그램 진행 모습. 스님이 앞에서 목탁을 치고 앞서가면 안대로 눈을 가린 참가자들은 그 소리를 따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간다.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발우 공양.



회향식 후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한마음선원 풀브라이트 ETA 참가자 대상 템플스테이

8월 8일~9일 광명선원서
미국 청년 52명 참가해
발우공양 참선 등 체험
“불교로 韓문화 이해한 자리”

“평소에 잘 모르는 문화와 종교를 만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발우공양이었어요. 음식 맛도 정말 좋았고 발우공양을 접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킹슬리

“자신의 근본이 내면에 있다고 했는데 그 깊은 뜻을 잘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근본을 만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선을 배워보고 싶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어요. 눈을 가리고 목탁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친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니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고, 함께 있는 친구들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미셸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에서는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대의 미국국적 청년들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은 8월 8~9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에 선발된 미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Feeding our inner light(내면의 빛을 밝히기)’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 스님들이 영어로 진행을 맡고 안양본원 문화강좌의 사찰요리 담당 보살님들과 청년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했다.

특히 청고 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해 수행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불교는 뭔가를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불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게 됩니다. 수행이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즐거운 게임도 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프로그램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에는 명상, 촛불재, 스님들과의 차담, 마음의 눈으로 보기, 발우공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접한 한국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에 모두들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리베카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한국 사찰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예불이나 참선도 처음 접해 봤다. 촛불재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 염불을 들으면서 내면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산하 기관인 풀브라이트가 운영하는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선발된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이다. 1992년 8명을 시작으로 그 인원이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해마다 7 · 8월 6주 동안 진행되는 풀브라이트 ETA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참가자들이 전국의 초 · 중 · 고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8월 8~9일에 충북 음성군 광명선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작년 8월에 처음으로 광명선원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겨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문화 ‘칠월칠석’ 젊게 즐기자!

마인드디자인 · 대성사 등 칠석 맞아 ‘인연맺기’ 행사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칠월칠석(七月七夕), 불교에서는 이날을 불가 고유 명절로 하여 치성광여래부처님과 일광월광보살에게 자손번영, 가족화합, 무병장수 등 칠석기도를 지내왔다. 이러한 전통이 후대로 전해지며 견우직녀설화를 토대로 천생배필인연기도를 올리는 등 현대인에 맞춰 재해석돼 왔다.

이에 불가에서도 칠월칠석날에 맞춰 칠석데이콘서트, 선남선녀인연맺기 이벤트 등 개최해 자연스럽게 신세대를 위한 포교의 장을 열고 있다.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시행을 맡았던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 마인드디자인(대표 김민지)는 ‘칠석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2회째 맞는 칠석데이는 칠월칠석 세시풍속 모티브로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녹여내 눈길을 끈다.

행사 당일인 8월 21일 오후 9시 홍대 YES24 무브홀에서는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의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파티장 중앙에 얼음석가탑을 설치, 남녀가 함께 탑돌이하며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이색적이다. 남녀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곳곳에 포진한 러브메신저 ‘까치와 까마귀’를 활용해 운명의 짝을 찾을 수 있다. 입장시 제공되는 부채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까치와 까마귀를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연만 진행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칠석데이 ‘사랑가’ 컴필레이션 앨범, 한복스타일링북 발간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된다.

‘사랑가’ 컴필레이션 앨범에는 실력파 가수도 대거 참여했다. 윈디시티, 아소토유니온 김반장, 클래지콰이 호란, 술탄오브더디스코, 킹스턴 루디스카, 신세하, 국악인 고준석 등이 ‘춘향가’의 한 대목 ‘사랑가’를 재해석했다. 음원은 8월 29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가 진행될 무브홀 근처 카페 ‘달리’에서는 한복스타일링북 발간기념 프로모션을 열고, 한복 및 액세서리 대여 등 전통문화상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02)2231-2011

충북 옥천 대성사에는 ‘중매달인’이라 불리는 스님이 있다. 혜철 스님은 사찰서 11년 간 진행해온 선남선녀인연맺기 프로그램으로 누적 2천 20쌍을 결혼시켜 공중파 아침프로에도 출연했을 만큼 유명하다.

콘서트서 탑돌이하며 친밀도UP
한복스타일링북, 앨범발매 등 ‘다양’
11년 간 2천여 쌍 배출한 사찰도
비불자인 사찰서 만나 불자 되기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대성사에서 진행되는 인연맺기 프로그램은 올해 칠월칠석을 맞아 8월 27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가 여성들을 위한 귀걸이 선물은 물론 법회 후 이어지는 데이트를 위한 비용도 제공한다.

혜철 스님은 “참가자 중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남녀가 함께 법회를 봉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며 “타종교인이 불자를 만나 불교에 관심 갖게 되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 포교의 일환으로써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의 (043)732-556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시행을 맡았던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 마인드디자인은 올해로 2회째 ‘칠석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2013년 ‘칠석데이 콘서트’ 모습.

티벳 승려 방한 법회 ‘대잔치’

체왕 · 링 리뽄체 · 켄체 린포체 스님 등
8월 말~9월 방한 법회… 각각 서울 지역서 봉행

한국 불자들을 위한 티베트 불교 스님들의 법석이 잇따라 찾아와 눈길을 끈다.

서울 상도선원(주지 미산)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자비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자비심에서 보리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자비산림에는 게셰 체왕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체왕 스님은 달라이라마 요청으로 인도 지역에 티베트불교 전통을 이어갈 스님들 교육기관 낄사원의 강원 시스템을 마련한 비구스님이다. 9세에 출가해 42세에 티베트 4대 종파 중 달라이라마가 속한 최대종파 겔룩파에서 최고 학위인 하람파 게셰를 취득했다. 인도 다람살라 지역 돌마링사원에 불교학교를 세워 스님들에게 경전을 가르쳤다.

체왕 스님이 상도선원에서 가르칠 수행은 티베트불교 고유의 마음훈련법인 로종으로 법회에서는 한국어 번역본이 제공된다. 상도선원은 자비산림 법회 참가자를 오는 8월 28일까지 모집하며 인원은 80명 선착순이다. 문의 (02)815-3391

또한 매년 달라이라마 존자의 장수기원법회를 개최해 온 티벳하우스코리아는 8월 30일 일산 여래사서 링 린뽀체 스님을 초청해 ‘달라이라마 80회 장수기원법회’를 봉행한다. 티벳하우스코리아는 “링 린뽀체는 현 달라이라마 근본 스승이자 정신적 조언자였던 6대 링 린뽀체 환생자로, 달라이라마 파견으로 한국 장수기원법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은 △8월 28일 오전 11시 링 린뽀체 백중회향 법회(양재동 구룡사) △8월 29일 오후 1시 30분 람림 로종 및 금강살타 관정법회(동국대 중강당), 오전 11시 링 린뽀체 여래사 일요법회 및 달라이라마 80세 기념 장수기원법회(일산 여래사)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보리심 수계의식과 무량수불 장수 관정법회(불광동 랍숨섀둡링) 등이다.

접수는 티벳하우스코리아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문자 접수 가능하다. 문의 (070)7762-7262 문자접수 (010)9588-5182

티베트 불교 스승이자 영화감독 종사르 켄체 린포체 스님도 국제단체 싯다르타즈 인텐트코리아(대표 허정훈) 초청으로 9월 3~4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 스님은 양일 간 매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반야심경으로 본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법회를 열 예정이다. 동참금은 6만원으로 접수는 싯타르타즈인텐트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i_korea2015@hanmail.net)로 신청 가능 하다. 문의 (010)9588-5182

신성민 · 박아름 기자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천도재, 49재 의식 처음부터 (시련, 대령, 관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갈고 닦은 실력 재능기부로 나눔 봉사

마천사회복지관, 7월 22일 어르신 '꽃가람 봉사단 창단'

8월 12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지하강당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한국춤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삼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동작 한 동작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바로 지난달 창립한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시형) 꽃가람 봉사단의 단원들이다.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자 설립된 꽃가람 봉사단은 노래, 댄스스포츠, 하모니카, 한국춤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며 50명이 회원으로 등록할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홍 복지사는 "복지관의 늘푸른대학이 10년 정도 진행돼 왔고 이곳에서 재능을 쌓은 어르신들이 지역 곳곳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들을 한번에 묶어 복지관에서 좀더 체계적인 봉사를 기획해보고자 지난 7월 22일 발대식을 갖고 꽃가람 봉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창단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스무 명 정도만 모집하려고 했으나 반응이 너무 좋아 50명까지 회원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귀띔한다.

꽃가람 봉사단은 창단을 기념해 8월 4일 오륜너싱홈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첫 공연 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노래, 댄스 스포츠, 섹소폰 연주 등이 진행돼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한바탕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노래교실 팀으로 구성된 노래 봉사단은 이날 즐거운 인생, 개나리 처녀, 섬마을 선생님 등을 노래 공연으로 펼치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복자 (노래 봉사단장 · 65) 어르신은 "봉사는 몸으로만 하는 줄 알았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터라 봉사를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재능기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동참하게 되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보며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 자리에 갈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 열심히 노래를 하게 되었고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 드리게 되었다. 그저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며 봉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한다. 노래 봉사팀은 연습실의 노래방 기기까지 바꾸어 연습할 정도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한국춤 · 노래 · 댄스 · 하모니카 등
50여 어르신 회원으로 봉사단 구성
요양원 등 지역 사회에 재능기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정기봉사 펼쳐

연습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봉사단원들은 주중에 매일 나와 연습을 할만큼 적극적이다.

김동자 (한국춤 봉사단장 · 66) 어르신은 10년 동안 배운 한국무용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전한다. 김 어르신은 "평소 푸른청년회, 흥국예술단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단이 생기니 더없이 기쁘다. 아직 시작 단계라 미비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체계를 잘 잡아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내가 배운 많은 것들을 재능기부로 보여주고 싶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국춤을 지도하고 있는 조간난 강사는 "지역사회에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어 너무 보람되다"고 전했다.

앞으로 꽃가람 봉사단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륜너싱홈에서 정기 봉사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보육원, 호스피스 병동 등 사회 곳곳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찾아다니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이시형 관장은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내 문화 소외 계층에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세대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꽃가람 봉사단 어르신들이 8월 12일 강당에서 조간난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국춤을 연습하고 있다.



8월 4일 오륜너싱홈요양원서 공연 후 기념 촬영.

역삼수련관, 문화예술동아리 신촌서 공연

8월 9일 서울시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가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의 문화예술동아리가 8월 9일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된 서울시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널뛰기' 에 참가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적 재능과 끼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는 아베스, 홍련, 주상폐하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낭만 고양이, 말하는 대로, 컴백홈 등을 공연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은 주 2~3회 정도의 연습을 하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공연에도 참가하고 있다.

아베스 동아리 리더 윤보연 학생(중대부고2)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고, 홍련 동아리 리더 김두한 학생(경기고2)은 "앞으로 더욱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관장 보련 스님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개발하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역삼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동아리 청소년들이 어울림마당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LA스페셜올림픽서 금메달 '쾌거'

배드민턴 정진호 · 김혜정 선수 5개 메달 획득



2015 LA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성북장애인복지관 선수단. 왼쪽부터 정진호 선수, 김병수 코치, 김혜정 선수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 배드민턴 선수단이 '2015 LA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에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화제다.

지난 8월 2일 막을 내린 2015 LA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세계적 스포츠축제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성북장애인복지관 선수단 3명(남 정진호, 여 김혜정, 김병수 코치)은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해 남녀 단식 은메달, 여자복식 금메달,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3년부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중인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배드민턴 엘리트반을 운영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한국스페셜올림픽에서는 배드민턴 전 종목에서 총 8개의 메달(금 4, 은 1, 동 3)을 획득하며 이번 LA스페셜올림픽 메달획득의 초석을 다진바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선수단은 배드민턴 엘리트반 수업시간을 통해 꾸준히 훈련했으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여름동안 2차례의 전지훈련과 합동훈련을 하며 맹훈련을 이어왔다.

김병수 코치는 "지난 3년 동안 반복적인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경기능력과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 대회에서 더욱 좋은 실력을 발휘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무더위 날리는 '어르신 문화잔치'

황송노인복지관, 8월 12일 어르신 680명 동참… 삼계탕도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8월 12일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어르신문화잔치' (이하 어르신 문화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과 지역주민 680여 명이 참여해 무료급식으로 제공되는 장각삼계탕을 을 나누고 즐거운 공연도 관람하며 무더위를 식혔다. 최근 무더위로 외출을 자주 하지 못했던 박순복 어르신은 "여름철 무더위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랜만에 복지관에 와서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밥 먹으니 입맛이 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신나는 공연을 관람하니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문화행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무더위도 식히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개방 운영을 계획하는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2일 어르신문화잔치를 열고 삼계탕을 대접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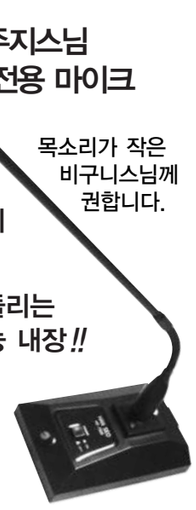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2015년 동산불교대학 47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www.dongsanbud.net

■ 모집학과
▶ 불교학과 [9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CD 배송]

과목 : 1. 화엄경 2. 아미타경과 정토 3. 대승불교와 밀교 4. 초기불교개론 5. 불교문화(미술)와 포교 6. 선불교 7. 근본불교 8. 반야심경과 반야사상 9. 유식불교 10. 인도불교 11. 중국 · 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 법산스님(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 선·명상학과(람림명상) [9월 17일(목)] ▶ 다도학과 [9월 8일(화)]
▶ 불교미술학과 [9월 10일(목)] ▶ 불교한글의식반 범패의식반 [9월 5일(토)]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8월 1일부터
■ 사무처 문의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처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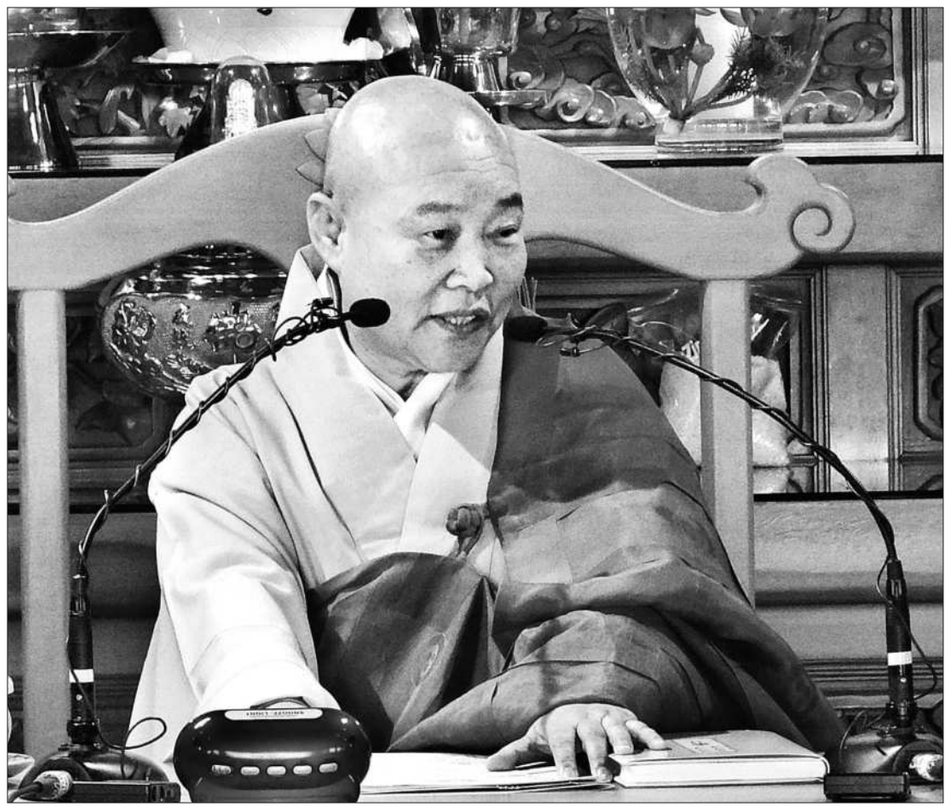
“일체 모든 것 자신의 마음서 투영돼 만들어져”

정각원 토요법회

해주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법문(法門)에서 ‘문(門, 문)’ 자를 쓰는 이유는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의 세계, 즉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의미다. 인간계에서는 천상계와 달리 희 · 노 · 애 · 락을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동국대 정각원장 해주 스님은 7월 4일 정각원 토요법회서 ‘생활법문’을 주제로 설법했다. 신행생활, 재가생활, 출가생활 등 여러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속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주시한 내용이다. 해주 스님은 “십선업(十善業)은 십악업(十惡業)을 행하지 않을 때 이룰 수 있지만 불살생(不殺生)에서 더 나아가 방생 등 적극적인 선업을 이룰 때 화엄보살이 될 수 있다”고 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해주 스님은 … 운문사로 출가 동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교학연구회 회장과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및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수미정사 주지, 학교법인 승가학원 법인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 정각원장을 역임 중이다.

마음참회가 진(眞) 참회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동안 제일 복이 많은 세계 두 곳을 말하라고 한다면 인간계와 천상계 일 것입니다. 인간계보다 복이 더 많은 세계는 천상세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인천복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래십호(如來十號, 부처의 칭호가 열 가지라는 말)를 얘기하실 때 천인사(天人師)와 불세존(佛世尊)이라는 칭호도 십호 중에 포함하셨습니다.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육도(六道)의 모든 스승일수도 있지만 천상계와 인간계를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천상복락이라 말하지만 천상복락이 인간복락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으로 향해 갈수 있는 곳은 인간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괴로우며, 때로는 슬프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 적당히 희망을 가져 큰 꿈을 가지도 합니다. 하지만 천상계는 복을 누리느라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계를 호구 발심하는 곳이라 일컫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큰 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천상계는 복진타락(福盡墮落, 복이 다하면 굴러 떨어진다는 의미)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생활법문은 그러한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일까요? 그렇다면 ‘법문’이라는 말은 빠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왜 문(門)자가 들었냐면 열반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門)자가 붙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곧 부처님처럼 되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천복락만 누리는 말씀으로는 그 길로 인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가생활, 신행생활 뿐만 아니라 출가생활, 수행생활도 다 ‘생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법문이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화엄경〉 말씀 중 이구지(離垢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이구지(離垢地)는 ‘모든 번뇌의 때를 다 여인자리’를 일컫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 24시간 출가생활, 재가생활, 세속생활, 학생생활, 사회생활, 신행생활 등 여러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근(六根, 눈 · 귀 · 코 · 혀 · 몸의 다섯 감각기관과 이를 통솔하는 의근)이 육경(六境, 육근에 대응하는 인식대상)을 상대해 육식(六識, 여섯 가지 마음 작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묶어서 업이라고 합니다. 업에는 가보가 반드시 있어서 업보(業報)가 있습니다. 업보의 소멸은 참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발생하는 업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해본다면 〈천수경〉에서는 십악참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악이라 했으니 반대로 십선업도 있겠습니다. 선업과 악업을 열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추려 본다면 신삼구사의삼(身三口四意三) 신업(身業)에 세 가지, 구업(口業)에 네 가지, 의업(意業)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당연히 의업입니다. 신업과 구업도 이미 있지만 마음이 함께 했을 때 가보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정신세계나 도달한 마음자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열 가지가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천수경〉 이(理)참게 내용 중에 죄무자성종심기 심약멸시죄역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즉명위진참회(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罪亡心滅兩俱空 是卽名謂眞懺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회를 한다고 해도 마음 참회가 아니면 진참회도 아닌 것이라 합니다.

이구지가 수행에 있어서 도달되는 위치로 보면 사실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천수경〉 ‘십업’에 대한 말씀이 〈화엄경〉 ‘십지’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화엄경 전체의 말씀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화엄경은 깊은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일 하라는 사탕발린 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두 말씀이 다 같은 의미였습니다.

불살생 그 자체로 화엄

화엄경의 전체 수행을 얘기하자면 십바라밀로 얘기 합니다. 그중에 지계바라밀이 열 가지 선업을 닦으라는 십선업(十善業) 내용입니다. 열 가지 선업은 열 가지 악업을 안 하면 열 가지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적극적으로 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을 안 하는 대신 방생하고 도둑질을 안 하는 대신 보시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행생활 하고 수행생활 하는 보살이 이 자리에 머물면 이런 분을 ‘화엄보살’이라 합니다. 심성, 즉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다양하게 이야기 합니다. 편하게 ‘마음’이라는 한 단어로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사실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묶으면 ‘업’
업보의 소멸은 참회가 있어야 가능
살생 많이하면 ‘삼악도’에 떨어져
마음 참회할 때가 비로소 ‘진짜 참회’
적극적 선행펼치면 ‘화엄보살’도 이뤄

그래서 성품자체가 살생과 거리가 멀어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하는 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모습을 나타낼까요? 우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에서는 첫걸음이 마지막 걸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즉 처음 마음만 일으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도리가 화엄입니다. 이는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살생 또한 그 자체로 화엄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기대하다가 작은 것을 얻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작은 것은 큰 것과 결코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 속 장기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불살생 실천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살생도구 자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엌 칼 등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살생을 위한 도구로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돼 왕이 불법(佛法)을 믿으라 할 때 백제는 계율을 통해 불법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시행령 중 하나가 살생도구를 다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생도구는 다 농기구로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들어나지 않더라도 마음 속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풀어지지 않는 한 때문에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병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화엄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투영되고 만들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살생을 많이 하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고 살생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게 됩니다.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던데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 환생을 한다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인구수도 보존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았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으며 지금까지 늘어난 인구는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하는 등의 생각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천상계로 더 많이 갔나, 아니면 축생계에 있다가 전부 사람으로 환생했나 하는 등의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윤회(輪回)하며 가보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탈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심성으로 어떤 신행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음 낸 바에 따라 성품 결정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화엄경〉80권 가운데 제6권으로 80권 전체 39품 가운데 2번째 품) 3게송을 할 것인데 이 말씀은 전부 〈화엄경〉 말씀입니다. 찬불게송 또한 〈화엄경〉 말씀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고 받들어야할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여래현상품 게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인데 승엄 보살이 했습니다.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보현일체중생전(普賢一切衆生前)
수연부감미부주(隨緣赴感靡不周)
이항처차보리좌(以恒處此菩提座)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서 온 법계에 가득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앞에 있으니 인연 따라 감동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항상 있는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장이다.

화엄의 핵심 사상이 담긴 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중생연에 따른 것으로, 십지에 보살이 신행생활 하는 것도 전부 인연 따라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과(因果)를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를 이야기 합니다.

부처님은 법계에 충만해 늘 뵐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뵙고 어떤 분은 못 뵙습니다. 이것은 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개개의 중생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감(感)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지는 것을 응(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응(感應)이라 합니다. 연 따라 나타난다 하여 중생들의 행위는 연기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화엄에서 이를 연기라 하지 않고 ‘성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래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부처님도 중생연 따라 중생들 앞에 나타는데 이것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여 성기라고 표현합니다. 화엄에서는 모든 존재들과 존재들이 하는 일과 그 일체를 성기와 연기로 봅니다. 〈화엄경〉에도 37번째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 따르면 이를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성품을 바로 보면 이 자리에 바로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보시와 지계, 불살생 등 연기의 과정을 통해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내재해 있지만 부처님처럼 자유자재로 되지 않습니다. 인연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연조차도 화엄에서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성품에 있는 원한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여러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잠깐 사라진 것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승님의 가르침, 일체 모든 불자님들의 인연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8월 중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법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원 법음범패 1년 과정

– 교육과정 –

중급과정(법음, 범패) 1년 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 : 일관스님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법음범패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262-1117(보경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교학 · 미술 · 응용 등 다양한 주제 눈길

불교종립대 가을 석 · 박사 학위 논문 살펴보니

2015년 하반기에도 종립학교에서 많은 불교박사들이 탄생했다. 본지 조사결과 이번 학기에 종립학교에서 불교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10명이었다. 전공분야는 교학, 역사, 미술 등 다양했다.

먼저 이번 박사논문에서는 경허 · 자장 · 용성 스님 등 인물에 대한 사상연구가 주를 이뤘다. 먼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자현 스님은 신라 자장(慈藏) 스님의 전기(傳記) 자료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전기를 써온 찬술자들의 관점과 의식에 대한 탐구다. 스님은 찬술자 정리와 함께 새로 발견된 민지(閔漬)의 개창조사전기(開創祖師傳記)와 관련된 판본 내용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자장 스님의 생애를 입당을 기점으로 '입당 이전' '입당 기간' '귀국 후' 의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스님은 자장 스님의 입당 이전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종교체험인 사상수계를 다루고 입당 후 오대산에서의 문수보살 친견의 연도 등을 다시 정리했다.

동국대 선학과 홍현지 박사의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연구' 는 근현대 선풍을 진작시켜 한국선불교를 중흥한 경허 스님의 비승비속의 삶을 고찰한 논문이다. 홍 박사는 "경허 스님의 주된 선사상인 돈오돈수의 중도불이를 바탕으로 스님은 사회적 회향의 실천 명제를 세웠다"며 "그 것은 자신의 중도실천의 법화로 그 행리를 고스란히 자신의 저술인 경허집에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선학과 철우 스님의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는 김시습의 불교관련 저술인 〈화엄석제〉 〈일승법계도주병서〉 〈연경별찬〉 〈십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 등에 나타난 선사상을 논한 것이다. 스님은 "김시습은 〈일승법계도주병서〉에서 화엄의 '성기' 사상을 제창하고 있으며, 〈연경별찬〉과 〈십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에서는 주로 성구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화엄석제〉에서는 비록 성기사상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선사상을 이끌어내면서 성구의 관점을 개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동국대 등 종립대 불교박사 10명 배출
석사 62명… 불교학 발전 기대

분명하게 '성기' 와 '성구' 의 병중과 '화회' 의 관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화엄선' 을 이끌어낸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선학과의 윤점열 박사의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 는 용성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윤 박사는 〈금강경〉 번역본의 각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용성 스님 번역의 특징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불교 흐름을 연구한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학과 오명지 박사의 '중국 역대 왕조의 사리방안 연구' 는 현재 불교계의 사리신앙에 대한 근원을 탐구한 논문이다. 오 박사는 중국에서 사리신앙이 신이적이고 전륜성왕 사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 대해 연구했다.

동국대 미술학과 김선희 박사의 '돈황 막고굴과 한국 화엄경변상도 비교연구' 의 경우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았던 돈황 막고굴의 29개 굴내 화엄계 불화와 한국 화엄계 불화를 비교 고찰한 논문으로 김 박사는 돈황과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미술의 관계를 고찰했다.

김 박사는 "화엄계 불화는 중국 돈황 막고굴서 태동돼 한반도로 전래됐다. 돈황 화엄경변상도는 지사와 천상에서 설법한 내용을 도상화시켜 하단은 지상설법, 상단은 천상설법을 도상화 했다. 이런 양식적 특징은 통일과 균제미, 호화로운 채색으로 나타나며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의 화엄변상도의 모습에서 이런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대 사회복지불교학과 하영수 박사의 '〈법화경〉의 삼보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는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시도로 하 박사는 근대 이후의 대승불교 연구와 〈법화경〉의 성립사 연구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역사주의적, 문헌분석적인 관점에 경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서, 〈법화경〉의 의미론적 통합성을 중시하여 경전의 사상을 해명했다.

하 박사는 "〈법화경〉의 경우 기존 경전과 달리 불법승 삼보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방편품' 에서 붓다의 지혜, '여래수량품' 에서 붓다의 자비를 표현하는 등 삼보 각각의 본질과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립대학의 불교관련 석사논문은 총 62편에 달했다. 안희복 '사찰의 김장문화 실태조사' , 한세인 '불교무용 콘텐츠화 연구' , 김미정 '명상 기반 경전 치유 프로그램 연구' 등 응용분야가 강세를 나타냈다.

노덕현 기자

2015학년 하반기 불교주제 박사 논문

학교명	이름	논문명
동국대 선학과	윤점열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
	이민경	석도화상의 일획(일화)사상 연구
	철우 스님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신해 스님	청규에 나타난 습의 연구
	홍현지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오명지	중국 역대 왕조의 사리방안 연구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자현 스님	자장(慈藏)의 전기(傳記)자료 연구
금강대 사회복지불교학과	하영수	〈법화경〉의 삼보(三寶)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동국대 미술학과	김선희	돈황 막고굴과 한국 화엄경변상도의 비교연구
	김성훈	초기불교 힌두교계 신중도상의 연구

대한불교진흥원 제13회 대원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2015년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나뉜다.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 이내로 총상금 5000만원이다.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 · 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총상금은 4000만원 이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연내 영문도록 7권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미술품들을 소개한 영문도록 7권이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국문화재 영문도록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책으로 통일신라시대 조각작품을 담은 〈통일신라조각(Sculptures of Unified Silla)〉을 최근 발간했다.

박물관은 〈고려청자〉, 〈조선시대 청화백자〉, 〈조선시대 불화〉,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조선시대 초상화〉, 〈한국 나전칠기〉 등 영문도록 6권도 모두 올해 안에 전자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아마존과 교보문고 등 국내외의 유수 전자책 상거래 시장에 한국문화재 영문도록 전자책을 출시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이 직접 전자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을 발간했다"며,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재 알리기와 한국문화 수요층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성철 참선 프로그램 최초 시도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과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선형)은 공동으로 성철스님의 불교관과 참선 수행관에 입각해 일반인에게 참선을 쉽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참선프로그램' 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참선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강의와 실참교육이 병행된다.

첫 강연으로는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의 '성철스님의 선사상' 이 진행되며 △엄상호 중도육영재단 이사장의 '〈백일법문〉과 중도의 실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성철스님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의 '백일법문' 읽기와 중도 정견 세우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중에는 해인사 백련암과 성철스님 생가인 겁외사를 직접 방문하는 1박2일 참선 수련회도 열린다. 내년에는 〈성철스님 백일법문 특별강좌〉도 추진된다. (02)2198-5101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제9회 선리학술상 공모

9월 14일~10월 1일까지 접수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학 발전과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9회 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분야 지정주제는 선학원과 관련 된 한국근현대불교로서 불교학과 불교사, 응용불교 가운데 주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불교학 분야 박사 수료 이상이며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된다. 지원자는 응모 논문과 함께 연구계획서와 이력서,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 목록에 기입된 연구실적물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우수상 1명에게는 500만원이, 학술상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이 주어지며, 선정자는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후반기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다.

응모원고는 학술상 취지에 맞게 그동안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하며, 중복 지원과 해외발표논문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덕현 기자

"화엄경, 인도 서북지역에서 제작됐다"

석길암 교수, 금강대 화엄경 편집과정 조명



석길암 금강대 교수〈사진〉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8월 12일 금강대 본관에서 개최한 '불교고전어,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제23차 콜로키움에서 화엄경의 형성과 편집과정이 '서인도' 에서 이뤄졌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동안 화엄경은 중앙아시아 호탄(Khotan)을 중심으로 주로 편집이 됐다는 학설이 주류였다.

석 교수는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화엄경이 편집된 불교사회는 불탑신앙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이었으며 대승경전에 대하여 '비불설' 이라는 비난이 행해지던 곳이었다. 대승경전에 비불설 비난이 일어날 만큼 대승경전 출현이 지속적이면서도 아비달마불교의 확실한 우위가 있던 곳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호탄 지역의 경우 굴다삼장의 전언으로 〈육십화엄〉의 초기 유통은 확증될 수 있지만 편집의 증거로 제시하기엔 부족하다"며 "〈보살주처품〉에서 제국주처를 검토하면 이 지리적 시야가 서북인도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또 "〈지분경〉은 물론 〈화엄경〉 편집과정 중 증보된 부분에도 성문연각으로 표현된 부파불교 의식 대승이 적지 않다. 이는 4세기 중반 무렵까지 〈화엄경〉 편집장소가 부파불교가 우세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끝으로 "호탄 지역은 편집이 이뤄지기 보다 이 편집본을 전해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근대 신종교, 사이비로만 볼 수 없다."

한국불교학회 워크샵서 무속 · 신종교와 불교 관계 탐구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8월 7~8일 강화 전등사에서 개최한 하계워크숍에서 '민속신앙과 불교'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표 前 한국불교학회장을 좌장으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불교의 한국 토착화 과정' , 홍태한 전북대 교수의 '한국 무속의 의미 규명을 위한 불교의 가치' ,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구한말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김방룡 교수는 "한국의 신종교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이 내재해있고, 일제 종교정책에 의한 탄압 속에 소위 '유사 혹은 사이비종교' 로 규정되고 낙인 찍힌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민중종교들이 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친일 관계에서 신종교들의 활동과 기존 불교계의 친일반민족 활동을 비교고찰하면 부끄러운 점이 많다. 일제시대 불교계 신종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한국근대불교 외연을 넓히고 근대불교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화순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남도 8월 11일 등재 계획 밝혀…6년 가량 소요 예정

'천불천탑' 으로 유명한 전남 화순 운주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월 11일 전남도는 화순군과 운주사(주지 정행) 석불석탑(석불 101구, 석탑 22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 잠정목록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도 · 화순군은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학술조사와 국외 비교 연구를 거쳐 정식으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 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앞으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7만 군민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조성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와 화순군은 2005년부터 운주사 석불석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 전남도는 운주사 석불석탑이 독특성과 군집성, 조형성 등에서 세계적 가치를 보유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앞으로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천불천탑' 부각 자료 마련
군집성 · 조형성에서 가치 조명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는 화순 운주사의 와불. 운주사의 불상은 1000개에 달한다.

운주사는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천불산에 있는 사찰로, 천불천탑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연화탑과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운주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 목록으로 올린 후 등록 신청서를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세계 유산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된다.

한편, 전남 도내에는 화순 고인돌이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태다.

서남해안 갯벌과 필암서원, 선암사 · 대흥사, 낙안읍성, 신안 · 영광 염전, 강진 청자요지, 해남 공룡 화석지 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록도에서 펼쳐진 자비나눔 봉사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 말복 맞이 삼계탕 보시

말복을 맞아 불교봉사단이 소록도를 찾아 자비나눔봉사를 펼쳤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자비봉사단은 8월 12일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봉사단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조리한 650인분의 삼계탕과 김치 등을 한센병 환자들과 마을 주민 등에게 전달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이 들어서 있는 섬이다. 과거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섬이지만, 현재는 700여명의 환자들이 애환을 딛고 사랑과 희망을 가꾸고 있다.

이날 봉사를 위해 자비봉사자들은 전날 미리 인삼, 녹두 등 재료를 준비하고, 당일



광주 새벽에 무각사에서 출발, 소록도 도착 후 죽과 삼계탕 650인분을 조리하여 이날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여름에는 소록도 환자들을 위한 삼계탕 공양 봉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동지팥죽 공양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매주 토요일은 월정사 '작은음악회' 로

8월 한달간 '천년 숲 바람의 선물' 주제로 다채로운 향연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휴가철 방문객을 위해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작은 음악회를 연다.

'천년 숲 바람의 선물' 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작은음악회는 토요일 오후 4시 난다나야외데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향연이다.

먼저 8월 8일에는 '우리 소리' 를 주제로 여창가곡과 가야금 산조 공연 등이 펼쳐졌다. 박민희 중요무형문화재 가곡 이수자의 여창가곡을 비롯해 박연희씨의 가야금 산조 박연희, 차승민씨의 대금산조 등 젊은 소리꾼들이 우리가락의 흥겨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8월 15일에는 '어쿠스틱 기타와 노래' 를 주제로 기타연주가 펼쳐졌다. '얼굴' '걷다보면' 등 3개의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는 등 홍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재형 씨와 서울시민형 아티스트로 선정된 크로크노트의 기타 합주가 펼쳐졌다.

22일에는 '추억의 가요와 섹소폰' 을 주제로 추억의 무대가 마련된다. 1974년 KBS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가수 박건 씨와 섹소폰 연주자 신승아, 최선중, 윤상조 씨가 환상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오후 7시에 열린다. 29일에는 '바이올린 소나타' 를 주제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청독주회 등을 연 실력파 연주자 이서현 바이올리니스트와 아시아 국제 쇼팽콩쿠르 2위에 빛나는 조강은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펼쳐진다.

월정사 측은 "방문하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산사의 저녁을 무대로 마음을 놓고 쉴수 있는 자리" 라고 말했다. (033)339-6616 **노덕현 기자**

"부처님의 옷,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화엄사, 8월 8~12일 전통가사제작 특강 '화제'



스님의 가사를 만드는 특별한 강좌가 인기다.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관장 원묵스님)은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범음료에서 '부처님의 옷을 짓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와 함께하는 전통가사제작)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아시아민족조형학회(회장 박윤미)와 함께한 이번 강좌는 전체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가사 9조와 25조의 제작실습이 진행됐다. 8월 11일에는 화엄사박물관에서 특별전시중인 서산대사와 벽암 각성스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에는 제24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명천스님(함양 향운암)의 지도로, 가사의 고불의식 등 전통불교의례를 참가자들이 함께 실습하게 했다.

강좌의 마지막 12일은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가사 고불의식이 화엄사 각황전에서 주지 영관스님을 증명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관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부처님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수행자의 의복이자 법복인 전통가사를 제작하는 특별한 화엄사에서 이루어진 것은 희구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며, "인류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유형이 변치 않았던 가사가 현시대에 이르러 다소간의 규범이 흐트러지고 전승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특강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가사의 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과 협력을 통해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가사전을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음식문화원, 홀몸 어르신 음식 제공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이 배우자와 사별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연음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

이번 자연음식 체험은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총10회 걸쳐 전주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에서 진행됐다. 체험에는 남편과 사별한 10명의 홀몸 어르신들이 동참해 자연음식 조리법을 직접 배우고 실습했다.

이번 자연음식문화원의 사별 어르신 자연음식 체험전은 무더위에 지친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하는 대부분의 참가 어르신들이 인공조미료나 인스턴트식품 위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들을 멀리하기를 바라는 취지



다. 이날 음식도 전통음식과 자연음식 위주로 엄선된 식재료와 식단으로 구성됐다.

참가 어르신들은 "집에서 어렵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번거로워서 균형 잡힌 음식을 먹기 힘들었는데 간편하고 영양 잡힌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것 같다" 며 "특히 원장님의 자연음식 강의가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줘서 좋다" 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대, 중국 문화 탐방단 발표회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재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중국문화 체험단 귀국 발표회를 8월 10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금강대는 중국의 주요 시장과 문화 현장을 체험하여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역량 등을 제고 하고자 8월 3~7일 4박 5일간 파견한 바 있다.

이번 체험단은 교내 선발과정을 거쳐 총 1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북경 · 천진 5개팀, 상해 · 항주 9개팀 등 2개 코스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전 일정 경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지원했다.

귀국 후 체험단 교류를 위한 발표회에서 각 팀들은 중국내 진출한 한국기업의 발전상 소개, 일차별 탐방지 소개, 인천과 천진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중국인들의 낮은 외래어 사용률을 통한 모국어 사랑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발전상 등 알찬 내용을 담아 서로의 의견을 교류했다.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중국은 한두번 방문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며, 이번 탐방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 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자비행으로 佛法 가르침 대중에 회향”

창립 20주년 맞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도연 · 이하 총동문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무료급식을 통한 자비 나눔은 물론 문화 포교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는 범어사 신행단체의 주춧돌이라고 할만큼 그 역할이 눈부시다. 8월 6일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총동문회 사무실을 찾았다.

김도연 총동문회장은 “동문회 20년 역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은 무료급식이라 할 수 있다. 총동문회 창립 후 바로 그 다음 해에 배운 바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다. 무료급식은 나눔뿐 아니라 총동문회 식구들이 언제나 편하게 방문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폭염 속에서도 급식을 준비하는 총동문회 회원들은 무료급식소를 위해 마련된 공양간에서 독거어르신 1000여명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폭염 속 뜨거운 가스불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지만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런 정성스러운 기운 탓일까? 부산 금정구 뿐 아니라 부산 외곽지역 더 나아가서는 경남 지역에서도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어르신들이 올 정도라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모아 매주 목요일마다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급식 당일날 새벽에 장을 보는데 재료는 최고급으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진행해온 것이 올해로 19년이 되었다. 메르스 사태 때 단 두 번을 쉰 것을 제외하고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 신뢰와 정성으로 만든 무료급식은 지역 나눔의 상징이 됐다.

김 회장은 “19년 동안 이어온 무료급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자가 아닌 기업인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익명으로 마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곳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범어사역 앞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95년부터 불교대 졸업생들이 주축

무료급식 19년 이어오며 자비행

탄탄한 조직망, 8000여 회원

범어사 신행단체의 기둥 역할

이외에도 회원들은 범어사 신행단체 곳곳에서 활동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년 동안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을 수료한 회원들 가운데 90%는 총동문회에 가입하는데 그 숫자가 8000여명에 이른다고.

김 회장은 “총동문회 회원들은 범어사 신행단체인 보현회, 다도회, 합창단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을 보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범어사에서 진행하는 봉축, 개산대재, 백중 등 굵직한 행사에서 기둥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자비의 떡국 판매 및 사찰 기행을 통한 문화 탐방 순례,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개최하는 일일찻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부산시민연등축제,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동문단합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총동문회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에는 집행부의 탄탄한 연락망과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고. 김 회장은 “기수별로 조직망을 튼튼히 해 항상 모든 행사마다 빠짐없이 연락을 한다. 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늘 편하게 오고갈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을 일 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찾아와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귀띔한다.

총동문회는 올 가을에도 10월 25일 금정구민체육공원에서 동문가족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회원들의 가족을 함께 초대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총동문회는 나눔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도연 회장은 “요즘 복지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문헌 대중에게 공개”

극락암 · 동국대 불교학술원 업무 협약

근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의 소장 문헌을 조사하고 통합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통도사 극락암(선원장 명정)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8월 1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스님,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및 불교학술원 정승석 원장, 한상길 교수 외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은 “그동안 명정 스님은 스승이신 경봉 큰 스님의 자료는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일 없이 소중히 간직하고 보관해 왔다”며 “이 협약식을 통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화해 생생히 살아 있는 자료로 대중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경봉 스님의 일기와 편지 등 고문서를 체계화하고 연구할 수 발판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최근 확인한 소장문헌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경봉 스님의 자료는 근대문서 뿐만 아니라 평생 수지독송하던 목판본 경전과 의례집 등도 100여 점에 달한다”며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이 자료들을 정밀 조사, 촬영하고 소문으로 들어왔던 경봉 스님의 근현대 고승들과의 교유,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주고받은 서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봉 스님의 문헌으로 근현대 불교 역사 뿐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생생한 발자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봉 스님의 생전 거처였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는 경봉 스님의 유물관을 설립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봉 스님 소장 문헌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극락암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봉 스님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동명세계선센터, 명상 프로그램 진행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 차, MBSR, 몸 · 마음 힐링 명상 등으로 구성된 2015년 하반기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禪)수행학교’는 9월 2일 시작해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참 지도 및 강의로 진행되며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이 직접 맡는다.

‘차(茶)로 빚는 인성-차(茶)향 이야기 1기’는 이영희(세계선센터 차문화 전담교수), 정명(세계선센터 전담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9월 8일부터 4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반인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MBSR’도 진행된다. 개강은 9월 10일이다.

또한 몸 · 마음 힐링 명상은 9월 2일부터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051) 629-3582

하성미 기자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운문사, 스님과 재가자에게 총 2500만원 전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8월 10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산 스님 외 30여 이사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영조 스님과 동국대대학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석사과정 민우 스님, 중앙승가대대학원 불교문화대학 전공 석사과정 지석 스님, 동국대대학원 불교학전공 석사과정 최재희(명도심) 불자, 미국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김유한(연화심) 불자 등이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운문사는 8월 10일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달라”며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2009년에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수입금 5억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9억원 상당의 장학기금이 조성된 상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사하구불교聯, 환우 어르신 생일 축하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잔치연 베풀어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가 8월 11일 부산 한우리요양병원에서 환우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연을 베풀고 병동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양병원에서 생일을 맞은 어르신 10여 명과 병원 관계자 및 환우 어르신 1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는 회장 혜우 스님, 총무 송우 스님을 비롯해 사하구불교연합 소속의 스님 20여 명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고 환우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공연에는 색소폰 및 아코디언 연주 등 흥겨운 무대 공연이 이어지자 환우 어르신들은 힘든 병원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었다며 즐거워했다. 이어 스님들은 병동을 방문해 직접 마련한 300인분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우리요양병원 전기환 내과 원장은 “위로공연은 환우들이 스스로 살아 있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줘 치료를 위한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낸다”며 “이렇게 찾아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환우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혜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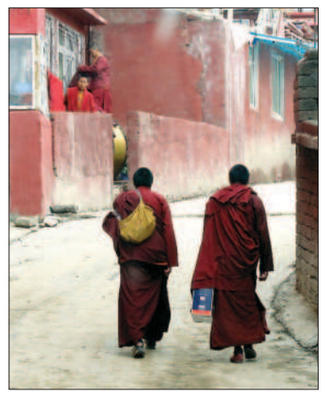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오명불학원 전경. 중국 쓰촨성 써다에 위치한 오명불학원은 약 4만 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다.


산 위에서 본 오명불학원. 1980년 릭메 푼촉이 처음 시작할 때는 32명의 제자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4만 명이 상주하며 불교를 배우고 있다.


오명불학원에는 수 만채의 붉은 토막집들이 있다. 학인 스님들은 이곳에 기거한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인 스님들. 거처에 돌아가서도 수행을 쉬지 않는다.

원력이 쌓아올린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③ 오명불학원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쓰촨(四川)의 써다(色達)는 3000m가 넘는 본격적인 고산지대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고산병 증세가 오는 지점이다.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곳이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움직여야 한다.

간즈장족자치주인 이곳에는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이 있다.

오명불학원은 세계 최대의 불교학원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약 4만 명의 학인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과 교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편의시설들도 존재한다.

곳곳에는 사찰과 교학 강당들이 있고 둘러싸인 산을 중심으로 학인 스님들 요사가 펼쳐진다. 성냥갑처럼 생긴 붉은 토막집들이 학인 스님들의 거처로 마치 한국의 1960~70년대 쪽방촌을 연상시킨다. 열악하다면 열악한 환경. 하지만 수만 명의 스님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력이 만들어낸 도시

오명불학원은 1980년 닝마파의 고승인 릭메 푼촉(晋美彭措)이 세운 작은 사찰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릭메 푼촉은 32명의 제자를 대상으로 수행과 설법, 교학을 공부했다. 릭메 푼촉이 고산 오지에 사찰을 열고 수행을 한 것은 티베트 불교 전통성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릭메 푼촉의 명망을 듣고 주위의 티베트인들 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1990년대에는 상주인구가 1만 명이 넘는 사실상의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릭메 푼촉에게 정식 지위를 주고 오명불학원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릭메 푼촉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1년에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사원과 도시를 파괴하고 학인 스님들을 쫓아냈다. 이는 주변 티베트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서양인들을 통해 이 소식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된다.

닝마파의 밀집지역인 캄 지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중국정부는 사원을 공개하지 않고 한족 수행자를 관할하는 별도의 스님을 두는 조건으로 오명불학원의 존속을 허락했다.

오명불학원의 수업은 티베트어와 중국어 두 가지로 진행된다. 입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과 불교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고 합격 후에는 4개월 간의 참관수업을 거친 뒤 자신이 공부할 과목과 스승을 정하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 내용은 문화(文化)–인명(因明)–계율(戒律)–구사(俱舍)–중관(中觀)–반야(般若)–전행(前行)–밀독(密讀)–구결(窺訣)의 9단계로 나눠지며 입문하는데 2년, 현교 수업에 4년, 밀교 수업에 3년 정도 걸린다. 오명불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기위해서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요즘에는 오명불학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수행 코스도 있다.

오명불학원은 철저한 자급자족,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원칙 속에 살아간다. 학인 스님들의 생활비 및 학비는 자비로 부담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학인 스님들은 학내에서 이뤄지는 불사와 운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오명불학원을 창립한 릭메 푼촉. 그의 원력은 세상에 없을 불교학원 도시를 만들었다.

1980년 릭메 푼촉에 의해 창립
32명 시작해 현재 4만 명 수학
五明, 다섯 학문 공부를 의미해
교학부터 염불, 의학까지 다양
한명의 원력이 세상을 바꾸다

붉은 토막집도 입학할 때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들어온다. 비용 절약을 위해 수행을 끝난 사람의 거처나 교재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느 곳에서도 걸림이 없어라

오명불학원의 '명(明)'은 학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오명불학원은 다섯 가지 학문을 배우고 이를 통달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는 '내명(內明)'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교학과 율장 등을 공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교명(工巧明)'이며, 손재주를 의미한다. 불상을 만들고, 불화를 그리고, 불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의방명(醫方明)'이다. 말그대로 의학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불교 의학'을 수학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인명(因明)'은 변론술을 배운다. 불교의 변론술은 오늘의 논리학과 궤를 같이 한다. 불교 논리학은 무엇이 바른 불법인지를 확인하고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성명(聲明)'으로 불교 음성학으로 이해하면 된다. 언어의 운율, 어조, 염불 등을 배우게 된다.

이 같은 오명불학원의 다섯 가지 학문적 목표를 살펴보면 불교가 얼마나 광범위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티베트인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까지 오명불학원을 찾아 수학하는 것은 이 같은 종합적 학문체계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명불학원 주지 웬조우 스님은 "오명불학원은 아난에서 달마로, 네팔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법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밀교와 선종의 수행방식대로 정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티베트 불교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중국 본토의 수행승이 이곳에 와서 수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순례단, 높은 구도심에 '감탄'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 지도법사 정우 스님(군종교구장)은 높은 구도열에 경의를 표했다. 정우 스님은 "이곳은 법화세계, 화장찰해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렇게 불가사의한 곳을 목도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에서 대해 말하고 있는데 평소 번역해 보는 것이 아닌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면서 "창립자인 릭메 푼촉 린포체의 정신이 자 · 비 · 희 · 사의 사무량심으로 화현해 오명불학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오명불학원의 환경을 보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성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행복해 보였다"면서 "이들은 모두 오명불학원에 들어올 때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들어오고 공양 역시 스스로 운력을 통해 마련한다. 그 원력과 간절함이 오명불학원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례에 동참한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사실 고산병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오명불학원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수행과 교학 공부에 오롯이 매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새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먹물옷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안사 주지 정안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불교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새로운 원력과 발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법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하는 것이다. 오명불학원은 사홍서원의 원력이 어떻게 발현돼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며, 티베트 불교의 저력과 원동력을 알 수 있는 도량이다.

※ 2016년 달력 ※



12절(벽걸이형) 달력
100부@1,000원
삼천부 이상@800원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7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121068-56-042256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空 사상 사색한 수행자 같은 선비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② 자하도인 신위

자하도인 신위(紫霞道人 申緯1769~1845)는 조선 후기 문예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외척세력의 득세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았지만 실제의 삶은 소요유(逍遙遊)의 자유로움과 선오(禪悟)의 경지를 체험했던 듯하다.

한때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강화유수로 봉직되었던 그는 윤상도의 탄핵으로 곤욕을 당했을 때에 그를 도운 이는 풍고 김조순(楓皐 金祖淳1765~1832)이었다. 1831년에 다시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무렵 용강에서 병을 치료한 후 시흥현의 자하산방으로 돌아온 그는 차를 즐기며 선오(禪悟)의 경지를 느낀 선객(禪客) 같았다. 이 해 8월, 초의가 지은 '북선암으로 자하도인을 찾아가다(北禪院謁紫霞道人)' 에는 자하산방 시절, 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다.

문을 연 사람은 문을 닫고 돌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지만(開門人記閉門旋)
잠깐 사이에 오십년이 지났구려(回首中間五十年)
비각에서 단련하는 옛 학사인 듯(秘閣丹鉛前學士)
범궁에서 향 사르는 대승의 선객인 듯하네
(梵宮香火上乘禪)
오래된 세 그루 회나무는 땅 가득 그늘을 드리우고
(綠蔭滿地三槐老)
구름을 뚫은 맑은 옥경 소리, 여운마저 그윽하네
(玉響穿雲一磬圓)
승려로써 아직 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慙愧?黎情想在)
새벽꿈에 의지해 은근히 서로 이끄누나
(憑將曉夢暗相牽)

당시 초의는 두 번째 상경했다. 이 무렵 그는 유산 정학연(1783~1859)과 추사와의 인연으로 홍현주(1793~1865), 윤정진(1792~?), 이만용(1792~1863), 홍희인, 홍성모뿐 아니라 김조순, 오창렬 등, 경향의 이름 높은 선비들을 만난다.

특히 스승 완호 스님의 삼여탑(三如塔)에 쓸 서문과 글씨를 받기 위해 찾았던 북선원에서 이틀간을 머물며 서로를 이해했다. 당시 자하의 모습은 마치 "비각에서 단련하는 옛 학사인 듯(秘閣丹鉛前學士)/ 범궁에서 향 사르는 대승의 객(梵宮香火上乘禪)"과도 같았다는 것인데 이는 벼슬을 사양하고 수행자처럼 살았던 삶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자하의 화답한 시에는 "도에 잠긴 동파 노인처럼 노니나니(道潛坡老共周旋)/ 이런 즐거움, 늙은 이 무렵에야 생겼다네(此樂衰年有此年)/ 쓴 차, 빈틈없이 다룰 때에 속된 기운 고칠 수 있고(苦茗嚴時宜?俗)/ 아름다운 곳, 좋은 시는 참선과 같은 경지라(好詩佳處合參禪)"고 하였다.

실로 자하산방 시절의 자하는 소동파(蘇東坡)처럼 물외(物外)의 경지를 읊조리고 시삼매(詩三昧)의 순일(純一)한 경계를 실천했던 듯하다. 자신의 거처를 북선원이라 불렀던 그의 사유세계는 이미 드러난 셈이다.

이처럼 인생의 공허(空虛)를 짐작했던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찍이 강세황의 문하에서 서화(書畵)를 익혔고, 스승 강세황의 문인적인 화풍을 이었다고 한다.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으며, 시와 글씨에도 능해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絕)로 칭송된다. 비교적 늦은 나이(1799, 그의 나이 30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5년 후인 1804년에 도당회권(都堂會圈: 의정부에서 홍문관의 교리, 수찬 등을 선임하기 위해 추천)에 합격한다.

하지만 그의 환로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니 이는 병고와 외척 세력의 견제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부인의 죽음은 그에게 많은 회한을 남겼으며 인생무상을 느끼게 했는데 이런 상황은 그가 불교를 가까이한 요인이었다. 이외에도 추사 김정희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1812년 7월, 주청사서장관 이시수와 부사 김선을 수행하여 연경에 사신을 갔는데 추사는 '연경으로 가는 자하를 전송하며(送紫霞入燕)' 라는 전별시에서 "자하 선배도 만 리 길을 건너 중국에 들어간다 하니 진기한 경치와 위엄 있는 광경을 보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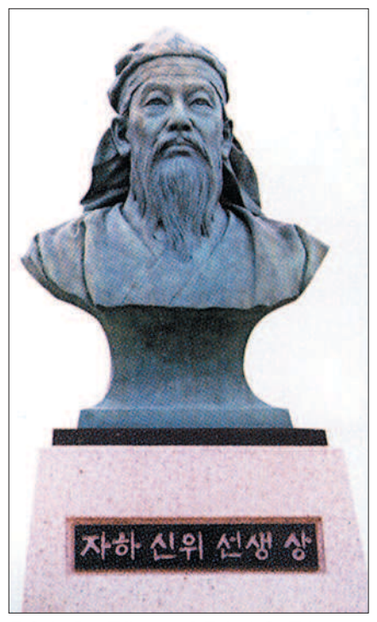
서화에 능해 '시서화삼절' 칭송
불교 승려와도 폭넓은 교류가져
화엄사서 패엽경 열람하고 공부
"釋誕日, 2월 8일"… 초의와 격론
추사 · 초의 "2월, 4월 고증 어렵다"



자하도인 신위가 쓴 '전다삼매' . 시서화에 능해 '시서화삼절' 로 칭송받았다. 불교적인 학식도 풍부했다.



신위는 서화 중 특히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했다. 사진은 간송미술관에 있는 '청축'



관악산 호수공원 내 자하정의 신위 동상. 1998년 조성됐다.

그러나 저는 본 적이 없는 수많은 경관을 본다 하더라도 한번 소재노인(옹방강)을 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紫霞前輩 涉萬里入中國　景偉觀吾不知其千萬億 而不知見一蘇齋老人也)"고 하였다. 바로 소재(옹방강)를 만나보라는 간곡한 뜻을 전한 것이다.

실제 추사는 옹방강을 만난 이후 자신의 학문관이나 불교, 예술, 차 뿐 아니라 고증학에 대한 안목을 높였기에 자하도 옹방강을 만나는 것이 좋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앞서 자하는 이미 옹방강의 인품과 학문적 성취는 익히 들었던 터다. 이뿐 아니라 스승 강세황을 통해 옹방강의 묵적을 일람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문예의 거두, 옹방강을 만난 후에 일회만감(一會萬感)이 교차되었으리라.

더구나 그는 평소 품성이 호탕해 당색(黨色)을 불문하고 폭 넓은 탁마지우(琢磨知友)를 사귀었다. 초의처럼 불교에 귀의한 승려들과도 폭 넓게 교유했다. 실제 그는 1830년 경에 각기병이 심해져 2년 정도 용경(蓉涇)에서 머물며 요양했는데 이때 산인(山人) 청당(靑棠)은 연훈법(煙薰法)으로 자하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따라서 1831년 8월에 초의를 만났을 때에는 용경에서 자하산방으로 돌아온 직후인 듯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의는 자하에게 완호의 삼여탑(三如塔)의 글씨와 서문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 자하가 탑의 서문과 글씨를 쓰게 된 것은 홍현주의 요청 때문이었다. 초의는 자신이 만든 차를 선비들에게 주었다. 자하산방으로 자신이 만든 보림백모차를 보냈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이런 초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하의 글씨와 서문을 제때 받지 못했다. 몇 차례에나 초의는 금선암(金仙庵)에서 자하를 만나고자는 했지만 한질(寒疾)과 형역(亨役)을 겪었던 자하는 초의를 만나지 못했다.

원래 금선암은 북한산에 위치한 암자로 선홍(善洪)스님이 주석하고 있는데 신위와는 이미 내왕이 있었던 사이였다. 이 밖에도 자하는 화엄사 법능(法能)스님과도 교유했다. 어느 해에 화엄사의 법능 스님을 찾아가 스님의 방에 묵으며 패엽경(貝葉經)을 열람했던 자하는 당시의 정황을 "패엽경의 소문을 오래 전에 들었는데(貝多梵夾聞名久)/ 새벽에 일어나 손으로(패엽경을)들추니 향기로운 기운이 피어나누나.(曉起手披香氣　)"라 하였다.

이외에도 자하는 초의와 석가모니 탄신일이 2월 8일인지 아니면 4월 8일인지를 논쟁했는데 이는 추사까지 가세되었다. 우선 자하의 '2월 8일이 석가의 탄신일이라(이월팔일작불신(二月八日作佛辰)' 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의 생신을 오늘 아침 만났다함은(釋迦生辰遇今蚤)/ 내가 근거 없이 우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증함이 있다네(非我臆說亦有考)"라고 하였다. 바로 자신이 주장한 석가탄신일은 2월 8일이라는 주장은 고증을 거친 것이다. 4월8일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가 2월 8일이라 주장한 근거는 바로 주나라와 하나라의 정월이 각각 인(寅)과 자(子)이므로 2월과 4월로 바뀐 것이란다. 따라서 하나라 월력은 2월이므로 태사(太史) 소유(蘇絲)가 기록한 날은 2월 8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하가 언급한 태사 소유의 고사(古事)는 어떤 내용일까. 바로 〈주서(周書)〉 '이기(異記)' 에 "주 소왕(昭王)이 즉위 24년 4월 8일에 강과 하천이 범람하여 우물이 넘치고 산천이 진동하고 오색 빛이 태미(太微:별 이름)로 들어가 꿰어 사방에 퍼져 모두 청홍색이 되었다"고 한다. 태사 소요가 '대성인(大聖人)이 서방에서 태어났는데 1천년 후에 성스러운 가르침이 여기까지 미치겠다' 고 하였다. 이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실제 소왕이 이런 사실을 기록하여 남쪽에 묻으라고 명하여 돌에 새겼다고 전해지는 데 이것이 바로 소유각석(蘇絲刻石)이다. 아무튼 자하는 세존의 탄신일이 2월 8일인대도 와전되어 4월 8일을 석가탄신일이라 하여 등불을 밝히고 떠들썩하게 기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내 이제 늙어 선탑에 의지하니(我今髯絲寄禪榻)/2월 8일 봄 강의 새벽일세(二月八日春江曉)/ 내 등불은 무진하여 본래 등불이 없으니(我燈無盡本無燈)/ 불사의 시를 지어 마음으로 공경히 기도하누나(作詩佛事心虔禱)"라고 하였다.

하지만 초의는 그의 이 설에 대해 '자하 시랑의 2월 8일 이라는 시에 화답하여(奉和紫霞侍郎二月八日之作)' 를 지어 자하가 고증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주나라 소왕에 그친 것이 아니고(細考又不止周昭)/ 무을(武乙)이나 하나라의 걸(傑)까지 거슬러 올라가네(上溯武乙并夏傑)"고 하였다.

실제 "오색이 밤을 밝힌 것은 오히려 장왕 때의 일이라(夜明還是莊王時)"라 고증하였으니 자하와는 견해의 차이가 분명했다. 이어 초의는 소왕 때라는 것도 "갑오니 갑인이니 하여 시끄럽다(甲午甲寅復相)"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이 2월 8일이나 4월 8일이라는 주장은 실제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기에 초의는 "백천의 등불이 석가모니를 보좌하니(百千燈影攝牟尼)/ 2월이든 4월이든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二月不妨作四月)"고 한 폭 넓은 견해를 나타냈던 것이다. 당시 자하와 초의의 이 논쟁은 유학자들에게 회자된 듯하다.

불교에 밝았던 추사는 '2월 8일 작불신에 답하다. 초납을 대신하여(答二月八日作佛辰代草衲)' 를 지어 초의의 입장을 옹호했는데 추사의 견해는 초의의 설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다만 추사는 4월 8일로 굳어진 것에 대해 "소문이 퍼져 조선에 그대로 굳혀져(聲聞依俙滯方隅)/가섭이 죽은 지 오래되자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離迦葉轉恣[illegible]訛)"고 하였다.

따라서 "화호경에도 근거라곤 전혀 없어(化胡經又沒巴鼻)/ 이 송사 질질 끌어 언제나 끝날까(此訟漫漫無時畢)"라는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4월 8일이니 2월 8일이니 하는 논쟁은 이를 고증할 근거가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고대사에 대한 고증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의 간극(間隙)은 이처럼 각설을 만든다. 하여간 이 논쟁은 부처님의 탄신일을 두고 초의와 자하, 그리고 추사 등 고증학에 밝았던 인물들의 학문적 방법론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자하의 불교관은 공(空)이나 평등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자하는 "일체의 영욕은 본래 평등한 것이라(一切榮辱本平等)/ 다시 업장을 바로잡아 번뇌를 소멸하리(再要業障消煩惱)"라고 한 것은 아닐까. 실로 "머리를 조아려 부처께 아뢰어도 부처는 말이 없는데(稽首白佛佛無言)/ 뜻으로 전하는 묘체를 절로 마음에서 알아차리네(意援妙諦心自了)"라 하였다. 따라서 자하는 실로 "범궁에서 향을 사르는 선객"으로 살았던 듯하다.

그의 제자 금령 박영보(1808~1872)는 자하의 '2월 8일이 석가의 탄신일이라(二月八日作佛辰)' 를 읽고 "이월팔일춘강효(二月八日春江曉)의 일곱 글자는 선의 깨달음을 갖춘 것이라(余讀釋迦生日詩至二月八日春江曉之句日此七字便具禪悟)"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자하는 "이월팔일봄강의 새벽에(二月八日春江曉)/ 그대는 선의 깨달음을 드러냈다고 하였네(問汝從底見禪悟)/ 시구 중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시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不在句中不在外)/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겨우 무시처(無是處)를 찾았네(着意心無是處)"라고 하였다. 실로 그는 불교를 료해(了解)했던 선비였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능력을 남용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⑬ 수보리 조사 문하에서 나오는 손오공

깊은 밤 야삼경에 수보리조사가 손오공에게 금단(金丹)의 대도를 전한다.
무릇 정(精)과 기(氣)와 신(神)을 단련하는 것이 금단대도의 요체이니 사악한 마음을 없애고 깨끗하게 되여 정진해 나간다면 그 공업으로 신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느니라.
이때부터 손오공 마음에 선기(仙氣)가 깃들게 되어 부지런히 호흡 수련을 중심으로 한 선도의 수양에 힘쓴다.
이러한 수행이 또 다시 삼년 쌓이고 근기가 두터워지니 수보리조사 한 걸음 더 나간 공부를 전한다.
72 지살수라는 온갖 술법을 배우고 구름 타는 공부 가운데서도 빼어난 공부인 근두운(筋斗雲) 술법까지도 배워 몸 한번 뒤채는 사이 십만팔천리를 휘익 나르게 되네 손오공 정말 출세했구나. 원숭이 왕노릇 보다 백배 낫구나.
우쭐 우쭐 손오공, 무서울 게 없어라.
어느 날 여러 제자들 앞에서 자랑을 좀 했겄다. 여러 가지 술법 가운데 둔갑술 같은 것을 보여주니 제자들 놀라서 와글와글 수보리 조사 웬일일가 나와 보시곤 크게 놀라셔 손오공 호출하신다. 무서운 개인면담!
당장 내 문하에서 떠나거라! 보물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함부로 내보이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이니 여기 있다가는 네 목숨이 위태로우리.
그리고 네가 아직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주제에 법술에만 능통하였으니 앞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 틀림없다.
그 재앙이 나에게까지 미칠까 큰 걱정이구나.
만약 나에게서 이러한 재주 배웠다는 이야기를 벙끗이라도 한다면 네 녀석 뼈다귀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저승에서도 쫓아내 결단코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리라!
단 한번 실수지만 결단코 문하에 남길 수 없다는 수보리 조사의 호통~
손오공 어쩔 수 없어 은혜에 감사드리고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온다.
갈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금의환향? 훌쩍 근두운 타고 당당하게 돌아온다.
원숭이들아, 나 돌아왔다! 왕의 귀환이니 모두 나와서 맞거라!



그림 · 최주현

손오공, 술법 배워 힘자랑하니
결국 수보리 존자 문하서 쫓겨나
"재주 보다 세상 편케하는 진리를"
불교 깨달음 궁극 목표로 제시 의미

자, 이제 손오공이 본격적으로 금단대도(金丹大道)에 입문을 하는군요.

여기서 금단대도라 하는 것은 바로 도교(道敎)의 핵심이 되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리지만 도교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도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끼쳐 왔거든요. 그래서 도교에 대한 상식을 가지는 것은 현실의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니까요. 일단 도교의 연원과 역사, 그리고 핵심적인 사상과 수양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교란 어떤 종교인가가 궁금하시죠? 또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노자와 장자 등의 사상을 도가사상(道家思想)이라 하는데 그것과 도교는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싶으시다구요?

앞에서 나온 금단대도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기로 하지요. 금단이라 하니 떠오르는 것 없나요? 한자로 써 볼까요? '金丹', 황금의 단약이라는 말이죠. 요즈음 우리나라에 단학(丹學)이라는 말이 좀 알려졌나요? 혹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선도소설 〈단(丹)〉이라는 책 아시는 분도 있을 법 하구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이라는 말이 바로 금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단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희귀한 약재를 모아 단로(丹爐)라는 금단 만드는 화로에 넣고 오랫동안 법식에 맞게 정성껏 제련하여 만드는 단약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든 금단은 불로장생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구요. 그 금단 만드는 법이 원시 도교의 중요한 비법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금단을 만드는 약재가 중금속, 특히 수은이라든가 납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위해 금단을 먹었는데 거꾸로 그 부작용에 큰 고생을 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가 봅니다. 역대 제왕들의 묘를 발굴하여 그 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은중독, 납중독의 증상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오래 살려고 도사(道士)들이 진상하는 금단을 먹은 결과라고 생각된다네요. 도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갈홍이라는 분이 지은 〈포박자〉라는 책에는 이런 금단의 종류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세 도교에서 이 금단들을 기록에 따라 제조해서 시험해봤다는군요. 그 결과는요, 가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는군요. 하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 금단을 만들어 먹는 방법은 점점 쇠퇴해지고 – 아주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새로운 장생불사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방법인 '금단'의 방법이 오랜 동안 지배해 왔던 탓에, 새로운 방법도 여전히 금단의 방법이라 불리게 되었죠. 또한 그 수행의 방법도 금단을 제련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되었구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속에 금단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람의 몸 밖에서 금단을 만드는 방식을 외단(外丹), 사람의 몸 안에 금단을 만드는 방식은 내단(內丹)이라고 구별하기도 했죠.

그러면 내단을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수보리 조사가 말씀하신 정기신(精氣神)의 수양입니다. 외단과 비유하여 말하자면 내단을 만드는 약재는 바로 사람의 정혈(精血)입니다. 이 약재를 제련하여 금단을 만들려면 무엇들이 더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더 필요하죠? 바로 단로와 불입니다. 단로에 약재인 정혈을 넣고 불을 잘 때야 하잖아요? 여기서 단로는 사람의 몸이겠지요. 그다음 불때기는요? 바로 호흡입니다. 꼭 호흡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호흡이 전부라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시지요? 금단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 정혈이라는 약재와 몸이라는 단로, 그 다음 호흡이라는 불때기입니다. 이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금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청정한 생활을 통해 정혈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인법을 적절이 실행하고 알맞은 운동을 통해 몸이라는 단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재와 단로를 갖춘 다음에는 법식에 맞게 오랜 동안 정성을 기울여 불을 때야 하는데, 바로 그 불때기의 핵심이 호흡인 거죠. 기본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호흡 수행을 꾸준히 잘 하면 몸속에 금단이 이루어져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보리조사가 말한 금단의 대도라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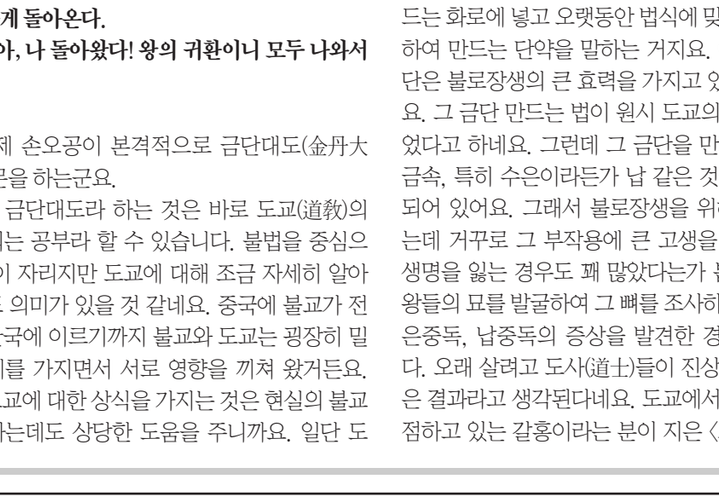
그런데 다시 하나의 문제가 있네요. 기본 약재가 정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수보리 조사가 말한 정기신 가운데 정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그 다음 기(氣)와 신(神)의 수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후세에 발전한 금단 수행법을 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지면이 부족하니까, 후세에 도사로 이름을 떨친 진단(당대에서 송대에 걸쳐 살았던 도사. 希夷선생이라 불림)이라는 분이 그린 무극도(無極圖)라는 것을 참조해서 설명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원 양 옆으로 연정화기(煉精化氣), 연기화신(煉氣化神)이라는 한자가 보일 거예요. 바로 금단 수행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정혈을 단련하여 기(氣)로 바꾸고, 다시 그 기를 단련하여 신(神)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수보리 조사가 정기신을 말한 것은 바로 이 금단 수행의 기본 골자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린 김에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맨 위의 원 양 옆으로는 무슨 글귀가 있나요? 연신화허(煉神化虛), 복귀무극(復歸無極)이라 되어 있지요? "신(神)을 단련하여 허(虛)로 바꾸고 무극(無極)에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허(虛)라는 것은 도교에서 숭상하는 우주의 근원에 해당하니, 바로 인간의 정신을 단련하여 우주의 근원과 소통한다는 뜻이겠구요. 그 경지는 모습을 뛰어넘은 우주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무극(無極)에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같지요? 실제로 도교의 금단 수양법은 노장사상과 신선사상을 종합하여 매우 발달한 수행의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방법은 알게 모르게 불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지요. 특히 앞에서 말한 불때기에 해당하는 호흡의 수행법은 도교의 수행법 가운데 핵심을 이루면서 가장 정밀하게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수식(數息)과 수식(隨息)의 방법이 있으며, 인도의 요가수행법과 연관되어 매우 발달한 호흡수행법이 정립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도 세밀하게 체계화된 것이 도교의 호흡수행법입니다.

서유기의 저자는 이 호흡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금단 수행법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며, 이 수행이 깊어지면 부처도 신선도 다 될 수 있다고 말하네요. 불교와 도교를 아우르는 수행의 방법으로 금단수행, 또는 호흡 수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죠? 위빠사나 수행에서도 가장 기본이 호흡관찰이라는 점에서는 불교 수행의 첫걸음도 호흡수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불교와 도교의 근본 지향이 본디 좀 다르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이 근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선이 된다든가, 장생불사 한다든가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반해 도교는 그 근본 목적이 '연년익수우화등선(延年益壽 羽化登仙)' 입니다. 수명을 늘려 오래 오래 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선이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청정(淸淨)과 무욕(無慾)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장생불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와 도교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유기는 이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축이 어떤 모습을 띄면서 서유기의 틀을 잡아나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죠? 앞으로 어려운 이야기 않기 위해 한 번에 확 풀어 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쉽게 나갈게요. 다음에 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불교, '붓다'로 가는 자기 형성의 길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3. 붓다와 보살(普薩) ㊦

인간존재와 그 수평적 관계

붓다의 가르침은 개개의 인격의 사유(思惟)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길의 가르침이었다. 비구들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자주 공한처(空閑處)에 가서 독좌정관(獨座靜觀) 하면서 자기 형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기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을 범부(凡夫)로, 도달하는 목표는 불타(佛陀), 그 도정(道程)을 그들은 출가(出家)의 비구로서 각자 걸어갔다. 이 출가라는 형식이 이미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근본불교의 개인주의적 경향(傾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떨어지며 속세의 일을 버리며 가정의 관계까지도 끊으면서 다만 한결같이 자기 형성의 일에 정진한다는 생활양식이다.

일체의 다른 소망을 버리며 이러한 생활형식에 감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희귀하였으며 또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무상(無償)의 공양(供養)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출가라는 형식은 이미 그 자체 속에 분명히 모순(矛盾)을 품고 있다. 그는 사회를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사회와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을까. 그는 여전히 발우(鉢盂)를 손에 들고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음식을 얻으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일까. 또 그들은 속세의 일을 모두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출가라는 행위로서 완전히 속세의 일을 버렸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공양(拱養)하며 그들을 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속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그들은 전혀 무관심하여도 좋다는 것일까.

또 출가자들은 그 가정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여기에 도달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을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을 대신해서 인류의 상속(相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일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전혀 고립될 수 있는 것일까. 붓다의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일체 존재의 모습은 연기(緣起)의 법칙에 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기란 조건에 의한 존재란 뜻이며 모든 존재는 관계 또는 인과(因果)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 관계 또는 인과라는 것은 도대체 개개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여 세로의 선(線) 위에서만 생각하면 좋은 것일까. 앞에서 말한 한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서
스스로를 더럽히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서
스스로 깨끗하다.

옛 주석자(註釋者)도 인간존재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시인과(異時因果)와 동시인과(洞時因果)의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 일이 있다. 이시인과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인과상속(因果相續)의 관계이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힌다"라는 그 인과이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그 관계이다. 이 관계는 물론 도저히 무시할 수는 없다. 도저히 끊을 수도 없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허공(虛空)에 있어도 바다에 들어가도
산골짜기의 동굴 속에 숨어도
거기에 있으면 악업(惡業)에서
모면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는 없다.

그것을 종(從)적인 관계라고 말한다면 동시인과(洞時因果)란 그것에 대해서 수평(水平)의 관계이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다만 혼자서 이 세상에 존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웃 사람이 있으며 고향을 함께 하면서 산다. 같은 나라의 사람이 있으며 같은 나라에 함께 산다. 같은 시대가 있으며 시대를 같이 하면서 이 세상에 있다. 다시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 초목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주위의 그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현대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풍토(風土), 사회, 환경, 문화, 그것과 분리되어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옛 주석자((註釋者)는 동시인과라고 말하며 또 단순히 수평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횡(橫)적인 관계를 근본불교는 경시(輕視)한 것처럼 보인다. 출가라는 생활형식은, 그 경향(傾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필연(必然)은 이러한 경향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동시에 그 안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이상의 도입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교의 역사는 자기비판의 역사이다. 근본불교가 안에 품고 있는 이러한 모순도 얼마 후에는 자기비판의 과제가 되었다.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세로의 관계만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 반성되었으며 비판되었다. 종적인 관계도 또한 횡적인 관계처럼 중요한 지위를 인간 존재 위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비판되며 반성되었을 때 거기에 새롭게 보살의 이상(理想)이 불교 속에 거론(擧論)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근본구조는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범부(凡夫)로서의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붓다의 이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기 형성의 길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근본불교의 사람들은 성문(聲聞 · sravaka)혹은 연각(緣覺 · pratyekabuddha)으로서 걸어갔다. 성문이란 붓다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길이며 연각이란 스스로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거기에 도달하려는 길이다. 그 어느 것도 결국은 개개의 인격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로써 보살의 이상이 거기에 도달하려는 길이다. 그 어느 것도 결국은 개개의 인격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로써 보살의 이상이 여기에 등장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 길을 가려는 것이다.

궁극의 목표는 여전히 붓다 이상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그 도정(道程)은 다르다. 여태까지의 길은 개개의 인격의 확립이라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행동하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한다. 거기에서는 벌써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 한다는 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이 새로운 관심을,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만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정토(淨土)에서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단연코 정각(正覺)을 취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한 이도 있다. 이러한 표현을 앞의 〈법구경〉의 구절과 비교해보면 그 기운(氣韻)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길도 또한 불교이다. 범부가 붓다에 도달하려는 길임에는 불교는 오히려 풍요한 길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때 불교는 비로소 완성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종(從)적인 관계와 함께 횡(橫)적인 관계도 또한 관심 속에 넣었기 때문이며 또 출가의 비구와 함께 사회의 대중도 또한 같은 무게로서 이 길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지금까지 대승불교에 있어서 연각(緣覺) 및 성문(聲聞)의 길이 뒤떨어진 길인 것처럼 주장되어 온 것도 또한 당파적(黨派的)인 편협한 견해이며 결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종적인 관계를 받아들여 보충한 면이 이제 도리어 횡적인 관계를 버린다면 불교는 또다시 편파(偏頗)적인 것이 되고 만다. 보살의 이상을 첨가함으로써 완성한 불교는 성문 · 연각의 길을 버팀으로써 또 다시 반신불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맥적산 석굴 중 한 곳. 석가모니 부처님 옆으로 보살과 아난과 가섭이 서 있다. 불교는 범부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신앙은 사닥다리 오르듯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이 해야 한다. 사닥다리를 한 매듭씩 밟고 오르면, 오른 만큼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 신앙인의 연륜(年輪)이 길어질수록 말과 행동에서 향내 나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는 스스로 구원을 완성한 자요, 자기를 바로 본 자일 것이다.

경찰청의 전신(前身)인 치안본부에서 경승실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6년 정도 머문 적이 있다. 그때 교통사고 처리를 지휘하는 담당경찰관들이 한결같이 내게 들려 준 말이 있다. 어느 종교에 속한 신앙인인 경우, 따지는 게 많아 상대하기 피곤하고 힘들다고,

종교인도 사람이요, 무종교인도 사람이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선의 교통 관련 경찰관들이 느끼는 공통분모가, 어느 종교의 신앙인들을 상대하기 힘겨운 무리들로 인식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닐 터이다. 따지기 좋아하고 인색하며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일삼는다면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될 게 뻔한 일이다.

리 이웃끼리 사닥다리 오르듯 하여 트인 안목으로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운명은 스스로 열어가는 것

길거리를 가다보면 사주(四柱)나 관상(觀相), 또는 손금 본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한 번쯤 관심은 가져봤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겠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라고.

일본인이 쓴 관상학에서 이런 구절을 만날 수 있다. 손금은 아무리 좋더라도 얼굴 잘생긴 것이 더욱 좋고(手相이不如), 얼굴이 잘 생겼다고 해도 마음 잘생긴 것이 좋고(觀相 不如心相), 마음 바탕이 잘 타고 났더라도 마음을 쓰는 것이 더욱 좋은(心相 不如用心)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여 모든 것이 마음 자세에 따라 이루어짐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띠, 소띠, 말띠, 따위의 신세타령은 접어두어야 한다.

사주(四柱)풀이를 즐기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일본 정도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띠이고, 영국의 수상이 무슨 띠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최소한 그들 나라에서는 사주풀이 따위의 운명에 매달리지 않는다. 해마다 발행되는 사찰용 달력에 보면 삼재(三災)가 적혀 있는데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 하여 열두 띠별로 빼곡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거기다가 원진살이니, 상충살이니 하여 마치 무당들이 즐겨 읊는 낯부끄러운 문자들도 박혀있다. 이게 진리의 큰 스승 부처님을 모신 사찰의 달력인지, 무당협회에서 발행하는 무당 박수 전용 달력인지, 한심스러운 작태가 해마다 이어져가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모시는 신(神)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도 신의 형상도 사람들이 짓고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신과의 만남, 신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니체의 결론은, 인간만한 신은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사람의 운명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간다는 쪽이다. 사람은 움직이는 신(神) 그 자체니까.

신앙 깊을수록 말보다 행동 앞서야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불복종할 권리, 알아야할 권리,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면 그는 민주투사도 아니요, 민중의 대변인일 수 없을 것이다.

사닥다리에 오르듯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 양보의 미덕(美德)도 몸으로 보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상의 생활도 그대로 생활화돼야 한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는 법이다. 내 종교, 내 신앙이 존중되고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내 스스로 말과 행동에 억지가 없어야 한다. 일방통행식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부끼리도 종교가 다를 수 있고, 가족끼리도 신앙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긴 하나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같지 않다 하여, 이단시 하거나 거리를 두며 벽을 쌓지 말 일이다. 대화를 하되 상대 신앙을 존중해 주는 대화의 기본틀은 지켜져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발 당신과 나는 마음의 닫힌 빗장을 열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하여 이 땅에 종교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민족끼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정치인 '탐심'과 불교도 '의심'이 빚은 비극

이슬람교도에 시민권 부여도 안해
로힝야 보트족 매달 '최고치' 기록
스리랑카 주류세력 불교도 장악
불교-이슬람교도 결혼 금지법도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나라, 미얀마와 스리랑카. 서구 언론은 2012년부터 '불교도의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탄압'에 주목하며 속속 날선 비판에 나섰지만 정작 그 대열에 동참하는 아시아 언론은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여성 정치인이 "경전 어느 곳에도 '종교적 인종적 증오'를 드러낸 구절이 없는데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다른 종교와 인종에 적의를 품고 있다"며 "이는 불교 가치를 퇴색시키고 민주주의조차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쓴 소리의 주인공은 일본 유리코 코이케(Yuriko Koike, 전 국방장관) 자민당 의원이다.

그는 'Stabroek News' 기고문에서 "미얀마의 '반 이슬람교도 정서'는 군부지배 종식과 민간정부 출범이 이뤄진 2011년부터 눈에 띄게 늘었고, 스리랑카의 '반 힌두교 정서'는 2009년 타밀족과의 내전을 종식한 이후 더욱 심해졌다"며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저지른 폭력은 자비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불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미얀마 인구 90%가 불교도인데 4%도 채 안 되는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을 탄압해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로힝야족이 비록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이미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오며 동질화됐음에도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다. 스리랑카 인구 70%인 불교도(싱할리족)가 주류 사회를 장악하고, 내전 패자인 힌두교도 타밀족에 노골적인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대선에 패배한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속을 위해 '불교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타밀족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의 지난해 11월 미얀마를 방문한 데 대해 미얀마 스님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미얀마 · 스리랑카, 이슬람 및 힌두교 탄압 거세져
日 유리코 코이케 의원, "불교계, 소수민족 반감 털어내야"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스리랑카의 타밀족의 미래는 불길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이미 박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악의적인 법령'도 속속 마련하고 있고, 스리랑카 정부 역시 다수 민족인 불교도의 타밀족에 대한 감금과 집단 따돌림 등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는 최근 여성의 출산 간격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족법을 도입했다. 4개의 조항으로 다수인 불교도와 소수인 이슬람교도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 단체와 보건 관련 활동가들은 새로운 가족법이 이슬람교도 세력, 특히 로힝야족의 인구 증가를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슬람교도 수가 불교도 수보다 많은 라킨 주에서는 이미 '2자녀법'으로 이슬람교도 수의 증가를 제한해 왔다.

민족과 종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법이 통과되자, 급진주의 노선을 걷는 스님과 불교도의 지지가 이어졌다. 이들은 소수 이슬람교도의 세력 증가를 막으려면 정부가 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써야 한다고 꾸준히 의견을 내왔다.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미얀마 불교계의 '반 이슬람교도' 정서는 3년 전 라킨(Rakhine) 주에서 발생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내전에서 비롯됐다"며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은 이때부터 보트에 몸을 실은 채 '미얀마 엑소더스'를 지금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 발발 첫 주에만 2천여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대형 보트를 타고 '라킨 엑소더스'를 감행했다. 로힝야족이 탄 보트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힝야족 해상 피난민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최종 목적지는 불분명하다. 선뜻 받아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의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탄압은 '집권'이라는 정치계의 '탐심'과 불교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교계의 '의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미얀마와 스리랑카 정치계와 종교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리코 코이케 의원에 따르면 미얀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는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재집권을 노리는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은 타밀족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아웅상 수치 여사와 마힌다 라자팍세 전 대통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이슬람교도 로힝야족과 힌두교도 티밀족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두 나라의 불교계는 그들의 '정치적 이유'로 빚어지고 묵인되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반감'을 털어내고 '분별심 없는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백만장자 출가로 '화제'

리우 징총, 안후성 바오첸 사원서 출가
백만장자 사업가에서 공양간 행자로

중국 광동성의 젊은 부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

'Mail Online'은 10일 "지난 2012년 최소한의 삶을 서원하면서 2년간 산사에 칩거했던 광동성의 리우 징총(Liu Jingchong · 39) 씨가 결국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며 "백만장자였던 그가 이제는 산사 공양간에서 대중에게 올릴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우 징총 씨가 3년 전 세속을 떠나기로 결심한 대도시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삶이란 더 큰 집, 더 좋은 일자리, 더 비싼 차 등을 쫓는 삶"이라고 말한 리우 징총 씨는 "산사 인근에 초막을 짓고 강독 명상 서예에만 몰두했다"며 "벽돌로 만든 침대에서 겨울밤을 보냈지만 춥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초막생활이 마냥 좋았다"고 회상했다.

'Mail Online'에 따르면 2년간의 초막생활을 접은 리우 징총 씨는 지난 5월 안후성 바오첸(Baochan) 사원을 방문해 삭발했다. 현지 리우 징총 씨는 사원 공양간에서 '대중 고양 소임'을 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리우 징총(Liu Jingchong · 39). 광동성 백만장자였던 그는 세속의 모든 것을 등진 채 지난 5월 안후성 바오첸(Baochan) 사원에서 출가했다. 그는 3개월째 사원 공양간에서 '대중공양 소임'을 맡고 있다.

美 카운티 두 곳의 사찰 발원

새러소타 카운티와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미국 두 곳의 카운티 불교계가 사원 창건에 나서 주목된다. 플로리다 새러소타 카운티에서는 상좌부 사찰, 버지니아 헨라이코 카운티에서는 부탄불교 사찰이 각각 창건 과정을 밟고 있다.

'WGCU'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불교연합회는 새러소타 카운티의 앵글우드 숲에 8에이커(32,37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카운티 계획위원회에 종교 부지 승인과 사찰 건축의 승인을 요청했다. 플로리다불교연합은 숲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명상 · 대중문화 공간과 스님 숙소 등 4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플로리다불교연합 존랩(John Raab) 대변인은 "새러소타 카운티에서 상좌부 사찰의 개원 여부는 10월 중 최종 결정된다"며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개월간의 의견 수렴과 경과 심의를 거쳐 10월 13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헨라이코 카운티에서는 부탄에서 이민 온 나르 구렁(Nar Gurung) 스님이 사찰 창건을 서원하며 지역 주민 참여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Richmond Times'가 보도했다. 나르 구렁 스님은 1년 먼저 미국을 건너온 가족들의 후원으로 2천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명상 · 채식 · 기도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플로리다 불교연합회 사찰 건축 승인 요청 부지

'Richmond Times'는 "퓨 리서치 센터 버지니아 인구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1% 주민들이 불교도다. 버지니아 불교도에게 부탄불교는 매우 낯선 불교"라며 "나르 구렁 스님 이벤트는 헨라이코 카운티 주민의 이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뉴멕시코주 우파야 젠 불교명상센터(Upaya Zen Center)는 8월 5~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기 '탈핵'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종이학 7만 마리를 모았다.

종이학 7만 마리 접어 '탈핵' 외치다

美 우파야 불교센터, 8월 5~9일 원폭70주년 평화 캠페인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사건이 발생한지 70년, 먼 곳 미국에서도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8월 6일 '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우파야 젠 불교명상센터(Upaya Zen Center)와 비폭력캠페인(Campaign Nonviolence) 단체 파체 에 베네(Pace e Bene)는 8월 5~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기 맞이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 및 산타페 일대서 캠페인을 개최했다.

'Lion's Roar'는 "우파야 불교명상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보내진 7만 여개 종이학이 애슐리 공원(Ashley Park) 무대에 펼쳐져 진풍경을 이뤘다"며 "저명한 평화주의자,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은 2백 50여명은 평화메시지를 담은 큰 플랜카드를 들고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로스앨러모스국립실험실까지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우파야 불교명상센터 비구 · 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실험실 입구에 천천히 들어가 삼가조의를 표하는 베옷을 입고 애도 발원문을 낭독한 뒤 참회 및 추모 의식을 봉행했다. 또한 이들은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반대 시위도 열었다. 'Lion's Roar'는 "그 실험실에서는 지금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 3배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캠페인 참가자들은 대량학살무기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우파야 불교명상센터 센세이 타나하시(Sensei Tanahashi)는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직업 속에서 진정한 자연과 인간 및 동물, 환경에 대한 존재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며 "인간은 모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로스앨러모스에서 실험 중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부디 지금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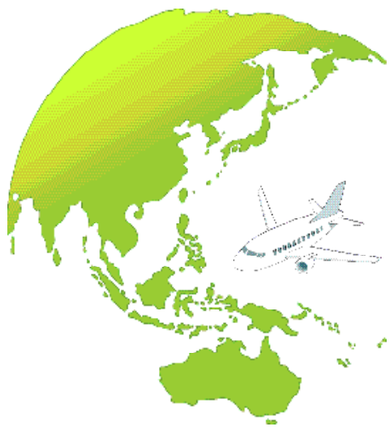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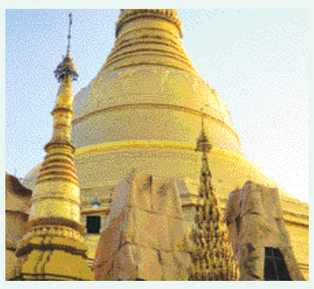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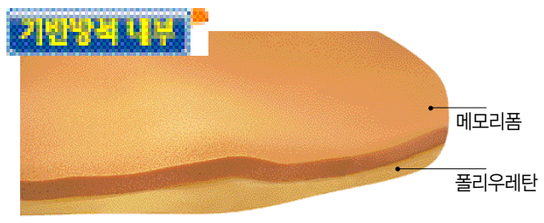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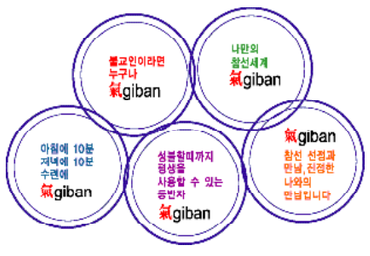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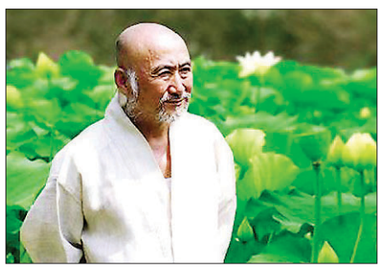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생사의 경계 넘어 구도의 여정 화폭에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2년전 고희전을 끝내고 쓰러진 이후 병마에 시달리며 배운 점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골고루 맛보라는 뜻에서 이런 고통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고맙게도 병이 나으니 아직 내가 해야할 일이 남았음을 알고 다시 그림을 그렸죠. 그 결과물로 이번 전시를 열게 되었고 회고록도 내게 되었습니다."

병고마저도 공부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선화가 범주 스님<사진>은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고통의 과정을 이기고 작품 세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스님은 그간의 결과물 300여점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이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스님은 병마를 이기고 집필한 구도 여정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운주사)도 함께 세상에 내놓았다.

수좌복지 후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달마도, 포대도, 한산습득도, 산수만행도 등 다양한 장르의 선화들을 선보인다. "많은 수좌들이 선방에서 용맹정진을 하지만 병이 들면 대중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토굴에서 혼자 힘들게 정진하며 어렵게 공부하다가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수좌복지회가 만들어졌죠.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 수좌 스님들을 돕는 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홍대 미대 재학중 인생의 의문을 풀기 위해 전강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용화사, 법보선원, 범어사 등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때로는 전국을 헤매며 만행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행을 하던 중 건강에 무리가 왔고 안국사에서 머물며 수행의 방편으로 선화를 그리게 된 것이다.

오랜 시간 선화를 수행의 방편 삼아 정진하던 스님은 선화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옻을 고안해낸다. 그리고 10여년의 고생 끝에 옻칠선화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희석제의 독가스를 무방비로 흡입,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병에

병마 이기고 삼매의 경지서 작업한
달마도 포대도 등 300여 점 전시
수좌복지 후원 위한 전국 순회전
저서 〈나를 찾아 붓길…〉 발간도

걸리게 된다. 스님은 "옻이 올라 몸이 가려운데도 고행 정진이라 생각하고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몸에 무리를 준 것 같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옻칠 작업은 많이 하지 못했고 대부분 선묵화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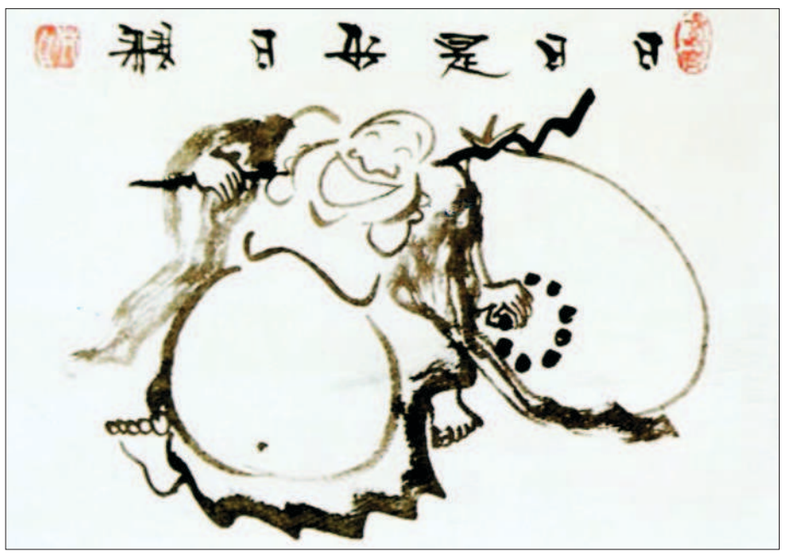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선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요즘 달마도가 상업화 되면서 부적처럼 사용되는 달마도가 선화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화는 선정의 길입니다. 붓에 정신을 집중해서 선묵화를 그리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진력이 깊어진 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필력도 강해집니다. 나아가 삼매 속에서 선기가 발생하여 이것이 작품에 스며들죠. 곧 무념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림만이 진정한 선화인 것입니다."

스님은 이번 서울 전시 이후 울산 부산 대구 등으로 전시를 이어 나갈 예정이며 선화의 참뜻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제자 양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와 함께 발간한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는 1부 회고록, 2부 선화에 대한 정리, 3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다. 1부 회고록에서는 스님의 한평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기의 방황, 전강 스님 문하로의 출가, 수행, 미국에서의 포교활동, 귀국 후의 활동이 그려진다. 2부에서는 40년 동안 선화를 그리면서 공부하고 몸으로 느낀 점 등이 담겨 있다. (054)535-037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이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왼쪽은 옻칠로 완성한 '관음도' 오른쪽은 '포대도'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불교문화의 새 장 열고파

창단 10주년 맞은 제니스 불교문화원 기념공연 '아름다운 동행-신작찬불가의 향연'

불교음악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 노력해온 제니스불교문화원(원장 박성규)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클럽부띠스타를 창단하고 기념 음악회를 갖는다. '아름다운 동행-新찬불가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8월 30일 저녁 6시 용산 아트홀 대공연장 미르홀에서 전석 무료초대로 진행된다. 출연진으로는 제니스불교문화원 산하 단체인 제니스합창단, 클럽부띠스타 등을 비롯해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전명신 박규리 등이 참여 다양한 장르의 찬불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퓨전, 정통국악, OST, PBM(Popppuler Buddhism Music), 대중가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 찬불가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제니스불교문화원 박성규 원장은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이 작사하고 김동환 유수응 김대성 강주헌 씨 등이 작곡자로 참여해 제작한 음반과 악보집을 발매하는 기념 음악회이기도 하다. 더불어 찬불가 포교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동해온 제니스 불교문화원의 지난 10년을 기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처님 향기, 강녕하소서, 무상하네, 그리운 어머니, 인연의 끈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럽 부띠스타 창단으로
현대 전통 아우르는 공연도



제니스 불교문화원이 창단한 클럽 부띠스타 멤버들이 연습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불교음악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제니스불교문화원의 제니스는 젠(Zen)과 동사 'is'의 합성어로 선(禪)으로 불교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니스합창단은 불교계의 수많은 행사와 사찰 포교당 교도소 군법당 등을 방문해 불법을 음성공양으로 알리며 신행과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합창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LG휘센 어머니 합창대회 장려상 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새롭게 창단한 클럽 부띠스타(Club Buddistar)는 남성불자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실용음악, 성악, 퍼커션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불교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박 원장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체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니스불교문화원은 다양한 파트의 팀들을 운영해 불교음악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럽 부띠스타는 스타 불교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클래식과 현대음악 장르의 조합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찬불가를 알려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음반제작, 정기공연, 기획공연, 순회공연, 봉사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010-336-8455

정혜숙 기자

"내 안의 소리 귀 기울이면 사랑이 꽃 피죠"

성악가 정행 스님 찬불 명상 음반 출시

35년 명상과 참선으로 정진해온 소프라노 정행 스님(행복선원장)이 찬불명상 음반 '내안의 소리'를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는 만다라화, 좋은 인연, 청산은 나를 보고 등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찬불가는 물론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내 안의 소리'도 함께 담았다.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사랑이 꽃을 피우네요. 눈을 감고 들어보아요. 내 안의 진실한 소리를'를 이라는 가사가 담긴 이 곡은 내면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안의 나를 찾을 것을 말해준다.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자님들의 성불인연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원력으로 이번 음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음악을 감상하듯 흐르는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연스레 내 안에서 흥얼거림이 일면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 흥얼거림 속에서 곡조들이 어느새 부처님 말씀이 되어 불자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나도 모르게 부처님 말씀처럼 살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행 스님은 숙명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명상 등으로 불교 포교를 이어왔다. 이후 50세의 늦은 나이로 출가해 운문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한 뛰어난 실력파이기도 하다.



"대학시절부터 오쇼라즈니쉬의 명상을 공부하다가 우리음악의 근본인 범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효종선원에서 범패를 배웠고 찬불가도 꾸준히 불러왔죠. 미국에서 활동을 하며 명상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가를 하게 되었고 음성공양을 통한 포교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님은 선원장을 맡고 있는 행복선원에서 찬불가의 노랫말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특별한 법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정혜숙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BTN 드라마 '붓다'

고타마 싯다르타 "나의 아내가 되어 줄래?"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가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자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숫도다나 왕은 고민에 빠진다. 싯다르타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싯다르타에게 자비와 명상을 가르치던 스승은 사표를 쓴다. 스승을 떠나보내고 공허해하는 싯다르타를 왕은 향락궁으로 보낸다. 여기에서 싯다르타는 기생 우르밀라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싯다르타는 야소다라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부마경선에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야소다라에게 "아내가 되어달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자신을 친구로만 여기는 싯다르타 때문에 낙담한 야소다라가 싯다르타가 만든 자신의 조각상을 보며 위로받는다.



형제의 다툼을 원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싯다르타를 부마경선에 나가지 말 것을 제안하는 망갈라.



부마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련을 하는 데바닷타. 꼭 야소다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야소다라가 위대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의 사주를 갖춘 여인이라는 것을 안 드로난다와 망갈라는 그녀를 아들 데바닷타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들 부부는 싯다르타가 왕이 되기 전에 왕자들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청춘축제를 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야소다라를 초청하게 된다. 야소다라의 아버지 단다파티는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을 한 데바닷타가 딸의 짝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하지만 야소다라의 어머니 아미타는 신의 화신 같은 싯다르타를 지지한다.

초대를 받은 야소다라 가족이 왕궁으로 오는 날 싯다르타와 데바닷타도 그들을 마중 나온다. 데바닷타가 연꽃 한 바구니를 내미는데에 반해 싯다르타는 한 송이의 연꽃을 내밀자 야소다라는 싯다르타의 꽃만 받는다. 왜 자기 꽃을 받지 않냐는 데바닷타의 질문에 야소다라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하인들이 딴 꽃으로 이 바구니를 채웠겠지만 싯다르타는 이 꽃을 직접 구했어. 봐. 싯다르타에 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야소다라는 왕의 아내가 될 운명
부마 경선으로 남편 간택 결정
경선을 포기하려는 싯다르타에게
야소다라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

야소다라가 싯다르타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지만 싯다르타는 아직까지 야소다라를 향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너는 친구일 뿐이라는 싯다르타의 말에 속상해하는 야소다라에게 로시카는 싯다르타가 만든 야소다라의 조각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싯다르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야소다라뿐"이라며 위로해준다.

망갈라의 제안으로 야소다라의 짝이 맏이인 데바닷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야소다라는 슬픔에 빠진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신은 싯다르타를 좋아하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버지 단다파니는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비춘다. 결국 단다파니는 야소다라의 짝을 찾기 위한 부마경선을 제안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망갈라는 싯다르타에게 형을 위해서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제안하고 싯다르타는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야소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싯다르타에게 고백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너는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싯다르타는 형을 위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은 야소다라는 뛰쳐나간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궁녀 로시카는 싯다르타에게 다가와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형에게 야소다라를 보낼 거냐"며 나무란다. 그때 야소다라가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급하게 달려나간 싯다르타는 계곡으로 뛰어내리려는 야소다라를 붙잡는다.

야소다라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된 싯다르타는 "부마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을 것"이라며 "고타마 싯다르타의 아내가 되어 줄래?"라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싯다르타와 야소다라는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망갈라는 단다파니와 아미타에게 데바닷타를 위해 유리한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단다파니는 데바닷타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한다.

어느날 싯다르타 앞에 발데프가 나타난다. 그는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코살라의 프라세나짓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다.

야소다라가 여인들이 목욕하는 와마풀 장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데바닷타가 들어온다. 당장 나가지 못하겠냐는 야소다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소다라가 벗어놓은 베일을 찢는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베일을 놓고 이것이 더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하며 사라진다.

데바닷타는 야소다라를 아내로 만들겠다며 하루종일 무술 연습에 몰두한다. 이런 그에게 드로나단은 싯다르타가 혈자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충고한다. 데바닷타는 이렇게 대답한다. "염려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것을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것으로."

정리=정혜숙 기자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불교를 골라서 살피는 재미

초대형 불교드라마인 드라마붓다가 초반 분위기를 힘차게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피서를 확실하게 하게 하고 있다. 12회 13회에서는 싯다르타의 혼인과 관련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다. 당신의 사랑은 서론이 너무 길어요 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싯다르타는 사랑의 의미나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사물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역시 무수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해가면서.

인도는 현재 힌두교도들이 많다. 그리고 당시에도 브라흐만교도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일정 부분은 불교와 흐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도 힌두교도들이 불교가 인도에 많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불교는 힌두교에 포함된 불교를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도 힌두교의 신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럴밖에. 드라마 붓다에도 부처님의 일생을 다루지만 어디까지가 힌두교이고 어디부터 불교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있다. 싯다르타가 아직 출가하기 전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전법하는 때보다는 훨씬 이전의 일이기에 그렇기는 할 것이다. 아무튼 불교를 제대로 골라서 살피는 재미도 있다.

싯다르타가 가진 근원적인 민감한 감수성에 기인한 질문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주위 사람들을 힘깨나 들었을 것이다. 질문, 질문, 질문 이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일이 주업인 교사(수)들도 힘들어하는 일이다.

서구의 철학사조가 변화의 흐름을 이어온 모습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리랑카나 돈황의 자료들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로 구성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른 바 소쉬르, 스트로스, 라깡, 푸코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주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붓다에 등장하는 이름을 살펴보자. 주인공 싯다르타, 경쟁자 데바닷타,아버지 숫도다나, 어머니 마하마야 등의 등장인물들이 외국어니까 알 수 없는 주문 같아 보인다. 그런데 주로 인도의 고어인 빠알리(Pali)어와 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되어있다. 글자를 보면 그 뜻을 알듯이 이름을 보면 그의 생김이나 성격을 알 수 있다.

힌두교와 불교의 문화 혼재
주인공 이름도 의미 담겨 있어

싯다르타(Siddhartha)는 드라마에서 명명식을 하면서 잠시 보여준대로 뭐든지 다 이룬다(成就)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경쟁자인 데바닷타의 데바(deva)는 하늘, 다따(datta)는 주어진, '어리석은' 의 뜻을 가져 하늘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둘에게 사랑을 받는 야소다라는 명예(yaso)를 지닌 사람(dhara)이라는 뜻이다. 애칭인 고파(gopa)는 소치는 사람에서 뜻이 만들어져 지키는 사람 즉 수호천사 같은 뜻이 된다. 그래서 그에게 혼인하는 남자는 왕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 숫도다나는 숫도(suddha) 깨끗한, 다나(dana) 밥, 보시의 뜻이 합쳐져 정반왕(淨飯王)이라고 한역한다. 깨끗한 보시라는 뜻도 있다. 어머니 마하마야(mahamaya)는 최초의 하늘인 야마천, 주술사라는 뜻을 가져 나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개 인도 빠알리어의 'a' 가 뒤에 붙으면 ~하는 존재(사람)이며 주로 남자이다. 'i' 는 여성이다.

싯다르타의 성인 고타마(gotama)와 고타미(gotami)가 그렇다.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남도신도인 우바새(upasaka),여자신도인 우바이(upasika)가 그렇다. 앞에 'a' 가 들어가면 부정의 뜻, 긴 'a' 가 들어가면 긍정의 뜻 끝에 들어가면 여성형 사람의 뜻이 된다. 사촌 동생 또는 이복동생이라는 난다(nanda)는 기쁨, 환희라는 뜻 외에 잘생겼다는 뜻이 있다. 최후의 비서실장격인 아난다(aananda)는 기쁨을 가진 자, 기쁨의 주체 그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옮겨진다. 'a' 가 들어서 부정하는 듯하지만 장모음이라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출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15기 지도자과정

새로운 포교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으로부터 사랑 받습니다.
자비명상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번 생에 꼭 자비명상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희망입니다.

◆개 강 : 9월 7일(월) 오후 2시 ~ 4시
◆비 용 : 매주 월요일 15주 강좌, 35만원
◆문의 및 접수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02-2260-3728~30)
◆특 전 ① 조계종 교육원 승가교육 인증과정
②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제 2013-1952호)발급
◆상 담 : 자비명상 사무국 02)3666-0260

[무료 공개강좌 초청]
◆일시 : 8월 29일(토) 오후 14~17시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2F)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Loving-kindness Meditation
자비명상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02~ 2015.8.0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2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3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4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7	감산자전	담산덕청 대성	탐구사
8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9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10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소통과 통합은 우리 사회서 꼭 이뤄내야할 정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통합
송석구 지음
아템포 펴냄
1만 5천원



사회통합을 위해 넘어야할 7가지 과제 제시
세대, 계층, 이념, 지역, 남북, 다문화 등
소통의 근본 해결책은 상대방 인정 하는 것
다양한 분야 '통합 명사' 대담도 함께 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보다 인구당 무려 60배가 넘는다. 2000년 이후 최근 15년 사이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소송증가율이 5배를 넘는다.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 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회자될만큼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을 지낸 '소통의 달인' 송석구 현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前 동국대 총장 · 사진)은 최근 펴낸 책 〈대통합〉에서 '소통과 사회통합' 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평생을 학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통의 중요성을 깊게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다 사회통합위원장을 지내면서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며 "물론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고, 갈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다.

〈대통합〉은 2011년 지금은 '국민대통합위원회'로 변경된 '사회통합위원회'서 위원장을 역임한 송석구 교수가 사회통합위원장 시절 통렬히 깨달은 '사회통합' 의 중요성과 그 과제 그리고 대안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이 책은 저자가 위원장 시절 경험과 그간 소통과 통합에 관해 사색한 생각의 결과를 엮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했다. 학자(철학 교수)로, 교육자(동국대 · 동덕여대 · 가천의과학대 총장 역임)로 칠십 평생을 살아온 노학자가 우리 사회에 '소통과 통합' 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통합' 은 정치, 사회, 과학,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폭발할 듯 갈려져 있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숙제 중 하나다. 송석구 교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 사회통합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책은 우리 사회에 사회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사회통합으로 다가가기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그는 세대 간의 갈등, 계층갈등, 이념 갈등,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품어 다양성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데올로기 사회를 탈피해 한국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통합의 철학' 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제 1장 '왜 사회통합인가' 에서 저자는 우리가 왜 사회통합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보자.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에서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에서 21%가 증가할 것" 이라고 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은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 문제처럼 국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렇기에 사회통합은 국가가 적극 개입 할 문제로서 바라봐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횡행하는 '갑질' 문제, 세계화의 폐해,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남북 갈등 등 수많은 불통과 갈등의 문제가 한국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장 '사회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7가지 과제' 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넘어서야 할 7가지의 과제를 하나씩 다루고 있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북 갈등 △다문화 가정 문제 △한국적 사회통합 패러다임의 설정 등이 그 과제들이다. 세대 갈등 관련 일자리 부분에 대해 저자는 "노년층에게 정년은 연장하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보수를 줄여서 젊은 층에 나눠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인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과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야말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3장 '소통, 통합의 문화를 창조하는 힘' 은 그간 사회통합위원회서 진행한 사회통합 활동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성격을 띤다. 노년과 청춘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운영한 콘셉트 카페 '청춘다방' 프로젝트, 젊은 세대에게서 소통과 통합의 해법을 들어본 '사회통합 UCC 공모전' , 종교계의 화합을 꽤한 '종교토론회' 와 '종교평화선언'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4장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의 핵심 비결' 에서는 저자가 그간 생각한 소통 철학을 다룬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불완전성서 찾는다. 우리는 너나 나나 다 틀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이를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천부인권' 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가진,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갈등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사람 사는 세상도 갈등이 있어야 발전 하지만 과유불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되, 적절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낼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된다. 소통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하루 이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가 현재 놓치는 '교육' 서 통합의 지름길을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언이취 개불허, 득의이언 무불허(如言而取 皆不許, 得意而言 無不許)." 이 의미를 해설하면, "말 그대로 들으면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뜻을 얻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바가 없다"란 뜻이다. 이 말은 화쟁론(和諍論)을 사회통합 키워드로 삼던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가 〈금강삼매경론〉서 한 말로 화쟁론의 정수를 담고 있다. 들리는 대로만 들으려 말고 속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오해 없이 말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용서할 서(恕)' 를 '같은(如) 마음(心)' 이라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게 하면, 즉 상대방의 처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법이다. 이런 휴머니즘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소통의 기본이고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편 책 말미에 저자는 자신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최재천 석좌교수와 김용택 시인, 엄청길 교수 등 다양한 통합의 명사들과 나눈 글을 실어 독자들이 대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돕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속의 밑줄 긋기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는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높아지기 마련이고,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뿐이다. 물론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고, 갈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소통의 문화가 바로 서야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지면서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고민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록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사회통합은 왜 필요한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이뤄졌던 각종 개혁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사회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마저 발생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두된 것이다."

-"소통은 물론 상호 간에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상대방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접점을 찾고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통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나를 누구나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으로, 누구나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갈고닦는 것이다. (…) 또 한편으로 소통에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지혜를 흐리고,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소통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력과 재치를 발휘하면 힘든 소통도 부드럽게 헤쳐나갈 수 있다. 소통에도 윤활유가 필요한 것이다. 갈등이 있는 한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방의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바가 없다. 인간의 본바탕에서 너와 나는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공부를 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 본질은 상대방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하고 참되고 순수하다는 인식이다. 그렇게 상대방을 긍정할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등 인간은 평생교육을 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결국 사회통합의 핵심 열쇠는 교육이 쥐고 있는 것이다."

300질 한정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 역주·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해설(벽암록 역주 · 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토·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註를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해설자는 《벽암록 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 정가 : 전 5권 값 165,000원
▶ 예약 : 민족사 02-732-2403~4
▶ 예약금 : 65,000원
▶ 송금은행 :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일감 스님의 금강경 내비둬 북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8월 21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이창선과 친구들(퓨전국악팀)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일감 지음 I15,000원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중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민족사 전화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역사 밖으로 걸어나온 '원효대사' 소설화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1 · 2

김선우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권 1만 3천원





이 책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자 날카로운 산문가 그리고 통찰력 있는 소설가이기도 한 작가 김선우의 네 번째 장편소설이다. 소설 〈발원〉은 원효와 요석의 사랑 그리고 당시 신라의 사회상과 원효의 사상을 공중제비를 도는 주령구처럼 균형감 있게 다룬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 특유의 유려하고 맵시 있는 문장은 소설의 읽는 맛을 더해 주며,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와 영화적 상상력은 당시 서라벌을 눈앞에 온전히 펼쳐 놓는다.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불국토를 꿈꾸었던 원효, 그리고 요석. 소설을 읽은 독자는 원효와 요석이 나눈 1400년 전의 사랑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과 번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작가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다른 여지가 없을 만큼 김선우가 써야 할 이야기였고, 오로지 김선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며, 김선우가 기어코 해낸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살아난 원효, 다시 깨어난 서라벌

원효의 일대기는 후대의 필요에 따라 각색되거나 축소, 과장되었고 이 또한 그 수가 많지 않다. 때문에 원효의 삶은 우리에게 피상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저자는 시인 특유의 유려한 문장과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로 역사 속 인물 원효를 우리 곁에 인간 원효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원효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요석 공주 또한 주변부 인물이 아닌, 운명에 맞서는 당당한 여성으로 그려 낸다.

작가의 손끝에서 원효와 요석은 오랜 전쟁과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하는 '부처의 마음'과 존재와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지닌 입체적 인물로 생생하게 살아난다. 선덕여왕과 김춘추, 의상 등의 실존 인물과 작가에 의해 탄생한 여러 인물이 서라벌을 배경으로 작가의 문장에 걸음을 맞춘다. 그들의 걸음은 간혹 비장하고도 경쾌한 춤과 같아서, 책장을 넘기는 박자를 가볍게 한다.

인물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발원〉의 세계관 안에서 다시 탄탄한 생명력을 얻는다. 황룡사와 분황사, 첨성대와 같은 실제 배경뿐만 아니라, 아미타림 등의 상상적 공간까지도 원효와 요석의 궤적에 의해 신라인의 숨결이 묻어 있는 왕경, 즉 서라벌로 다시 구성되고 일어선다. 〈발원〉을 읽는 것은 신라 시대를 살아 내는 것이며, 원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혼탁한 세상, 모두가 부처인 세계 발원하다

이렇게 소설 〈발원〉을 통해 살아난 원효와 요석 그리고 서라벌은 끝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백성의 고통은 정녕 멈출 수 있는가. 진실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원효 대사는 막히고 갈라져 서로 대립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는 세계로, 한 몸처럼 세상과 만나는 세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우리는 부처이자 곧 중생이고,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하며, 당신의 사랑은 즉 나의 사랑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작품 해제에 이렇게 쓴다.

김선우 작가의 네번째 장편소설
원효의 사상과 사랑 오롯이 담아
원효와 요석 입체적 인물로 재탄생
단아한 문장과 화려한 전개 돋보여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불국토를 꿈꾸었던 원효. 사랑과 자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던 원효. 김선우 작가는 너무나 근사하게 매력적인 드라마를 만든 것이다. 어느 육두품 출신 영민했던 소년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어여쁜 원효가 되어 가는지, 요석이 원효에게 어떤 인연의 여인네였는지, 진정한 자비는 국가와는 무관하게 중생들 마음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때로는 안타까움에 탄식하게, 때로는 섹시한 떨림을 주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정말로 근사하게 이 책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색깔의 파문을 만들어 낸다."라고.

김선우의 〈발원〉은 원효와 요석 그리고 신라의 수많은 민초들을 비추는 유리창이자 지금 우리 시대의 오래된 청동거울이다. 이 책을 통해 되돌아본 우리 모습 뒤로, 우리는 어떤 간절한 발원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소설은 이미 당신에게 스며 들어간 후일 테다. 이렇듯 〈발원〉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오래되고 동시에 새로운 호소를 독자에게 설파하는 참이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온몸으로 스미는 이 소설에 귀를 기울여 설복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김선우 작가는?

1970년 강원도 강릉서 태어났다. 1996년 〈창작과비평〉에 〈대관령 옛길〉 등 10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나는 춤이다〉 〈캔들 플라워〉 〈물의 연인들〉과 시집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도화 아래 잠들다〉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가 있다. 청소년 소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산문집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 그 외 다수의 시해설서가 있다. 현대문학상과 천상병시상을 수상했다.

時와 禪은 하나다… 구도자의 고뇌 표현

시선일여

제운 스님 지음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 2천원



"이 분상에선 너와 네가 없고 식견의 유무와 분별이 끊어져 고요 그 자체여라/둘이 아닌 경계 성성삼매에 들어 범은 성으로 인하나니 경계는 한발짝이다/달마 앞에선 푸른 계도 흰 눈밭에 혈화로 초조의 심인 얻은 혜가가 중생은 본시 부처다하는 승찬/우두산 바라보며 마음자리 찾는 도신 황매산에서 삼세제불도 알지 못합니다는 도신을 낚은 홍인이어라…(중략)" 〈달마의 향기〉 中에서

"정지된 어둠 가늘게 떨려오는 한 빛이 찌든 마음을 달랜다./깜빡이듯 스치는 온화한 불상 속 나는/줄지어 나르는 기러기 때 좇아 여린 끈을 놓을 세라/이 밤 하얗도록 시름에 잠 못 이루고 어둠 뚫고 멀리 들려오는 개짓는 소리/뚝뚝 떨어지는 침묵이여."

〈침묵〉 中에서

제운 스님의 시는 단순한 운문을 넘어 선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시들이 많다. 그래서 읽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낀다. 화가가 인생을 화폭서 말한다면, 시인은 글을 통해 인생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번에 발표한 글들은 시인의 감성으로 사물을 대하면서, 시인의 감성으로 사물을 비평하고, 시인의 감성으로 그것을 인지하면서 수행자라는 조건반사(條件反射)를 기억하고 내세우기도 했다. 여기서 '조건반사'란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행동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때론 세속에서 동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보이고, 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시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운 스님의 시집 "시선일여"는 '시와 선이 하나다'(詩禪一如)라는 정신으로 썼다. '시'라는 글을 풀면 '절에서 쓰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절이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수행이란 주로 참선(參禪)을 말한다. 선을 한다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시' 또한 생각을 가지런히 해서 언어를 간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4부로 이어져 지혜(智)와 연정(情) 그리고 만행(行)과 깨달음(禪)으로 이어지는 구도자의 고뇌가 시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저자는 "고단한 삶의 형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만 지나간 시간은 가버린 추억마냥 아련해서 우리의 뇌리 속에 별로 남아 있지 않기에 오늘 이 현실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며 "인간을 흔히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 생각을 한다는 이것이 스스로의 자존을 가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될 많은 고뇌를 만들어 스스로 고의 사슬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영장의 슬픔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제운 스님은?

시인이자 선화가다.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법주사 범어사 등서 수행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서 사교과정을 이수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를 전공했다. 조계종 직할 적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합천 보림사 주지이며 경기데일리 객원 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너는 금생에 사람노릇 하지 마라〉 〈달마산책〉 〈내 마음의 이야기〉 등이 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뭇 선 받들어 행하며 그 마음을 맑게 함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 그대로 행하니

선화 상인 강설 | 각산 정원규 편역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선화(宣化) 상인은 중국 선종 오가의 법을 이은 허운 대사의 법제자이며, 중국 위앙종(?仰宗) 제 9대 조사고, 관세음보살의 현신(現身)으로 추앙받는 근 · 현대 중국불교의 큰 스승이다. 선화 상인은 1918년 중국 길림성 쌍성현서 태어나 격동의 혼란기에 중국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중생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 동남아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서양인들에게 불법을 홍포하다가 199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원적했다.

선화 상인은 주력 수행이나 참선 등 한 분야의 수행법만 중요시 여기진 않았다. 계율, 교학, 참선, 염불, 다라니 독송 등 불교의 대표적 수행 방편을 모두 아우르면서 각자의 근기에 맞게 택해 계(戒) 정(定) 혜(慧)를 균형 있게 닦도록 하여 탐(貪) 진(瞋) 치(癡)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항상 설했다. 이 책은 수행법, 인과법, 능엄주와 대비주 법문, 중생구제의 일화 등 선화 상인 강설 가운데 핵심 내용을 한 권에 모두 모은 선화 상인 법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선화 상인 원적 20주년을 맞아 선화 상인 가르침의 정수를 한 권에 집약한 이 책은 뜻이 깊다.

선화 상인 법문은 철학적이거나 현학적이지 않다. 항상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실생활서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에 급급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꿰뚫어보고, 불법의 핵심을 다양한 일화와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한다. 상인의 설법은 잘못을 바로 드러내 지적하는 직설 법문이며, 듣는 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화 상인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뭇 선을 받들어 행하며, 그 마음을 맑게 함이 부처임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라는 말이 곧 불법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이 말은 조과 선사가 불법(佛法)을 묻는 백거이(白居易)에게 대답한 것으로, 현학적인 논리나 논쟁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진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지난한 수행을 하더라도 삶속에서 실천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염불이나 다라니 독송을 하든 모두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해 온 마음을 다해 행하면서 실제 생활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으로 향하는 길이며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해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하면서, 실생활에서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러한 노력이 이어지면 무량겁 동안 쌓은 업장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현전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불교 수행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강설하고 있다. 선화 상인은 참선이나 염불 등 한 분야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다. 계율, 교학, 참선, 염불, 다라니 독송 등 각자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되, 계 · 정 · 혜를 균형 있게 닦아서 탐 · 진 · 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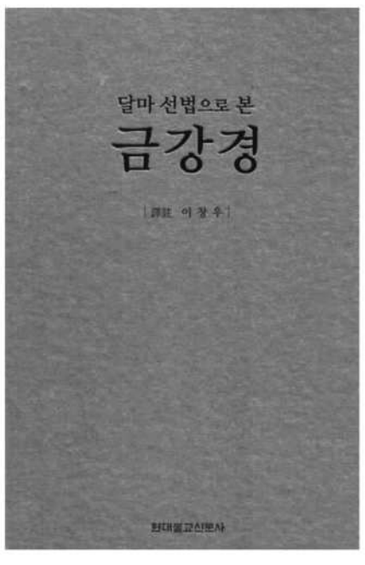
2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과 법칙의 엄중함을 체감하도록 했다. 살생의 업보가 가장 크고 무거운 이유, 낙태로 인한 업장과 수자령(水子靈, 아기영혼)의 천도법, 애착의 장애, 업장으로 인한 병의 치유법, 육식의 해로움, 업의 장애서 벗어나는 진정한 참회법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쉽고 상세히 강설한다.

3장서는 지금과 같은 말법시대를 부처님 시대 정법시대로 전환시키는 가장 근본 방법, 즉 의식주행의 모든 생활서 자신의 습기(習氣)와 결점을 고치는 길을 설명한다. 화엄경과 법화경, 능엄경을 독송하며 가르침을 익히고, 인욕과 자비로 덕행을 쌓으면 윤회의 고통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4장서는 관음정근과 대비주 수행을 통해 위기와 고난,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나무관세음보살' 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염하며 관세음보살께 도움을 구하면 불가사의한 감응을 얻어 고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비주를 지송하면 질병을 치료하고 마를 항복시키며 지혜가 열리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설한다.

마지막 제 5장서는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서 벗어나도록 선화 상인이 직접 도와준 일화와 선화 상인의 수행담, 상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수행과 이적(異蹟)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놀라움으로 가득한 신이(神異)한 일화들을 접하면서 인과의 법칙에는 한 치 어긋남이 없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더라도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가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선화 상인은 바로 그 점을 법문 곳곳에서 힘주어 말한다.

김주일 기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槪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불교교학, 한반도서 꽃을 피우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5. 삼국, 학파불교의 전성기

불교의 수용은 단순히 화려하고 영험한 불상과 의장이 전래되고 사찰을 통해 기복적인 신앙이 퍼져나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불교 수용이란 불 · 법 · 승의 삼장이 온전히 갖추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전과 율장, 논서가 들어오고 승려와 교단이 성립되어 교리와 계율,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규율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로 불상, 경전이 전래된 후 계를 지키는 승려가 나오고 교단이 성립됨과 함께 교학에 대한 이해의 진전이 수반되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는 교학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높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단편적 기록 외에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승려 이름, 그리고 활동내용이나 사상적 특색이 일부 전하는 고구려 출신 승려들을 소개해 본다.

고구려 승려 가운데 교학 이해에서 가장 이름난 이는 승랑이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활동한 승랑은 중관사상에 정통하였고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후대 삼론종 성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30세 때 중국에 건너가 구마라집의 제자 승조 계통의 삼론학을 수학하였고 평생 삼론을 연찬하여 삼론종의 개조 길장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승랑의 저술은 현존하지 않지만 길장의 저술이나 현존하는 삼론학 문헌에서 그의 논설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대체적 윤곽이 확인된다.

또 다른 고구려 출신 삼론학자인 혜관은 중국 수나라에서 길장에게 직접 배운 후 62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삼론종을 개창하였다. 혜관은 큰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지내 비가 오게 하는 신이함을 선보였고 그 결과 일본불교의 2대 승정이 되었다. 승랑이나 혜관의 국제적 활약상과 위상을 놓고 볼 때 고구려의 삼론학 수준 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론학은 나가르주나를 필두로 한 인도 중관학파의 〈중론〉, 〈백론〉, 〈십이문론〉의 세 논서에 의거한 학문이다. 중국에서도 공관의 이해와 함께 중관사상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삼론학은 길장에 의해 삼론종으로 발전하였다.

길장은 반야공관과 불성을 함께 터득하는 중도의 체득을 강조하였다. 공관은 자아와 같은 영속적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현상존재의 인과적 관계인 연기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성은 부처의 성품을 중생이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길장은 공(空)과 유(有), 진제와 속제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고 이를 중도의 관점에서 통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의 학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초목성불설로서 그는 성불이 가능한 존재에 유정물인 식물까지 포함시켜 대상의 폭을 넓혔다.

고구려에서는 이밖에도 열반학의 보덕, 천태학의 파약(반야) 등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덕은 〈열반경〉 40권을 강의하는 등 열반학에 심취한 이였고 선관 수행을 하다가 신인의 영험함에 감응하여 영탑사를 세웠다는 기록도 전한다.

보덕은 고구려 보장왕이 당 황실에서 미는 도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자 장차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간언하였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650년에 방장을 날려 하룻밤 사이에 백제의 완산주로 옮겨가서 경복사를 세우고 머물렀다고 한다. 원효와 의상이 그의 〈열반경〉 강의를 직접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에서도 그의 열반학 이해 수준과 당시 그의 지명도가 매우 높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 출신 파약은 중국에 가서 천태종의 개창자 천태지의에게 수학하여 천태의 교관을 전수받았다고 전하며 신이함으로도 유명해 중국의 고승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고구려 출신 승려 중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이는 일본 나라현 호류지(법륭사)의 금당벽화를 그린 담징일 것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는 610년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채색과 종이, 먹 등의 제작기술을 전하였고 호류지에 기거하면서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삼국 모두 불교학 빠르게 발전해
고구려, 삼론 · 중론 · 열반학 등 융성
백제, 천태계통 법화삼매수행 유행
신라는 원광 · 자장이 교학체계 정립
뛰어난 학승들 日불교에도 큰 영향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이 배치돼 있다. 교학의 발전은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산 마애삼존불에 배치된 불상으로 백제 시대 〈법화경〉의 신앙 형태가 발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양의 3대 미술품으로 손꼽히는 금당벽화는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의 4불로 구성된 정토도로서 1949년 수리 중에 불의의 화재로 아깝게 불에 타고 말았다. 하지만 1989년에 호류지 5층탑의 벽화 덧그림 아래에서 그가 그렸다고 하는 관음보살상이 1300년 만에 발견되어 빛을 보았다.

이처럼 담징은 화가와 전문기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오경과 불법을 강론하는 등 한반도의 선진문화와 학문을 일본에 전수한 이였다. 여러 기록들에서 신라와 일본의 승려들이 고구려에 불교를 배우기 위해 유학한 사례가 보이는 등,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 불교학의 선진국이었음이 틀림없다.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교학의 이해와 불교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백제 불교도 6세기 이후의 자료만 일부 전해지고 있어 그 전체상을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왕 때인 541년에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서 〈열반경〉 등의 불전과 주석서를 들여왔고 많은 유학승을 중국에 보내 당시 유행하던 성실학, 열반학 등을 공부하게 하였다.

성실학은 하리발마가 쓴 〈성실론〉에 의거한 학문으로 부파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대승사상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는 것이었다. 열반학은 부처 최후의 설법으로 전해지는 〈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부처의 몸(불신)의 영원성과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제기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저한 긍정과 무한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던진 것으로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는 불성 논의가 불교계와 사상계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백제에는 또한 천태 계통의 법화삼매행법도 들어왔는데, 이는 〈법화경〉을 독송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실상중도의 이치를 관상하는 수행법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 북조에서 크게 유행하던 지론학이 수용되었다. 지론학은 바스반두의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한 유식사상에 근거를 둔 학문이다. 지론학파는 유식의 제8식 알라야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남도파와 북도파로 나뉘었다.

남도파는 알라야식을 진식과 망식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진식을 여래장으로 보고 긍정하였다. 북도파는 알라야식을 오로지 망식으로 파악하고 진여는 이와 별개라고 보았으며, 여래장 불성 사상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논쟁은 결국 남도파의 승리로 귀착되었고, 이는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기본 전제를 형성하였다.

불교의 중국적 전개를 상징하는 대표논서인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불변의 진여와 현상이나 인연에 따라 부침하는 생멸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결합으로서 알라야식은 여래장과 무명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된다.

한편 7세기 전반의 무왕대에는 중국에서 성행하던 섭론학이 백제에 전해졌고 삼론학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쳤다. 삼론학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에서도 주류사상으로 자리 잡아 발전하였는데, 일본불교의 기반을 닦은 쇼토쿠 태자가 스승으로 모셨던 혜총과 일본의 초대 승정 관륵도 백제 출신 삼론학승이었다. 이와 함께 백제에서는 계율학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6세기 전반 겸익이 인도에 가서 율장을 가지고 왔고 이를 한역하였다는 기록이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소개되어 있다. 이후 계율학과 관련된 주석서가 백제에서 나왔고, 〈사분율〉 등의 율장에 입각한 구족계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584년에 일본의 비구니 승려들이 정식 수계를 위해 백제에 왔다 갔을 정도로 백제의 계율학과 수계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에서 불교의 공인이 가장 늦었던 신라는 불 · 법 · 승의 삼보가 공식 전래된 것도 기록상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후대인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에 이루어졌다. 먼저 '불(佛)'은 각덕이 중국 양나라에 유학한 후 549년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귀국했다고 전하며, '법(法)'은 명관이 진에서 공부한 뒤 565년에 불경 1,700여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전래되었다. '승(僧)'의 경우는 지명이 수나라에 유학하고 602년에 돌아와 율장과 관련된 〈사분율갈마기〉를 저술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뒤늦게 출발한 신라에서 불교 교학이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연찬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전반 원광과 자장 때에 들어서이다. 원광은 중국 유학 후 진평왕의 명에 의해 수에 원군을 청하는 '걸사표'를 짓는 등 정치외교적 자문에 응하였고 화랑인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권장한 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교학에 정통하여 수나라에 유학하여 당시 유행하던 성실학과 섭론학 등을 배워왔다.

섭론학은 아상가의 〈섭대승론〉에 근거한 것으로 지론학 남도파와 유사한 입장에 서있다. 섭론학에서는 알라야식을 진과 망의 화합식으로 보았고 그 본체를 순수 진식인 '아말라식(=여래장)'으로 상정하였다. 이처럼 알라야식, 또는 일심을 진식과 망식, 진여와 생멸의 이중구조와 양자의 공존으로 보는 시각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주류적 경향이었다.

원광에 이어 중국의 선진 불교교학을 수용하고 소개한 자장은 당에 유학하여 계율학과 섭론학을 수학하였다. 그는 643년에 장경 1부를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교단을 통솔하는 대국통이 되면서 앞서 수나라 불교를 롤모델로 삼아 교단의 체제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때 황룡사를 중심 사찰로 하여 불교 교단을 5부로 조직하였고 감찰기구를 두어 지방 사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장은 계율을 정비하여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고,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분율〉 수계와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보살계본〉의 강의와 보살계 수계를 동시에 행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남방 상좌부 전통과는 달리 소승율과 대승보살계가 전해져 함께 중시되었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괄하는 〈범망경〉이라는 중국 찬술 경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자장은 나아가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수계의식을 정비하였고 황룡사 9층 목탑에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등 국가의 후원 속에서 교단체제의 완성을 꾀하였다. 중국에서 계율학은 남산율종의 개조로 알려진 도선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계율의 정비와 수계는 불교 교단의 형성 및 유지와 정식 승려의 배출을 위한 기본전제였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를 거치며 경전과 논서의 한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지론학, 섭론학 등 여러 학파가 성립되고 학파불교의 전성기가 도래하였다. 이는 삼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불교 교리와 사조가 들어왔고 교학에 대한 이해가 점차 확산되었다.

한편 7세기 이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경전이나 교학에 의거한 교종 종파가 성립되었다. 중국의 수 · 당대는 바로 종파불교의 융성기로서 대표적 종파로는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을 들 수 있다. 신라에서도 7세기 중반 삼국통일 이후에는 화엄, 유식 등 주요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주석서들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금 늦은 8세기 무렵의 나라시대에 불교교학에 대한 본격적 이해가 이루어져 남도 6종으로 대표되는 학파 및 종파불교가 성립되었다. 남도 6종은 성실종, 구사종, 삼론종, 법상종, 화엄종, 율종으로 중국과 신라를 거쳐 간 불교사상의 궤적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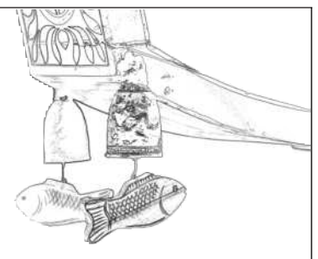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록 많이 들었다 해도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다.

- 능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49재,천도재,점안식
최고의 의식으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살풀이,회심곡)
이 인연으로 성취하소서!
010-5482-209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주, 60세이상)
참신하신 분
010-4587-1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은평구 진관동 용암사)
02-387-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3639-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4415-5780

경상남도 신라유형문화재 45호
미륵불
소원성취 기도로 영험합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강선암)
055-883-3459
010-4116-8418

좋은 인연을 찾는 여성불자입니다
스님께서 외롭게 홀로 계시면서 건강이안좋으셔서 식생활이불편하시고 힘드신분 도와드리겠읍니다. 환자 케어할 수 있는 간병요양보호사자격증 있읍니다. 음식을 잘하며 차량소유자임. 공양주 개념과 무보시는 아닙니다.
010-5276-5982

이름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는 인생의 씨앗이요
이름은 인생의 꽃입니다
빛나는 이름, 향기로운 이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덕인 성명학 (역삼역 6번출구)
02)562-8353
(홈페이지 참조)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6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 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관음전,종각, 요사채
- 방총13칸,공양간,창고,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건물 총13동
- 대형버스 5대주차장, 소형차주차장 20대 등
- 가액 : 3억 9천만원(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5억(절충)

010-8988-34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부지:70평 ◎ 면적:130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외전각:4채
◎ 요사:60평 ◎ 차량진입, 경관양호
◎ 양도:9억5천 ◎ 양도:15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제천시 포교사찰 급 양도
* 법당48.7㎡, 한옥요사채59㎡, 토지25㎡
* 제천시시장부근사찰.포교사찰적당함
* 양도가 : 1억6천만(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음성IC 3분
- 부지 1,187평, 법당 39평 삼선각 5평, 용왕단 7평
- 요사채 60평, 법회즉시 가능
- 법당 미등기
- 산세가 수려하고 정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음
- 가액: 7억 (조절 가능)

010-3708-173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총 1.250평
- 법당 30평
- 요사 3동 75평
- 가액 : 2억원

011-370-590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43-4번지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101-1151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평수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2칸, 화장실, 옥상사용가능
- 1층 공양실 20평,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010-4858-5377

사찰싸게(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9평, 법당 23평 조립식
- 주택-한옥 및 양옥 35평
- 지하암반수 50미터, 수목, 담장, 대문
- 가액 : 2억 2천
- 2016년 복선 전철개통(상반기) 남이천 IC개통 2015년 말
- 비구니 수행도량 최고, 시내 5분거리(자가용)

010-2813-1381
010-3194-37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터는 도깨비터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사찰 상가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 91평 / 건평 : 1,010평 / 지하 : 19평
- 1층 47평 도로변 상가 2칸
- 전세 1200만원 월세 50만원
- 요사채 반지하보일러실 (심야전기) 3평 반
- 차고 겸 창고, 마당 정원 주차사용
- 2층 32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8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탱화, 영단
- 바닥 난방 필름, 방1, 주방, 화장실, 상담실
- 정남향, 일조건최상, 삼면 넓은 베란다
- 교통편리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840-91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영천 IC 5분 2차선접
- 법당 30평
- 부처님 진신 사리탑 5층
- 공양실 + 주방 20평
- 요사채 50평, 저온창고 4평
- 가액 : 7억 5천만원

010-7429-444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 3층 법당 35평 삼존불
- 요사, 공양간, 화장실 등 15년간 운영 급양도
- 보증금 : 천만원 시설비 천만원

010-6616-0048

포교원임대

- 위치 : 김해지역
- 평수 : 약 50평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하기 좋은 곳(불교대학가)
- 가전집기 일체
- 가액 :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 시설A급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 법당 약 90평 3층(시설완벽)
- 보증금 전세금 3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두번째조건 (몸만오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40만원/ 호조건임
- 노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함

010-3750-5424
02)826-6409

사 찰 안 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서울시 노원구, 건평: 40평중
- 4층 : 법당, 5층 : 요사채
-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 협의후 절충 가능
- 주변이 산과 아파트 단지로 20여년 운영중입니다

010-5237-040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감전시장 옆 새벽시장과 감전시장이 바로 인접한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 명리공부하신 스님 최적!
- 평수: 38평, 3층 건물 3층
- 법당:삼존불,약사불,신중,영단 후불 금탱화,친견실,방,공양간,소형창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236-1808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 IC 5분이내
- 대지 235평, 주차장 10대주차, 채전밭 약 300평(국유지)
- 법당 : 삼성각,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30년된 아담한 사찰
- 가액 : 1억 5천만원(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스님 건강상 문제로 안내

054)832-6567
011-522-6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양지IC 20분거리
- 땅 3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
- 심야전기, 상수도
- 가액 : 4억5천만원

010-8564-6155

오전 11시, 오후 9시 전화요망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옥과 설산 기암괴석사자형상, 적송림 옥과 톨게이트 5㎞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650평
- 약사석불12자(血사리봉안)
- 건물 : 조립식건물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 가액 : 3억7천, 차진입가함

010-8224-1688

좋은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종교부지 160평, 대웅전 25평, 전110평
- 스님방, 공양주방, 삼존불, 각단탱화(소불)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4천 안고(2억1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임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친환경 삼베타올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23번지
- 화재로 요사채 전소 , 산신각, 미륵불상
- 암반수, 전기
- 대지 1,240평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양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포교원안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위치 : 경북, 경산
- 평수 52평, 3층 중 3층, 옥상사용가
- 법당 : 상단, 중단, 산신당, 영단 (현재 법회중)
- 요사, 주지실, 사무실, 방사2 후원, 공양간, 차고 2대 이상
- 가액 : 보증금 3백 1년 월세 200백 시설비 집기일체 5백만원

주지직 : 010-2329-14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번지 부산 온천장 중심
- 3층 약 50평
- 삼존불에 모든시설 완벽 모든시설 완벽 최상, 방2개
- 시설비는 거의 없음
- 직접 만나서 절충,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세50만원

010-4010-407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이천로
- 1층, 2층 30평
- 종무소, 법당, 방2개 화장실 2개(1, 2층),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 시설비 100만원(절충가능)

010-3389-8133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100평, 건물 : 40평
- 가액: 3억
- 대지: 168평, 건물 100평
- 가액 : 4억 5천
- 꼭 필요하신분께 양도 (대학병원 5분거리)

연락처 : 010-5407-8034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제곱미터 평당 10만원
-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후 결정 주인직접
- 현재 사찰운영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거리

010-3879-25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 내 대형 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후불.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기도도량임
- 대지:337평 시유지포함 700평
- 법당:20평, 요사채:50평
- 가액:9천5백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포함)

연락처 : 053-986-1080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과 교통요충지
- 평수 35평 3층 건물, 방1, 주방1, 옥상 30평 이용가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탱화 영가단 및 앰프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주방, 집기일체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몸만오시면 됨
- 소임 관계로 부득이 양도코저 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 시설비 2,200만원 보시면 깜놀

010-3813-6174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3〉 잡념의 산물, 탁기와 스트레스

음식물 썩듯 스트레스도 '악취' 뿜어낸다

향기 나는 삶을 살자

향기 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오랜 옛날부터 식물에서 채취한 향수나 아로마 따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였다. 향에 친숙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남성들도 다양한 화장품이나 향수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있다. 한 때는 인공적인 향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웰빙 열풍 이후 천연향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제 화장품, 향초, 비누 등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향수의 도움 없이 향이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의 향(냄새, 체취)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최고 미인으로 아름다운 시를 남긴 황진이는 화장을 하지 않고, 비단옷을 입지 않고도 아름다움이 돋보였다고 한다. 선녀란 별칭에 맞게 '방 안에서 때로 특이한 향(異香)이 돌아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았다' 는 설화가 한음 이덕형이 지은 「송도기이」에서 전해 온다. 국선도의 청산거사께서 수련을 하면 '사람 몸에서 나는 탁한 냄새를 맡아 질병을 알 수 있다' 고 말했다는 일화도 같은 맥락의 예다.

맑은 기운으로 하는 호흡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호흡 수련으로 상당한 경지에 이른 황진이와 청산거사의 일화는 황당하고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명상을 하면서 체취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적이 몇 번 있다. 같이 명상을 하는 동료들도 몸에서 나는 밤꽃향, 솔향 등을 맡았다고 이야기한다. 몸에서 나는 채취는 향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인 탁기가 많다. 향기가 아닌 탁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숨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50% 이상이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몸이 점차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명상의 초기에 느끼는 탁기 냄새는 '비린내, 짠 내, 최루탄과 같은 매운 내' 등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며 현기증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 또 다른 증상은 갑자기 졸음이 오거나, 허기지고, 전화를 받을 때 한쪽 귀가 멍하고 두통이 오며, 배탈이 나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잡념의 산물인 탁기를 접할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숨 명상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호흡을 하면서 탁기를 배출하고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해 쌓인 감정의 상처와 찌꺼기를 제거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탁해지는 원인을 알고, 맑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자갈과 모래가 깔린 깨끗한 시냇물은 자연의 오염된 물질을 정화하듯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맑아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은 자체 정화 작용이 일어난다.

음식물이 부패하면 악취가 나듯이 감정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체내에 쌓여도 부패를 일으켜 몸에서 냄새가 난다. 그럼 자신의 체취는 무슨 냄새일까? 어린아이는 젖내가 난다. 그리고 남성 처지에서 여성을 만나면 특유의 체취를 느낀다.

숨 명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탁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생선 썩은 내와 같은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탁해져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시간이 흐르면 염증으로 발전하거나 근육의 유연성 부족 등을 발생시킨다. 건강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생성되는 세포의 대사물질은 호흡과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신의 체취는 건강의 척도가 된다. 최근에는 호흡 측정을 통해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분석하여 질병을 발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질병을 판별하는 것에 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특히 후각이 발달한 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계측 장비가 발달하여 공기의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짧은 시간에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어 곧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의 방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환기하라는 말을 하곤 한다. 자신의 몸과 방에서 나는 냄새는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접하는 냄새는 뇌에 자극으로 인식되어 자각할 수 있지만, 점차 같은 냄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서는 해당 정보를 무시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커피를 감별할 때 시간을 두고, 입과 코 안에 남아 있는 향과 맛을 제거한 뒤 다른 와인과 커피를 감정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탁기 생성의 원인

명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 중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몇 번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어지럽다고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속의 기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가슴속에 감정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호흡을 꾸준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자신의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 다량 배출되는 시기가 몇 번 반복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몸은 맑아지고 가벼워진다. 그러나 깊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수 바닥의 뻘 속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위에서 보면 맑아 보이는 것과 같이 진정한 맑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흔히 스트레스는 주변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하기 때문에, 잡념의 산물인 탁한 기운이 자신의 내부에 쌓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 안에서 반응하는 요소(자존심, 승부욕, 명예욕 등)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내부에 쌓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자신 안에 담아 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끈적끈적하게 쌓이는 원인은 항상 자신에게 있다.

탁한 기운인 탁기는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생성된다. 정신적으로는 정신적 갈등이나 번뇌,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탁기를 생성한다. 자존심, 혼자라는 외로움,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미래와 경제 불안, 지나친 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고민도 탁기의 원인이 된다.

육체적으로는 안 좋은 음식이나 오염된 공기, 물, 과격한 운동, 급변하는 기후와 날씨, 음주와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탁기 생성 원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는 갈등과 고민이다. 타인과의 감정 대립이나 의견 충돌로 부딪히면서, 또는 자신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 **'향기' 에 대한 인간 욕망**
> **향수 · 아로마 등으로 해소**
> **맑은 기운으로 향기 얻어**
> **명상할수록 체취 변화**
> **스트레스 받으면 탁기 쌓여**
> **스트레스는 항상 '나' 로부터**

숨 명상에서는 물질적인 스트레스가 20~30%,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70~80%의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 그중 육체적인 것은 대개 몸의 자정작용이 있어 일정 수준까지는 스스로 배출되지만, 정신적인 것은 그날그날 배출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된다. 이를 방치하면 몸속에 탁기가 고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매일 숨 명상을 통해 그날의 탁기는 그날 제거하고 과거의 탁기까지 제거해야 비로소 맑아질 수 있다.

마음을 탁하게 하는 스트레스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다 보면 수없이 떠오르는 잡념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생각만 하면 좋겠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잡념은 떠오른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낮에 회의하며 벌어진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장면이 떠올라 뜬 눈으로 잠을 설칠 수도 있다. 또 누명을 쓰는 등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며 눈물이 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수만 가지 생각이 겹쳐지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명상은 순간순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문제들로 인해 쌓여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한 잡념의 산물인 탁기를 호흡을 통해 배출하여 맑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듯, 맑은 기운으로 하는 호흡을 하다보면 잡념들이 어느새 사라져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장박동과 호흡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혈액순환은 촉진되고, 근육이 긴장되고 강화되어 순발력이 높아진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치유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스트레스(eustress)도 10분 이상 지속되면 좋지 않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보화 시대 이후 지식 위주 사회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부모와 가족을 통해 사랑과 인성을 배우고 학교생활에서 지식과 관계성, 활동성을 익히며 그것들이 사회생활로 이어질 때 이성적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배움의 가치가 지식을 습득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인은 감성이 메마른 지식의 비만과 변비에 빠져 혼란을 겪는다. 행동, 감성, 지식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 폰, 태블릿으로 이어지는 속도 경쟁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을 들 수 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배우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는 상실된다.

셋째는 1997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침체로 인한 실업과 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들 수 있다. 넷째는 부모 세대의 경쟁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애정 결핍과 외로움이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원 등에서 홀로서기를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 다섯째는 멀티미디어 발달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주는 강한 자극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극적이지 않으면 뉴스가 될 수 없다. 점점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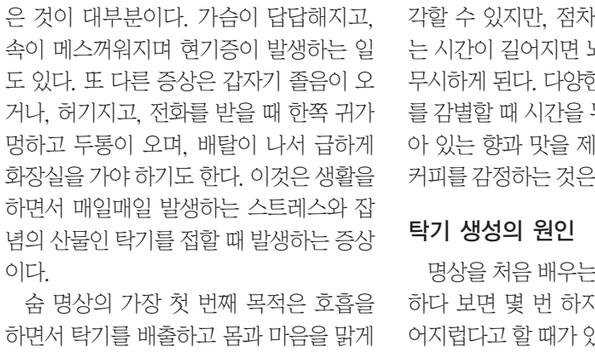
이처럼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인해 현대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혼자만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경쟁으로 인한 자존심과 미래의 불안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은 현대인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고 간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양한 정신적 요인들에 대한 무감각과 무감성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내부에 쌓여서 스트레스 비만을 넘어 스스로 에너지를 고갈하는 당뇨 상태에 빠져 버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미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기분을 관리하는 것은 오늘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리=박아름 기자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 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민요 국악지도자과정 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9월초 개강 예정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11시 ~ 14시까지
■ 강의장소 :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3층 강의실
■ 교육내용
민요의 필요한 호흡법과 발성법
경기12잡가 / 경서도민요 / 회심곡
■ 수 강 료 : 한학기 50만원
■ 박윤정 교수소개
중요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묵계월 이수자
제31회 MBC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장원"
제16회 KBS 국악대경연대회 민요부 "장원"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민요부 "대통령상"

수강신청 및 문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성북동)
☎ TEL 02)3668-9871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버스 : 1111,2112번으로 환승 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하차
정류장 바로 앞 동방아구찜과 손칼국수 사이 골목으로 200M 정도 도보
새로운 인생의 리뉴얼 대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결심 했으면 끈기 있게 도전해보세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feel disappointed or give-up even when my grades go down.

영국의 과학자 뉴턴(Isaac Newton, 1642~1727년)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실마리를 얻어 연구한 결과 '만유인력의 법칙' 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이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모두 만유인력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턴의 발견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뉴턴은 열등생 꼬리를 떼지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한 교수에게서는 장래성이 없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자기가 존경하는 과학자나 철학자들을 본받아 혼자 연구하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장래성이 없다고 말했던 교수도 나중에는 놀라운 천재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적이 나중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부를 남들보다 잘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조금 못해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두드러지면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열등생이었던 뉴턴이 놀라운 천재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보다 멋진 모습으로 자랄 것을 믿어요

I believe that I will grow up to become a better person.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년)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집 세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집안일을 돌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디즈니는 스무 살도 안 돼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렸지만 곧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는 할리우드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차렸지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또 다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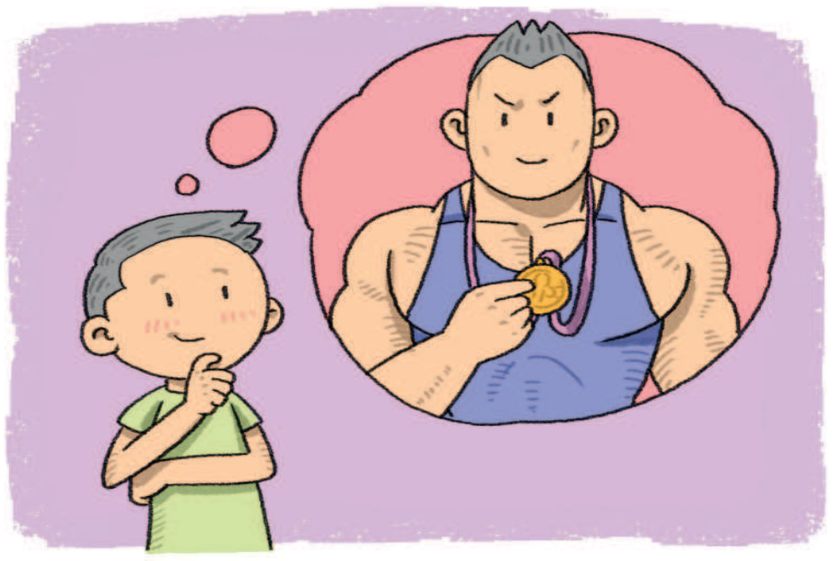
디즈니는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에 자주 나타나던 생쥐를 내세웠습니다. 이름도 붙여주며 애정을 쏟던 그 쥐는 둥글고 큰 귀에 빨간 바지를 입은 미키마우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유쾌하고 천진난만한 미키마우스는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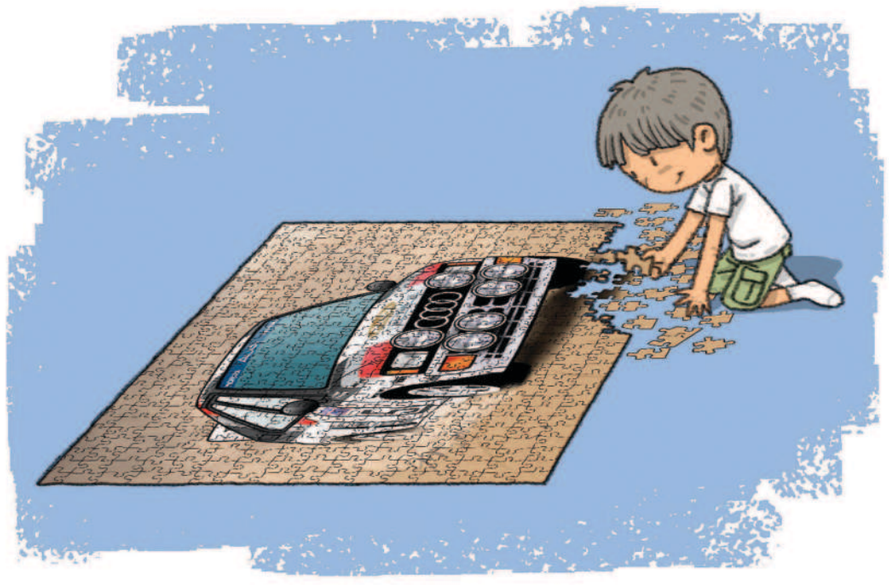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는 찬사와 비판이 엇갈립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디즈니가 지나치게 이익을 따졌고 고전 동화의 의미를 마구 바꾸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달려온 자세는 인정해야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뛰어가서 기회를 잡고 해보았던 것이다."

*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의 가능성은 어떤 꿈으로 이어질까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해내겠어요

Once I start something, I will not give up.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네 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이들 모두가 다른 나라였고 다툼도 잦았습니다.

중세 시대 스코틀랜드의 왕 로버트 브루스(Robert Bruce, 1274~1329년)는 잉글랜드에 맞서 싸워 독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버트는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수많은 전설을 남겼는데 특히 거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로버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잉글랜드 군에 쫓겨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희망도 없이 지쳐 쓰러져 있는데 동굴의 갈라진 틈 사이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가 보였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려서 거미줄 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미는 바람에 날려 몇 번이나 거미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더니 일곱 번 만에 줄을 완성했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던 로버트는 거미에게 큰 감동을 받고, 다시 잉글랜드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에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좀이 쑤시거나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 적은 없었나요? 그러나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 또 힘들면 포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는 속담처럼, 결심을 했으면 끈기 있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끈기가 있는 편인가요?
* 끈기를 갖기가 왜 어려운가요?
* 끈기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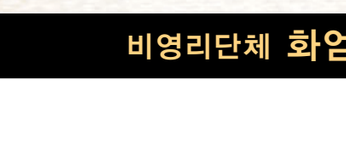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불자 세상보기

재벌 혁신, 시민사회가 만들어야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얼마 전 3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은퇴한 부산에 사는 후배에게 안부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왠지 주저하게 된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롯데의 광팬이었다. 사직구장에서 보내는 여름은 그에게 축복의 계절이었을 것이다.

그런 후배가 지금 이 무더운 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짠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온다.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는 것도 찜찜한데 그 후배는 어떨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큰 사기를 당한 낭패감이나,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감에 젖어 있을게 분명하다.

대개의 우리 국민들은 '재벌'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양가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에게 재벌은 기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미움의 대상이다. 외국에서는 한국 경제를 재벌경제로 표상하기도 하고, 아예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발 단계에서 재벌이 공헌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60~70 년대에 재벌은 한국 경제 개발의 전위대로서 출발하였고, 그 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그 재벌은 한국 사회에서 큰 공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공룡은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과 정의감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착한 국민들은 재벌이 망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던가. 재벌이 망하면 우리 경제가 망할 것 같았고, 해외에서 삼성과 현대의 제품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워했던가. 우리는 이렇게 재벌에게 얼마간 최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롯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승계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재벌의 최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깨어나야 한다. 승계를 둘러 싼 형제들의 싸움은 여러 재벌 그룹에서 보아 왔지만 이번처럼 그 민낯을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재계 서열 다섯 번째의 한국 대기업의 모습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재벌의 신기루에 더 이상 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 경제를 필경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세계 금융가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 즉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의 위험성에서 나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롯데 사태, 재벌의 민낯 보여줘
한국사회 '재벌 신기루' 벗어나야
착한기업 전환 위한 제도 마련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으로는 세계 시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재벌 경제적 패러다임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도 재벌 보호와 경제 진흥이라는 구시대적 틀을 깨고 건전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범죄 재벌 경영자에게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면하는 모습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이제 재벌가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고 행동하는 시민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글을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안타까운 것이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들이 붓다의 지혜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실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깊다. 붓다의 연기론과 사성제 중 집성제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랴. 인간 삶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나온 것임을. 그 지혜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 우리는 고해의 바다에서 떠도는가? 돈에 부패되지 않는 삶의 지혜와 용기가 새삼스럽다.

발언대

산지관광특구제도 논란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두고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8월 10일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사부대중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설악산 개발, 山·불교신행 망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근래 박근혜 정부가 '산지관광특구제도' 현실화에 근거해 설악한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관 돼 있다.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의 관망조건이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능선과 봉우리, 절벽이 빚어내는 장관 같은 것은 없고, 사방 지그재그로 연결된 나무테크 산책로와 전망대, 우거진 숲이 대부분이라 한다. 조망이 좋지 않은 곳을 노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 구간이 그 뒤의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코스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처음부터 대청봉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끝청봉 사이가 나중에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탑승객들이 정상인 대청봉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대청봉 일대의 황폐화와 오염은 자명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에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집단 서식지이고, 이 구간은 국내에서 매우 희귀한 아고산 식생대를 보이는 곳이다. 특히 중간지주 4, 5, 6번이 세워지게 될 구간과 상부승강장에서 끝청까지의 구간은 야생동식물들의 낙원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할머니들이 한 발 한 발 설악산 적멸보궁 봉정암에 오르는 모습을 보라. 그 분들은 땀을 흘리고 오른 그 험준한 곳에서 사람들은 맺히고 응어리졌던 마음의 고뇌를 다 내려놓고 지극한 위로와 평화를 얻는다. 긴 여정 끝에 찾아오는 기쁨과 환희는 힘든 과정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후에나 가능하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케이블카를 타고 편하게 암자에 참배하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레스토랑에서 창밖의 경치를 감상하다 내려오지 않겠냐는 주장은 신앙과 정신세계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난개발 우려되는 정부 개발정책



이병인 부산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에 따른 설악산 개발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집행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이미 입증돼 있다. 과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록이 거론될 만큼 그 자연경관과 식생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를 보호는커녕 무분별한 개발 속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는 배제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정부기관 환경부는 중앙 결정에 휘둘려 앞으로 설악산 보존에 관한 제대로된 관리조차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정부는 과거부터 케이블카 설치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대표적 근거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된 약 20곳 중 흑자가 나는 곳은 설악산 권금성과 통역 미륵산 두 군데 뿐이다. 10분의 1 정도가 적자인 것이다.

경제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면 후에 적자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히나 요즘 케이블카 설치는 민자 유치보다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세금이 실익성 없는 대규모 사업에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해놓고 막상 케이블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과 케이블카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결국 이는 경제적 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근거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

社說

조계종 선거 폐해없는 제도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8월 10일 교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소법'은 종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첨해 선택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하며, 후보자는 엄정한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종단 호법부와 사회기구에 신원 조회는 물론이고 1년간의 사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계·정·혜 후보 3인을 선출하면 1주일 후 원로의원, 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종정 스님이 3인 중 1인을 염화미소(추첨)해 행정부 수장을 선정하게 된다.

'염화미소법' 제안은 사실상 직선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계종 종책모임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 삼화도량 측은 그동안 직선제를, 불교광장 측은 준직선제를 선거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현행 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금권, 종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염화미소법'이 아니라도 변화를 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거제도 변화의 불이 당겨졌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제도가 만들어져도 누수는 생긴다. 얼마나 법을 잘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이다.

산지특구, 4대강의 愚를 범할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지관광특구제도'가 시끄럽다. 특히 불교계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민족의 영산이자 신흥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등 걸출한 불교 기도 성지가 자리한 설악산이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양양군은 오색계곡을 관통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중이다.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전국 20여 곳에 산재한 케이블카 중 흑자가 나는 곳은 고작 2곳에 불과하다. 설악산에 또 다른 케이블카와 이와 연결한 정상 호텔은 건설 초부터 운영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및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집단 서식지이다. 이곳이 훼손되면 한국 생태계는 무너진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은 말한다.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면 알 수 있듯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따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냥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산지와 국립공원을 개발하려는 데 혈안이 된 나라는 한국 정도다. 우리와 같은 국립공원 제도를 가진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고, 일본은 1970년 이후 설치된 케이블카가 4개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 분명히 목도했다. '녹조라떼'라는 비아냥을 얻은 4대강의 삽질이 이제는 산으로 가고 있다.

불교 사찰에는 '산감(山監)'의 직책이 있다. 오래 전부터 한국불교는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환경보살'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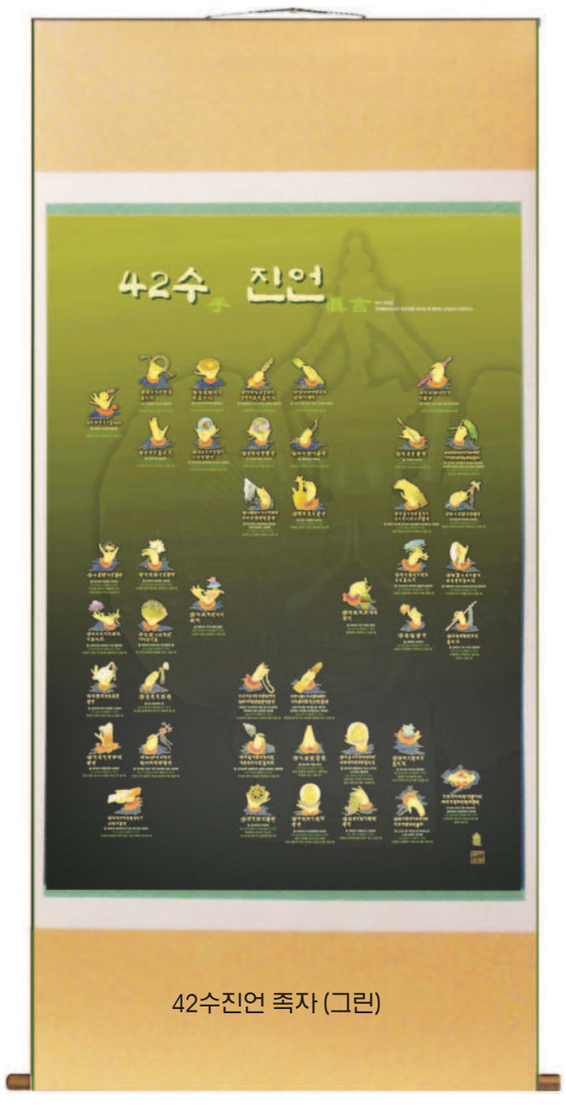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여름의 시원한 팥빙수 같은 '불교드라마'

55부작
드라마 붓다

매주 수,목요일 저녁9시

재방 일 새벽1시, 오후3시 / 월~목 새벽1시 / 화, 수 오전9시

가족과 함께 시청하세요!



BTN 불교TV 는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tv HD 555번 TV 185번 | www.btn.co.kr 케이블TV 채널안내 : 02.3270.3300

“나의 종교는 민중, 민중이 부처님”

만해대상 실천부문 대상 수상한 청전 스님



청전 스님은 … 청전스님은 인도 다람살라에서 29년 간 수행중인 달라이라마 제자다. 1977년 신학대학 재학중 송광사 방장 구산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인도 다람살라와 라다크 지역에서 ‘산타클로스 스님’으로도 알려진 청전 스님은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보청기와 의약품 같은 생필품을 보시하며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은 부와 권력을 뺏고 뺏기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초월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부처님이다. 욕망 추구가 극대화된 현재,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부처님의 길을 보여주는 이가 있다.

바로 청전 스님(淸典, 63)이다.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 6개 산맥과 세계 60여개 나라를 신발 한짝에 의지해 떠돌고 있는 구도자다. 청전 스님은 34세에 인도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달라이라마를 만나 영감을 얻어 주로 다람살라와 라다크 일대에서 29년째 수행과 빈민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청전 스님을 8월 9일 서울 정릉의 흥천사에서 만났다. 만해대상 수상차 잠시 귀국한 틈을 탔다.

민중이 곧 참스승이자 부처

히말라야 오지인들에겐 청전 스님은 ‘산타클로스 몽크’로 불리고 있다. 스님이 인도에 머물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히말라야 오지들을 다니며 보시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전 스님이 주로 가는 지역은 인도와 중국 접경지역인 라다크와 잔스카르, 스피티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 옛날 각각의 왕국이 있었을 만큼 넓다. 그러나 워낙 고지대인 만큼 마을이 수킬로씩 떨어져 있다. 당연히 병원도 약국도 학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1년 중 절반가량이 눈과 얼음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삽니다. 날이 풀리는 여름이면 지프차를 빌려 한국에서 보시 받은 영양제와 치료제 등 약품과 돋보기, 손톱깍기, 시계 등의 생활필수품을 싣고 떠나요. 제가 라다크에 도착할 때면 라다크 지역민이 아닌 이들도 멀리서 찾아옵니다. 보청기 등이 절실히 필요해서죠.”

오지에서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은 청전 스님이 오는 날만을 학수고대한다. 청전 스님은 각 마을에서 스님과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병명을 듣고 거기에 맞는 약품을 전해준다. 시력이 약한 노인들에겐 돋보기와 시계를 준다. 청전 스님의 그런 보시 여행이 연차를 거듭해가면서 그 지역에선 청전 스님이 약을 주면 모두 낫는다는 믿음까지 생겨 ‘의사 스님’으로 까지 불린다.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우유를 구하기 힘든 가난한 마을에는 요기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젖소를 사줬으며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게 온실도 짓고 있다. 그렇게 청전 스님은 29년을 살아왔다.

“힘들게 나에게 오는 이들이 모두 나의 참스승입니다.”

청전 스님은 민중, 사람이란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름 없는 많은 민중이 스승들이 달라이 라마 못지않게 오늘날 자신의 수행과 행복을 이끌어 줬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버려지는 낡은 시계, 오래된 보청기를 수리해 이들에게 건네줍니다.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을 이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또 사용합니다. 이를 보면 물질에 대한 만족과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구나를 느껴요.”

그렇기에 청전 스님은 자신을 가르친 참스승이 이름없는 민중들이라고 말한다.

“유럽이든 어디든 가서 강연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 종교가 무엇이냐구요. 저는 불교가 아니라 ‘피플, 민중’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개개인은 마치 지옥에 사는듯하다”며 “물질적으로 보면 사실 지옥은 인도의 오지인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좋고 만족하는 극락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에게 다람살라의 거처가 더욱 편한 이유다.

스님은 수행자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결국 타락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창시자들의 가르침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베푸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교조화되기 시작하면 예외없이 군림합니다. 성직자들이 대놓고

29년간 다람살라 · 라다크서 불사
주민들에게 의약품 · 생필품 전해
‘산타클로스 스님’ 별명 붙어
유신 반대 계기, 사회운동 벌여

〈선가귀감〉 보고 발심해 출가
달라이라마 한국인 제자로 인정받아
“종교는 청빈하고 민중곁에 있어야”

보시, 기부를 강요합니다. 종교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종교, 돈벌이 수단 전락 막아야

스님은 또 종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보이는 종교계의 행태는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라는 혹평도 덧붙였다.

스님에 의하면 다람살라에는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근래는 달라이라마의 법회뿐만 아니라 직접 티베트를 불교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작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을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스님들과 학자들이 있지만 이들 중 이름만 올려놓은 이들도 적지 않다.

스님은 “체재 중에 한국에 다녀오며 다람살라에는 이름만 올려놓은 뒤 이후 한국에서 무슨 ‘증’을 따고 온 마냥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진짜 수행자라면 티베트 불교이건 한국불교이건 상관없이 실천이 중요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또 스님은 “최근 티베트의 젊은 린포체들이 한국에 와 의식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 아무리 환생한 스님이지만 아직은 한참 수행해야 할 이들에게 관정을 받겠다고 수백명이 몰린다”고 탄식했다.

“한국의 불자들도 그렇습니다. 티베트의 관정은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스승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관정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일생을 수행해도 모자란 수행길은 내던지고 티베트 불교의 예식을 왜 하는지요. 이런 풍토에 아예 초청 단계부터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디 종교입니까. 비즈니스지…”

그렇다면 스님이 보시하는 물품은 어떻게 마련될까. 스님은 자발적인 불자들이 십시일반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시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버리다시피 하는 것들이에요. 조금만 손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 또한 구형이지만 이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지요. 이처럼 조금만 마음을 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종교계가 철저히 청정성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찾을 때마다 눈에 띌 정도로 종교계가 급격히 변하고 개탄했다.

“물질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성직자들이 너무 민중 위에 군림한다. 가진 자, 힘센 자와 결탁해 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종교입니다. 그 어느 세상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종교가, 성직자들이 먹고사는 직업의 일환이 되어버렸어요. 성직자는 봉사자인데 교리를 팔아 배를 채우고 있어요.”

스님은 “종교의 사명은 항상 ‘지금 여기’여야 한다”며 “‘나중에 저기’를 파는 이들이야 말로 이 시대 가장 큰 사기꾼”이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야당 성격, 쓴소리 낼 땐 내야

스님은 비판과 함께 스스로를 ‘야당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부조리를 본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한 수행자의 면모라는 것이다.

이러한 스님의 모습은 젊어서부터 이어져 왔다. 당초 교사가 꿈이었던 스님은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당시 교내에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다. 학교가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도 간첩 조사를 위해 스님을 연행했다. 스님은 그 과정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교수들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했다.

“결국 좋은 선생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나마 가톨릭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대건신학대학에 진학한 스님은 군대에 강제징집됐다. 그 곳에서도 강제로 끌려가 유신 찬성에 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 제대 후 스님의 삶의 방향에 대한 갈음은 더욱 커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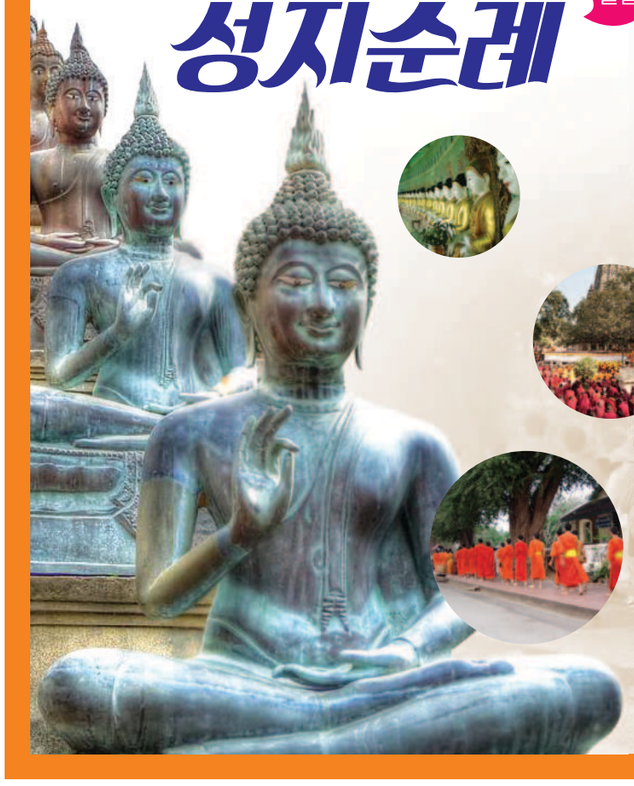
“신학대 3학년 때 우연히 〈선가귀감〉을 보았어요. 여기서 ‘생이란 한 조각 구름이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서산대사의 말이 가슴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2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20일 요금문의
부탄/네팔	8일	출발일 : 12월10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9월5일,10월17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2월1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껄로/삔띠야동굴)	7일	출발일 : 11월14일,12월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선물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산타클로스’ 스님 별명


티베트 스님과 함께 선 청전 스님


가사 한벌을 40년 넘게 입고있는 스님이 티베트 사원에서 의약품을 나눠 주고 있다.


라다크 지역아이들에게 약을 주는 청전 스님


다람살라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법회서 통역을 하는 청전 스님.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제자다.


인도 국조 공작새와 평화로운 한때. 스님은 청빈.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강조했다.
사진=전제우 한국불교사진협회장

에 확 와 닿습디다. 물어 물어 송광사 방장이신 구산 스님을 찾아 뵈었는데 스님이 보시자마자 ‘전생에 천축국 구법승이 어째 찾아왔는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가슴에 뭉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민하다 결국 머리를 깎았죠.”

1977년의 일이었다. 스님은 부조리에 대한 종교계의 활동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일도 회고 했다.

“이전부터 조찬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개신교계에서 정치권에 잘보이기 위해 하는 것을 전두환 당시 불교계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처럼 각종 사안에 목소리를 높였던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에 있던 법정 스님과도 남다른 인연을 쌓았다. 스님은 사중에서도 소위 주의대상이었다. 법정 스님은 혹여 사중에서 스님이 오해를 받을 때 해명을 대신해주기도 했다. 스님은 뛰어난 식견으로 사회 현안마다 청량함을 주었던 법정 스님과 서서히 닮아갔다.

“법정 스님이 ‘이게 없으면 죽는다’ 는 것만 빼고는 갖지 말라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사 장삼을 주시더군요. 승려로서 이것만은 필요하다구요. 그 가사를 인도에서 40년 넘게 입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준 가사장삼은 스님의 유일한 소유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이후 구름처럼 물처럼 운수행각을 했다. 스님의 이런 삶은 남지심 선생의 소설 〈우담바라〉의 주인공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종교인은 솔직하고 인간적이어야

스님은 수행과정에서 떠오른 의문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 1987년 동남아 불교국가로 순례를 떠났다. 여기서 테레사 수녀를 비롯해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될 달라이라마와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된다.

“처음 만났을 때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선방에서도 큰 스님들에게 여쭸을 때가 있었어요. ‘이놈아, 한 생각 돌이키면 된다’ 고 했죠.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당황할 만한 질문인데도 ‘내게도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 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더군요. 다만 달라이라마는 여기에 ‘그런 위기가 오면 불제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극복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담대하다고 생각이 들며 존경심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스님이 인도에서 29년을 살게 한 계기였다. 스님은 돌아와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1988년부터 다람살라와 라다크 일대에서 수행에 들어갔다.

스님은 “출가정신은 불법에 대한 확신”이라며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서 보며 확신했다. 승려에게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국 명예욕, 물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살면서 존경하고, 또 감동받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더라구요. 법회 때는 단상보다는 대중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솔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청전스님이 인도에서 보내는 일상은 한국에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스님은 다람살라 도서관 인근에 작은 방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명상하고 티베트 절 30분, 간경 30분 후 빵이나 보릿가루로 아침 공양을 하고 다시 명상한 후 점심을 정성껏 차려먹는다. 낮에는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앞서 말했듯, 눈과 얼음이 녹는 여름에는 라다크 지역에도 들려 아픈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수행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남을 위하고 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편안한 대로 하는 거예요. 폼 잡지 말고 편하게 사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지난봄 귀국해 한 거사의 강권 아닌 강권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그는 “의사가 영양실조래요”라며 웃었다.

“이젠 라다크 방문 횟수를 줄일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보시하러 가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불러 필요한 의약품 등을 가져가게 하면 되니까요.”

스님은 이번 대상을 받으러 한국에 오기 전 한 독지가가 선물한 자동차를 라다크의 한 마을에 전달하고 왔다.

“요즘 돈만 벌려고 하는데 가난도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라면 가난이 아니다”는 스님은 “남을 위한 봉사와 자기희생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곱씹으며 이날의 만남은 끝이 났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공공성과 국제성

2012년 6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그해 8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3회 잼버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13회 잼버리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참여한 첫 대회였다.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열린 대회에는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에서는 118명의 대원들과 방문단 111명이 참가해 유익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대회에서는 고공활강, 스킨다이빙, 웨이브서핑, 통일전망대 견학, 비치보트, 패러글라이딩, 챌린지밸리, 오리엔티어링, 트래킹, 합장주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여기서 불교스카우트 대원들의 활동은 대단했다.

불교연맹이 차린 불교관 내 부스에는 4일 4일 800명, 6일 785명이 찾았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무려 1,885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한 외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대회의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체험활동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대회를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만법에 부처님 법이 있고, 부처님도량이 아닌 곳이 없듯이 포교분야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불교계의 활동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그림 · 박구원

정각사에서 온 최지웅 불교스카우트 대원은 철인 경기인 아이언맨 경기에서 완주해 ‘Iron man 어워드’ 를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오리엔티어링 대회에는 범어사 대원과 정각사 대원이 참가해 다른 대원들에게 불교 수행으로 인한 경험담을 자랑하기도 했다.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롯한 참관단으로 참여한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대회 기간 동안 종교관을 운영해 야외법당을 조성하고, 조 · 석 예불을 모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새벽에 시작되는 예불소리에 혹시 대회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침 기상시간에 스님들의 법고소리를 들으며 기상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주변에 있는 타연맹의 대장들도 불교연맹의 캠프를 찾아와 ‘아침마다 들리는 법고 소리가 너무 좋다’ 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잼버리 기간 중 의외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불교의 ‘합장주 만들기’ 였다.

불교연맹이 차린 불교관 내 부스에는 4일 4일 800명, 6일 785명이 찾았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무려 1,885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한 외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대회의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체험활동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대회를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만법에 부처님 법이 있고, 부처님도량이 아닌 곳이 없듯이 포교분야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불교계의 활동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종교색을 확연히 띄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국제화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제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장벽을 넘고 허물어야 했다. 스카우트가 세계 161개국, 3000여 만 명이 종교와 인종, 국경을 초월해 참여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이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기독교 단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앞으로 한국청소년 포교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불교연맹, 나아가 세계불교연맹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명원 스님(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체프 커미셔너)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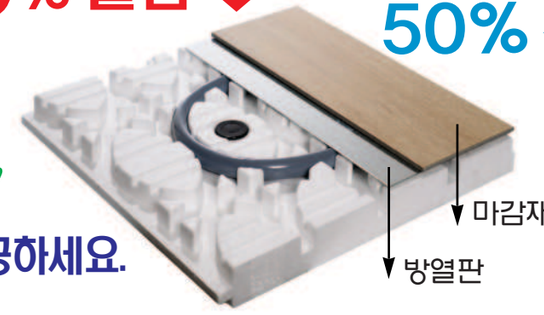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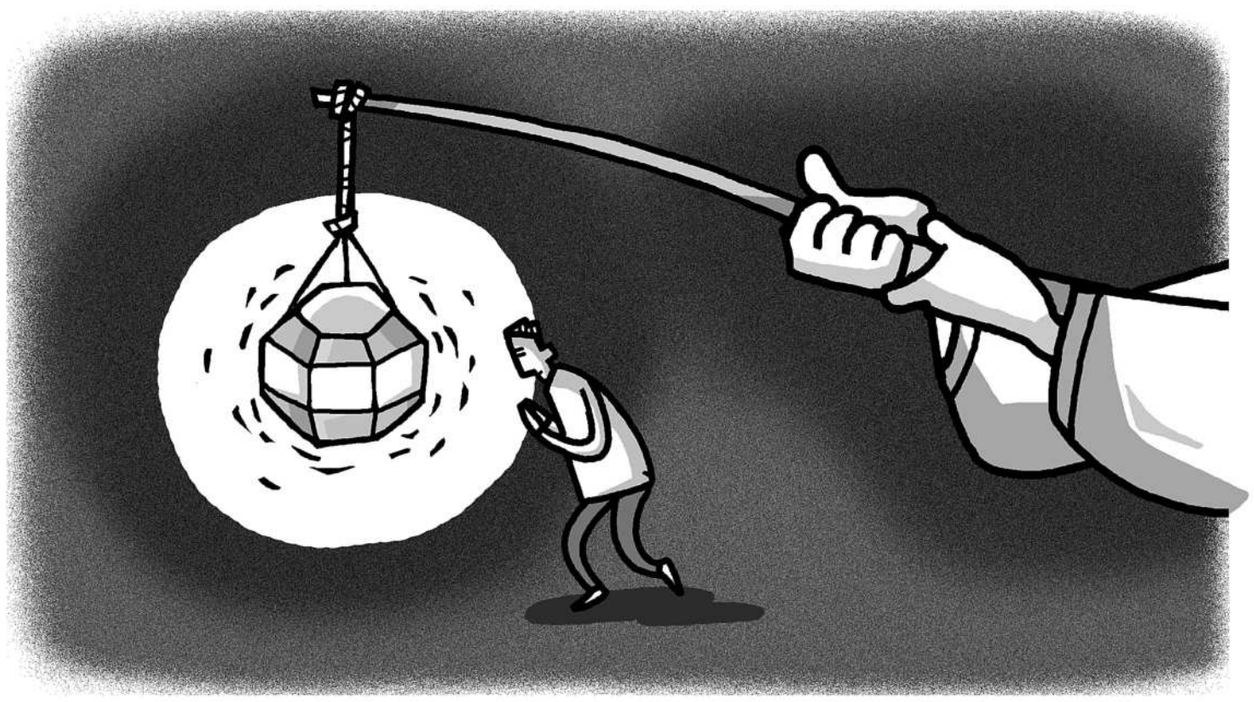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감사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칠석과 백종이 다가왔습니다

질문 처음 절에 1년 2년 다닐 때는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가 전부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서는 매년 시기별로 지내는 행사들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밝아지고 더불어 조상이 함께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물러나는가 싶더니 벌써 칠석과 백종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을 어떻게 받들어야 저의 수행과 둘 아니게 챙겨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종에는 또 어떻게 마음을 내야 조상님들의 마음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를 많이 상상하시죠. 옛날이야기든 뭐든 이치가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없을 겁니다. 옛말에도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 둘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칠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둘 아니게 인연이 되는 그런 인연의 소치를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성, 말하자면 칠석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근본은 칠성입니다. 그러나 칠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칠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불성이 밝으면 모두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뭐 꿈을 꾸었는데 꼭 죽을 꿈이라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깐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 하고선 관하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다 훌렁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칠석날 마음을 밝게 해서 백중에 모든 조상의 영령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고, 땅이 없으면 인간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곤충 같은 것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다리가 찢기고 목이 떨어져도 달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신의 삶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곡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수화풍의 도리를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만이 만물만생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에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죠. 또 음식을 가공해서 먹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심 · 공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총동원해서 한마음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래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대로 한 종자의 한 종류니까 살아서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중날은 내 마음이 자식의 도리로서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을 통틀어 하면서,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제 마음과 같이 둘 아니게 한자리를 하소서.' 하고선 한량없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리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고,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못 사 드렸고, 공양 한번 따뜻하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랬고, 철을 몰라서 그랬고, 철들어서는 부모가 안 계시니 이 불효를 어떡합니까?' 하고 지극히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서 온 천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령들의 마음이 '어이구,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향기가 퍼지는구나.' 하고 그 퍼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와서 친견을 합니다. 친견할 때 모습이 없으면 친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놓거나 위패를 놓습니다, 거기에 응접하시라고. 그래서 꽃잎마다 응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접을 해서 '내 아들, 장하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그 조상이 그 도리를 알게 되어 자식의 마음, 공부한 자식의 마음속으로 탁 들어가 보면 '아하, 내 자식이 따로 없구나. 돌아가면서 부모 자식 노릇하기에 더불어 같이, 이 끝없는 자비가 아니라면 어찌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식들의 그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니 흔히, 천도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백중이고 추석이고 따로 또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더 이상 안 먹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 몸이 없어졌다고 다 끝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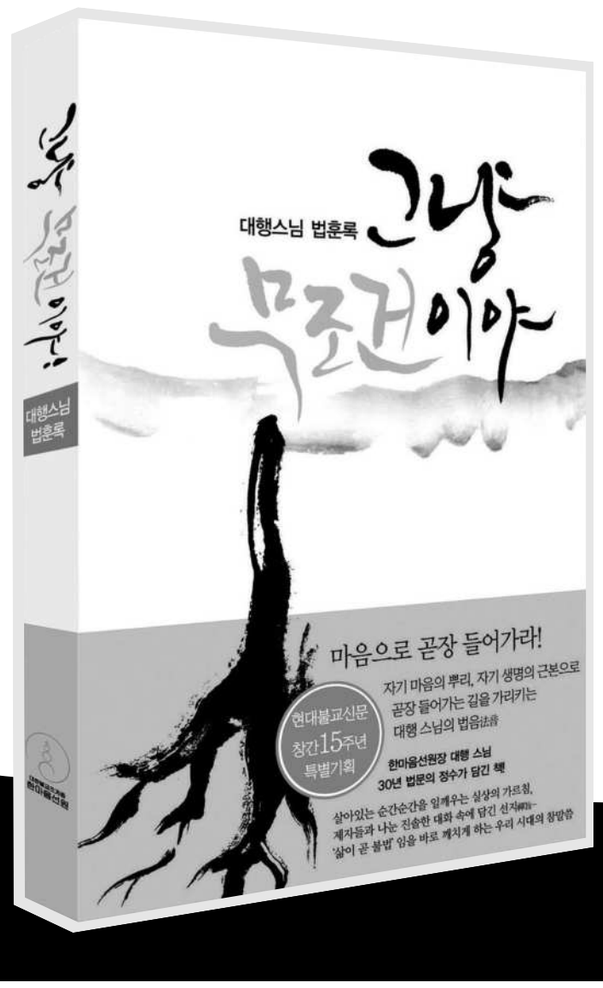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영혼에 대해서

질문 부처님께서는 영혼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만을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윤회니 업보니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면 가운데서,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바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까닭은 바로 마음 내기 이전 그 자체에 마음과 영혼이 둘이 아니게 결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을 각각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같이 돌아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내기 이전은 그대로 근본이 돼 있죠. 그대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한마음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여래이며 부처!

☞ 29면에서 계속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요

질문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면 모두가 주인공의 모습일진대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댁의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는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 내려고 앨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사는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또 정신계의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질 않거든요. 그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둘 아니게 이렇게 상봉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길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하니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듣고 믿고, 그걸 길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질 않았으면 그것도 길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죠. 그럴 텐데 갔기 때문에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길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이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게 그,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깐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내가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하게 되죠. '아이고,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 될 수가 없죠. 항상 둘이 되죠. 그러니깐 문제는 그런 데서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나중엔 그 하나도 없다.' 이게 나오질 않죠.

그래 지금 모두 많이들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냥그냥 속세에서, 지금 물질세계에서, 마음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니 같이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길을 제대로 걷게 되질 못하죠.

이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도 이걸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병원에 가는 게 옳으냐 이거를 문제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 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오직 그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지 않는 분들은 서지 않은 대로,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그걸 떠나서 진실히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차를 타고 가다가 스님 법문 중에 "천년 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지 못한 채 중생으로 살아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억겁의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나라는 존재는 모두가 시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시자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합니다. 마음을 구해야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으로 나를 뛰어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 하고 유마힐 거사가 말했듯이 부처님께서도 "너의 자생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래 어떻게 해야 내 자생 중생을 제도하나? 우리가 지금 지구에 매달려 살면서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몸뚱이 속의 중생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를 뿐더러 좋고 나쁜 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대로, 강도질을 하려고 한다면 강도질하는 대로 그냥 좇아 주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착한 일로 좇아 줍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면 손이 쫓아다니듯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찌 마음으로써 다스리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자뿐만 아니죠. 속가에서 사는 여러분이 다 부처이자 법신이니까요. 항상 부처님의 법에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부딪침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절대로 의리와 도의를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을 이름해서 계향(戒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성 선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선이 중심이 되고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에서도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나쁘게 생각이 나오고 나쁘게 닥치고 이러는 것은 나쁘게 나오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자기 주인공에 놓고, 안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럴 땐 거기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그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름해서 정향(定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계향 정향만 잘해도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이 얘기 다 아실 겁니다. 팥죽 방울이 끓어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답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오는 것도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망상도, 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놔라. 미리 '어, 이것도 팥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너로구나!' 하고 탁 눌러 놓고, 이것도 눌러 놓고 저것도 눌러 놓고 그러시란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몸뚱이 속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림이요,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그 모든 거를 거기다가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헌 쇠든지 새 쇠든지 오락지든지 넣으면 다 녹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작업만 한다면 다 녹아서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잘될까 말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모든 것은 네놈이 하는 것이니까,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네놈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아서 구정물이 나올 땐 맑은 물로 바꿔서 써라 이런 겁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觀이 되려면

질문 사실 요즘은 과거보다도 상당히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마음이 조급하고 여유 없이 그냥 급박하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게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큰마음 한번 내 주시고 저희 선원 가족 모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관(觀)이 아닌, 우리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관도 포함시켜서 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립니다.

답변 그런데 나도 해 둬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觀)하면 일체 과거 생이나 현재 생이나 미래 생을 포함해서 삼심(三心)을 일심(一心)으로 귀합을 시켜서 지금 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현 사회의 모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관해야 할 일들이 지금 급하게 닥친다고 봐도 됩니다.

첫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더불어 폭넓게 그릇이 크게 만들어져야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받아들였으면 바로 세계적으로 내보내야 할 지혜로움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통하게끔, 통해서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자기의 기상이 다 그냥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원력을 상실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로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용도를 다 상실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대로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때는 넓게끔 하고 나갈 때는 시험을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도록 관하시면 어떤가.

또 셋째, 지금 사업가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마음이 넓지 못한 까닭인지 몰라도 모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제한을 조금 풀어 줬으면, 외화도 어떠한 문제점만 거론해서 딱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넓혀 주면 사업이 넓어지지 않을까. 또는 조그만 사업들을 하는 구성체를 그 큰 사업가들이 좀 똘똘 뭉쳐서 돌봐주는 마음과, 정부에서 좀 돌봐주는 마음이 한 나라에 한마음으로써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앞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에 경제혼란이나 또는 어떤 타격이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또 넷째, 사람들이 모두 정신계를 추구하고 가야 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물질계에서 헤매고 온통 물질계로만 이론을 가지고 나간다면 절대로 이것은 성립을 못한다. 왜 못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모든 젊은이들이 늙으나 젊으나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막론하고 자기를 돌볼 줄을 모른다.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른다. 자기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 모습이 화려하고 아주 특이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없는 처지니 이 마음의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끔 되면 좋지 않은가. 즉 말하자면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이렇게 둘 아니게, 선(禪)과 교(敎)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둘 아니게 이 도리를, 진리로 구성된 전체의 귀합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이런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선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모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찾는 거보다도, 배를 젓고 가면서 바깥으로 살려 달라고 하지 말고 안으로 '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다스려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해 나가는 공부를 제대로 하게끔 하면은, 도둑이나 사기나 또는 강도나 어떠한 불상사도 아마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다면 꼭 그렇게 해서 지켜보시도록 하세요. 모두 그런 마음으로써 지켜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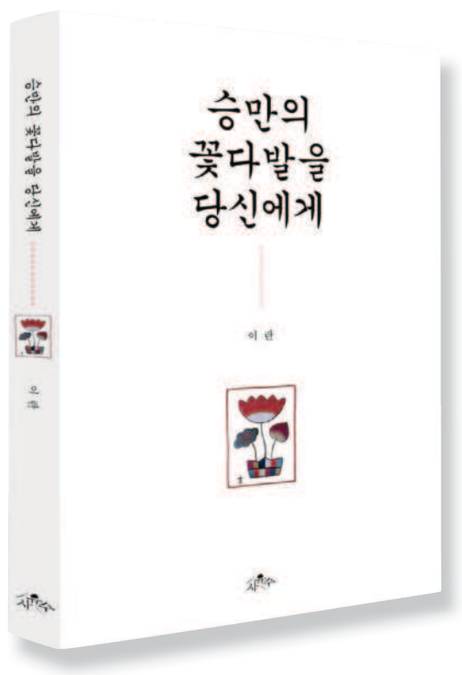
이 시대의 승만보살로, 신사임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보살의 수묵화같은 수행기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은행통장은 없어도 공덕통장을 채우고 살면 행복하다
고난은 방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신호
승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란 부인은 여여원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사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교계의 향기로운 난초(蘭)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재가불자의 훌륭한 모델로 존중받는 이란 보살의 열정과 헌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 고영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많은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셨다. 어머니의 소리없이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은 교육자인 나에게 어떠한 이론서보다 귀감이 되는 교과서였다. 어머니처럼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고 싶다.
— 이재성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 교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부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부처, 아들부처, 이웃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껏 어디를 가든 다녀간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리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여여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공부하는 벗들의 모임이다. 공부를 하려면 청정한 도량, 훌륭한 스승, 신심 깊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법당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심깊은 도반들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지속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승만경〉은 경전 중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한 경전이다. 승만부인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재가불자의 본보기로서 많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여여회 회원들과 108배와 함께 경을 공부하면서 승만보살의 서원과 실천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자칭 살림 전문가다. 살림이 명상이고 예술이었다.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이지만 수행을 통해 본성을 알려고 노력한 시간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나의 신장님이라 생각한다.
— 본문 가운데서

이란 修德華 지음 | 값 17,000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9-4 이가빌딩 104호 대표전화 02-336-8910 사문수